

서유기

西遊記 · 오승은 100회본

제6권 (제51회 ~ 제60회)

오승은 (吳承恩, 약 1500-1582)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5-26

책 정보

원전

오승은 『서유기(西遊記)』 世德堂本(1592년 명대), 10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西遊記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
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6

번역 정책

- 인명·지명은 한국 한자음(孫悟空 → 손오공, 玄奘 → 현장)
- 별칭·법명·도호는 본명으로 통일(美猴王 → 손오공, 八戒 → 저팔계, 三藏 → 당승)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卻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한편", 詩曰/偈曰 → 시·계송 형식 유지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51회 — 마음의 원숭이가 온갖 계책을 부리나, 물과 불로는 마를 다스리기 어렵다	5
제52회 — 손오공이 금각대왕을 크게 소란스럽게 하다	32
제53회 — 선주가 음식을 삼켜 귀신의 잉태를 품고, 황파가 물을 운반하여 사악한 태를 해소하다	59
제54회 — 범성이 서쪽에서 넘어와 여인국을 만나고, 마음의 원숭이가 계책을 세워 연화의 유혹에서 벗어나다	90
제55회 — 색욕과 음란한 유희가 당삼장을 흔들고, 성품을 바르게 닦아 불괴의 몸을 이루다	115
제56회 — 신이 미쳐 초적을 차단하고, 도가 미혹되어 마음의 원숭이를 놓아주다	144
제57회 — 진행자가 낙가산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가짜 손오공이 수렴동에서 문서를 훔치다	169
제58회 — 두 마음이 대건곤을 어지럽히고, 한 몸으로는 진정한 적멸을 닦기 어렵다	191
제59회 — 당삼장이 화염산에서 길을 가로막히고, 손오공이 파초선을 한 차례 휘두르다	214
제60회 — 우마왕이 싸움을 멈추고 잔치에 참석하고, 손행자가 두 번에 걸쳐 파초선을 부르다	240

제51회 — 마음의 원숭이가 온갖 계책을 부리나, 물과 불로는 마를 다스리기 어렵 다

心猿空用千般計 水火無功難煉魔

금동(金洞)

여래가 주인공에게 암시를 주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제천대성 손오공은 맨손으로 싸우다 패배한 뒤
금산으로 돌아왔다. 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부짖었다.

"스승님, 스승님! 스승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부처님의 은덕은 끝이 없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어린 시절부터 뜻을
같이하며 끝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함께 머물고 함께 수행하며 함께 해
탈하고 함께 자비로운 마음을 품어 신령한 공덕을 드리내려 했습니다.
함께 인연을 맺고 같은 모습으로 진실하게 마음을 나누며 함께 보고 함

께 깨달아 도를 통하게 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은 스승님의 지팡이도 없이 맨손에 맨발로 이 일을 어찌 헤쳐 나가란 말입니까!"

손오공은 한참 동안 슬프게 울다가 속으로 생각했다. '그 요괴는 나를 알아보는구나. 싸울 때 나를 보며 "정말로 천계를 어지럽히던 그놈이 맞구나!"라고 떠들었지. 저런 놈이라면 분명 평범한 괴물이 아닐 거야. 틀림없이 천계에서 내려온 흉성(凶星)이 인간 세상에 관심이 생겨 내려온 것이겠지. 대체 어느 곳에서 내려온 마물인지 모르겠으니, 일단 천계로 올라가서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다.'

손오공은 마음속으로 앞뒤를 가늠하며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 그는 급히 몸을 날려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남천문 밖까지 단숨에 날아갔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광목천왕이 마중 나와 서 있었다. 광목천왕이 손오공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이며 물었다.

"제천대성,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옥황상제를 뵈러 가는 길이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은 제가 남천문을 순찰할 차례입니다."

광목천왕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 조, 온, 관 네 명의 원수가 다가와 예를 갖추며 말했다.

"대성, 마중 나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잠시 차라도 한잔하시지요."

"지금 급한 일이 있다."

손오공은 광목천왕과 네 원수에게 작별을 고하고 곧장 남천문 안으로 들어갔다. 영소전 앞에 이르니 과연 장도룡, 갈선웅, 허정양, 구홍제 네 천사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남두육사와 북두칠성 신선들도 모두 전각 앞에서 손오공을 맞이하며 일제히 손을 들어 인사했다.

"대성,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들은 이어 물었다.

"당승을 지키는 임무는 다 마쳤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아직 멀었지요, 아직 멀었습니다. 갈 길이 멀고 요괴도 워낙 많아서 이제 겨우 절반 정도의 공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산 금동에서 발이 묶여 버렸지 뭐니까. 시괴(兇怪)라는 요괴가 당승 스승님을 동굴 안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직접 찾아가 한바탕 싸워봤는데, 그놈 신통력이 어찌나 대단한지 제 금고봉까지 빼앗아 가 버렸지 뭐니까. 그래서 요괴를 꼼짝 못 하게 묶어둘 수가 없어요. 혹시 천계의 어떤 흥한 별이 인간 세상에 욕심을 내어 내려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대체 어디서 내려온 요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님을 찾아뵙고 천계에서 별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건 아닌지 따져 물으려고 왔습니다."

허정양이 웃으며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은 여전히 저렇게 억지를 부리는군."

손오공이 맞받아쳤다.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저 손오공은 평생 이렇게 입이 좀 매서
워야 일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장도룡이 말했다.

"더 말할 것 없으니, 바로 상제님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손오공이 대답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네 명의 천사가 영소전으로 가서 옥황상제께 보고를 올리자, 손오공
을 옥좌 앞으로 인도하였다. 손오공은 위를 향해 길게 읊하며 아뢰었
다.

"어르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손오공이
당승을 모시고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데, 가는 길마다 험한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산 금동에 어
떤 시괴(兇怪, 외뿔 들소 같은 괴물)가 나타나 당승을 동굴 안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놈이 스승님을 찢 먹을지, 삶아 먹을지, 아니면 말려
먹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놈을 찾아가 싸워보았는
데, 그 요괴가 저를 좀 아는 것 같더군요. 게다가 신통력이 어찌나 대단
한지 제 금고봉까지 빼앗아 가버렸으니, 이제 요괴를 붙잡을 방법이 없
습니다. 아무래도 하늘의 흥한 별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여 내려온 것

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보고를 드리러 왔습니다. 부디 천존께서 자비를 베풀어 환히 살피주시고, 흥한 별이 있는지 조사하여 군사를 내려 요괴를 소탕해 주십시오. 저 손오공은 두려움에 떨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깊숙이 허리를 굽혀 절하며 말했다.

"이상 아뢰옵니다."

곁에 있던 갈선옹이 웃으며 말했다.

"원숭이 녀석, 어찌 이리 앞에서는 거만하더니 뒤에서는 공손한 척을 하는 게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앞에서 거만하고 뒤에서 공손한 게 아니라, 지금 저에게는 휘두를 막대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옥황상제가 보고를 듣고는 즉시 가한장인진군에게 명을 내려 알렸다. "손오공이 말한 대로, 하늘의 모든 별과 각 속의 신왕들을 조사하여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여 내려간 자가 있는지 찾아보아라. 조사한 결과는 즉시 다시 보고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가한장인진군은 명을 받들어 곧바로 손오공과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사천문의 문을 지키는 신왕과 관리들을 조사했다. 그다음으로 는 삼미원의 안팎에 있는 크고 작은 신선들을 모두 살폈다. 이어 천둥과 번개를 관장하는 도, 장, 신, 등, 구, 필, 방, 유 여덟 명의 관장과 장

군들을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삼십삼천을 조사하니, 하늘의 모든 곳이 평온했다. 또한 이십팔수도 조사했다. 동쪽의 각, 항, 저, 방, 참, 미, 기 일곱 별과 서쪽의 두, 우, 여, 허, 위, 실, 벽 일곱 별, 그리고 남쪽과 북쪽의 일곱 별씩도 모두 평안했다. 나아가 해와 달, 그리고 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의 일곱 행성과 라후, 계도, 기, 패 등 네 가지 별의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보았으나, 하늘 가득한 별들 중 인간 세상을 탐내어 내려간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나 손오공이 굳이 영소전까지 올라가 옥황상제님을 번거롭게 해 드릴 필요는 없겠군. 그대는 가서 보고만 드려도 충분하니, 나는 여기서 그대의 답을 기다리겠네." 가한장 인진군은 명에 따라 물러갔다. 손오공이 한참을 기다리던 중, 기분이 좋아져 시 한 수를 읊었다.

시로 이르되,

"바람 맑고 구름 걷히니 태평성대 즐겁구나. 신선들은 고요하고 별들은 상서롭게 빛나네. 은하수는 평온하고 천지는 태평하니, 사방팔방 어디에도 전쟁의 기운은 없도다."

가한이 모든 별자리와 신선들을 낱낱이 조사한 뒤, 옥황상제에게 보고했다. "하늘의 별들은 매우 많고 각지의 신장들도 모두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을 탐내어 아래로 내려가려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옥황상제가 말했다. "손오공에게 천계의 장수 몇 명을 골라 아래로 내려가 요괴를 잡게 하라."

네 명의 천사가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어 영소전을 나와 손오공에게 말했다. "제천대성님, 옥황상제께서 너그러운 은혜를 베푸시어, 천계에는 속세를 그리워하는 신선이 없으니 네가 직접 천계의 장수들을 골라 요괴를 잡으라고 하셨다."

손오공은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생각했다. '천계의 장수들 중에 나보다 못한 놈은 많아도, 나보다 나은 놈은 드물지. 예전에 내가 천계에서 난동을 피울 때 옥황상제가 십만 천병을 보내 그물망처럼 촘촘히 에워쌌지만, 내 상대가 될 만한 장수는 단 한 명도 없었어. 나중에 나타난 이랑진군 정도나 되어야 겨우 내 상대가 되었지. 그런데 지금 그 요괴는 수단이 나보다 더 강하다니, 대체 어떻게 이긴단 말인가?'

그러자 허정양이 말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들 '하나의 사물에는 반드시 그것을 제압하는 다른 사물이 있다(一物降一物)'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감히 상제의 명을 거역하시렵니까? 대성께서 깊이 생각하시어 어서 장수를 선발하십시오. 지체하다가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상제의 은혜가 참으로 깊으니 명을 어겨서는 안 되겠군. 게다가 나도 이렇게 허탕만 치고 돌아갈 수는 없지. 허정양, 그대는 어서 옥황상제께 전하라. 탁타이천왕과 나타 태자만 보내주면 되겠다고 말이다. 그들에게는 요괴를 제압할 신기한 병기들이 몇 가지 있으니, 일단 하계로 내려가 그 괴물과 한판 붙어보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해라. 만약 그들을 잡을 수 있다면 내 행운이겠지만, 만약 안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방도를 찾아보겠다."

천사가 옥황상제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옥황상제는 즉시 이정 부자가 천병들을 거느리고 손오공을 도와 요괴를 물리치도록 명했다. 이정은 옥제의 명을 받들어 손오공을 만나러 왔다. 손오공이 천사에게 다시 말했다.

"옥황상제께서 천왕을 보내주시니 그 은혜를 다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천왕께서 싸우실 때, 뇌공 두 명을 불러 구름 위에서 천둥을 내리치게 하여 요괴의 정수리를 그대로 꿰뚫어 버린다면 참으로 좋은 계책이 될 것입니다."

천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천사는 다시 옥황상제에게 보고하여, 구천부에 있는 뇌공인 등화와 장번 두 명을 내려보내 천왕과 힘을 합쳐 요괴를 묶고 난을 구하라는 명을 전달하게 했다. 그리하여 천사는 이정, 손오공과 함께 남천문 밖으로 내려갔다.

순식간에 도착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곳이 바로 금산이군요. 산 한가운데에 금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가서 싸워볼지 의논해 보시지요." 이천왕(李天王)은 구름을 멈춰 세우고 천병들을 산 남쪽 언덕 아래에 머물게 한 뒤 말했다. "대성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제 아들 나타는 일찍이 아흔여섯 개의 동굴에 사는 요괴들을 항복시킨 적이 있습니다. 변화술에 능하고 몸에 요괴를 물리치는 병기들을 갖추고 있

으니, 반드시 그를 먼저 보내 싸우게 해야 합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태자를 데리고 가겠소."

나타는 위엄을 떨치며 손오공과 함께 높은 산을 뛰어넘어 곧장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하지만 동굴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절벽 아래에는 기척조차 없었다. 손오공이 앞으로 나서서 크게 외쳤다. "이 요괴 놈 아! 당장 문을 열고 우리 스승님을 돌려보내라!"

동굴 안에서 문을 지키던 어린 요괴가 이를 보고 급히 보고했다. "대왕님, 손오공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문 앞에서 싸우자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요괴가 말했다. "그 원숭이 놈이 내게 철봉을 빼앗겼으니 맨손으로 는 이기기 힘들 터, 분명 구원병을 데려온 모양이구나. 병기를 가져오너라!"

요괴는 창을 손에 쥐고 문밖으로 나가 살펴보았다. 그런데 나타는 용모가 매우 빼어나고 기운이 아주 당당했다. 참으로 이러하였다.

옥 같은 얼굴은 보름달처럼 아름답고, 붉은 입술과 네모난 입 사이로 은빛 치아가 빛난다. 번뜩이는 눈빛은 번개 같고 눈동자는 사나우며, 넓은 이마에는 노을이 머물고 머리 모양은 단정하다. 수놓은 띠는 바람을 일으키며 채색 불꽃처럼 휘날리고, 비단 도포는 햇빛을 받아 금빛 꽃처럼 빛난다. 반짝이는 허리띠는 마음을 사로잡고, 빛나는 갑옷은 전투화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몸집은 작으나 목소리는 우렁차고 기세가 웅장하니, 삼천 세계에서 교범을 수호하는 악한 나타로다.

요괴가 비웃으며 말했다. “너는 이정 천왕의 셋째 아이인 나타 태자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문 앞까지 와서 고향을 지르고 있는 것이냐?”

나타가 말했다. “네놈 같은 요괴가 난동을 부려 동토의 성스러운 승려를 괴롭히고 있기에, 옥황상제의 엄명을 받들어 너를 잡으러 왔다!”

요괴가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다. “손오공이 보낸 놈이 분명하구나! 내가 바로 그 성스러운 승려를 괴롭히는 마왕이다! 네놈 같은 어린애가 무슨 무예를 가졌기에 감히 큰소리를 치느냐? 도망갈 생각 마라, 내 창맛을 좀 봐라!”

나타는 요괴를 베는 검을 휘두르며 맞서 싸웠다. 두 존재가 서로 맞붙어 치열하게 싸우는 사이, 손오공은 급히 산비탈을 돌며 외쳤다.

"뇌공들은 어디 있느냐? 어서 가서 저 요괴에게 벼락을 내려 나타를 도와라!"

그러자 등공과 장공, 두 뇌공이 즉시 구름을 밟고 달려가 공격하려 했다. 그런데 그때 나타가 법력을 발휘하여 몸을 세 개의 머리와 여섯 개의 팔을 가진 모습으로 변신시키더니, 여섯 가지 병기를 손에 들고 요괴를 향해 내리쳤다. 요괴 역시 세 개의 머리와 여섯 개의 팔로 변신하여 세 자루의 장창으로 이를 막아냈다. 나타는 다시 요괴를 굴복시키는 법력을 부려 여섯 가지 병기를 공중으로 던져 올렸다.

그 여섯 가지 병기가 무엇이었냐면, 요괴를 베는 검과 칼, 요괴를 묶는 밧줄, 마귀를 굴복시키는 지팡이, 수구(공 모양의 장식), 그리고 불

타는 바퀴였다. 나타가 "변해라!" 하고 크게 외치자, 병기들은 열 개로, 백 개로, 천 개, 만 개로 끊임없이 변하며 마치 소나기와 우박처럼 뻑뻑하게 요괴를 향해 쏟아져 내려갔다.

하지만 요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한쪽 손으로 하얗고 번뜩이는 고리를 꺼내 하늘 위로 던지며 외쳤다.

"받아라!"

그러자 고리가 획 소리를 내며 날아가 여섯 가지 병기를 모두 낚아 채 버렸다. 결국 나타는 맨손으로 겨우 몸을 피하며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요괴는 승리를 거두고 유유히 돌아갔다.

등화와 장번, 두 뇌공은 공중에서 몰래 웃으며 속삭였다. "다행히 우리가 먼저 형세를 살펴보고 벼락을 내리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약 벼락마저 저 요괴에게 낚여 가버렸다면 나중에 천존을 무슨 낮으로 뵈겠느냐?" 두 뇌공은 구름을 타고 내려와 나타와 함께 산 남쪽 언덕 아래로 내려가 이천왕에게 말했다. "요괴의 신통력이 참으로 광대합니다." 그 곁에 있던 손오공이 곁들여 웃으며 말했다. "저놈의 신통력은 별거 아닙니다. 문제는 저 고리가 너무나 무시무시하다는 것이지요. 대체 무슨 보물인지, 던지기만 하면 무엇이든 척척 잡아채니 말입니다." 그러자 나타가 분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제천대성, 당신은 정말 철이 없군요! 우리가 병사들을 잃고 패배하여 이토록 괴로워하는 것이 다 당신 때문인데, 어찌 당신은 웃음이 나오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자네는 괴롭다고 하지만, 그럼 나라고 해서 괴롭지 않겠나? 나도 지금 어찌할 방도가 없어 울 수도 없으니, 그저 웃음이 나오는 것뿐이라네."

이정 천왕이 말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결판을 내겠다는 말인가?"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건 당신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짜내어 계산해 봐야 알 일이지요. 다만, 그 고리로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놈이라면 그대로 붙잡아 버리면 됩니다."

이정 천왕이 말했다. "잡을 수 없는 놈에게는 물과 불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네. 흔히들 '물과 불은 자비가 없다'고 하지 않는가."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말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여기 편히 앉아 계십시오. 이 몸이 다시 한번 천계로 올라가 좀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등화와 장번 두 뇌공이 물었다. "또 어디를 가시려는 겁니까?"

손오공이 설명했다. "내가 가는 길은 옥황상제께 따로 보고할 필요도 없네. 그저 남천문에 들러 동화궁으로 가서, 화덕성군을 이곳으로 모셔오려는 것이네. 그분이 오셔서 그 괴물을 한바탕 불로 태워버린다면, 어쩌면 그 고리까지 재로 만들어 버려서 요괴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나. 그러면 당신들의 무기도 되찾아 천계로 돌려보낼 수 있고, 우리 스승님의 위기도 해결할 수 있을 테니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나타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망설이지 마시고 어서 다녀오십시오, 대성! 저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손오공이 상서로운 빛을 일으키며 다시 남천문 밖으로 날아갔다. 광목천왕과 네 명의 장수가 마중 나오며 물었다.

"제천대성께서 어찌하여 또 오셨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천왕이 나타를 출전시켰는데, 한바탕 싸우는 사이에 그 요괴에게 병기 여섯 가지를 모두 빼앗기고 말았소. 그래서 나는 지금 동화궁에 가서 화덕성군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것이오."

네 장수는 손오공을 오래 붙잡아 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손오공이 동화궁에 이르자 불의 신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곧장 안으로 들어가 알렸다.

"손오공이 주군을 뵈고자 합니다!"

그러자 남방의 세 가지 기운을 다스리는 화덕성군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문밖으로 나와 손오공을 맞이하며 말했다.

"어제 가한사(可韓司)가 우리 궁을 조사해 보았으나,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 사실은 이미 알고 있소. 하지만 이천왕과 나타가 싸움에서 패해 병기를 잃었으니, 특별히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소."

성군이 대답했다.

"나타는 삼단해회대신으로, 그가 태어날 때 이미 아흔여섯 개의 동굴에 사는 요괴들을 굴복시켰을 만큼 신통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도 이기지 못하는데, 미천한 제가 어찌 감히 바라겠습니까?"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이천왕과 의논해 보니, 천지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오직 물과 불뿐이라 하더군. 그 요괴에게 사람을 낚아채는 신비한 고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대체 어떤 보물인지 모르겠소. 불은 세상 만물을 태워 없앨 수 있으니, 성군께서 화부의 신들을 거느리고 아래로 내려가 요괴를 불로 태워버려 주시오. 그래야 내 스승님의 난관을 구할 수 있겠소."

화덕성군이 그 말을 듣고 즉시 자기 부하 신병들을 불러 모아 함께 금산 남쪽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이정, 뇌공 등과 만났다. 이정이 말했다. "손오공, 네가 가서 그놈을 다시 불러내라. 내가 놈과 맞서 싸우는 동안, 놈이 고리를 던지면 나는 재빨리 피할 테니, 그때 화덕성군이 무리를 이끌어 놈을 불태워 버리게 하자."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좋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화덕성군은 나타, 등공, 장공과 함께 높은 봉우리 위에 서서 요괴를 기다리며 전투를 준비했다.

손오공이 금동 입구에 도착하여 크게 소리쳤다. "문 열어라! 어서 빨리 우리 스승님을 돌려보내라!"

그러자 요괴가 급히 안으로 소식을 전했다. "손오공이 또 왔습니다!"

요괴의 부하들이 동굴 밖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손오공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다. "이 말썽꾸러기 원숭이 녀석, 이번에는 또 어떤 군사를 데려온 것이냐?"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이정이 호통을 치며 나섰다. "이 요괴 놈아! 나를 알아보겠느냐?"

요괴가 웃으며 대꾸했다. "이정 천왕님 아니십니까? 혹시 당신 아드님을 대신해 복수라도 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기라도 뺏으러 오신 건가요?"

이정이 말했다. "복수를 하려는 것도 맞고, 너를 잡아 당승을 구하려는 것도 맞다. 도망갈 생각 마라, 내 칼 맛을 봐라!"

요괴는 몸을 옆으로 비켜 피하며 긴 창을 휘둘러 맞섰다. 두 사람은 동굴 앞에서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시로 이르되,

천왕은 칼을 휘두르고 요괴는 창으로 맞서니, 칼날이 번뜩일 때마다 불꽃이 튀고, 창끝이 매서울 때마다 먹구름이 이는구나. 한쪽은 금산에서 태어난 악한 요괴요, 한쪽은 영소전에서 파견된 하늘의 신이라. 한쪽은 승려를 괴롭히며 위세를 떨치고, 한쪽은 스승을 구하러 대의를 펼치는구나. 천왕은 법술로 모래와 돌을 날리고, 요괴는 기세로 흙먼지를 일으키니, 흩날리는 흙먼지는 천지를 어둡게 하고, 날아가는 모래는 강과 바다를 흐리게 하네. 두 싸움꾼이 공을 세우려 애쓰는 까닭은, 모두 당승을 위해 부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손오공은 두 신선이 싸우는 것을 보고는 즉시 몸을 돌려 높은 봉우리 위로 뛰어올라 화덕성군에게 외쳤다. "세 가지 기운을 모아 마음을 다해 공격하십시오!"

그때 요괴가 천왕과 한창 격렬하게 싸우던 중, 갑자기 고리를 꺼내 들었다. 천왕은 그 고리를 보고는 서둘러 상서로운 빛을 내뿜으며 전투에서 물러났다. 봉우리 위에 있던 화덕성군은 급히 명령을 내려, 부하인 화신(火神)들이 일제히 불을 내뿜게 했다. 이번 싸움은 그야말로 대단한 위력을 보여주었는데, 불길이 참으로 대단했다.

경전에 이르기를, "남쪽은 불의 정기가 모이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비록 작은 불씨라 할지라도 만 경리의 들판을 태울 수 있듯이, 세 가지 기운의 위력은 온갖 형태의 불로 변할 수 있었다. 지금 화창, 화도, 화궁, 화전 등 각 부서의 신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제각각이었으나, 공중에는 불타는 까마귀들이 시끄럽게 날아다니고 산등성이에는 불타는 말들이 날뛰었다. 붉은 쥐들이 쌍을 지어 뜨거운 불꽃을 뿜어내니 만리 땅이 붉게 물들었고, 불룡들이 짝을 지어 짙은 연기를 내뿜으니 온 세상이 검게 변했다. 불수레가 밀려 나오고 불호로가 열리니, 불깃발이 하늘을 붉은 노을로 뒤덮고 불몽둥이가 땅을 휩쓸며 불태웠다. 마치 옛 선비 냉척이 채찍으로 소를 몰 듯 기세가 대단하여, 주랑의 적벽대전보다도 더 강렬했다. 이 천계의 불길은 참으로 비범하고 무시무시하여, 뜨거운 불바람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며 몰아쳤다.

그 요괴는 불길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허공을 향해 고리를 휘 던지더니,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불룡, 불말, 불까마귀, 불쥐, 불창, 불도, 불활, 화살까지 모조리 한데

뭉어버렸다. 그리고는 고리를 다시 거두어 동굴 안으로 쏙 가져가더니, 승전보를 울리며 퇴각했다.

화덕성군은 빈 깃발 하나를 손에 든 채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이정과 합류하여 산 남쪽 언덕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손오공에게 말했다.

"대성, 이 요괴는 정말 보기 드문 놈이군요. 제가 불을 다루는 도구들을 다 잃어버렸으니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기 편히 앉아 계세요. 이 몸이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이정이 물었다.

"자네, 또 어디로 가려는 건가?"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 괴물이 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분명 물은 무서워할 겁니다. 흔히 '물은 불을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북천문에 가서 수덕성군을 모셔 오겠습니다. 그분께 물줄기를 일으켜 달라고 청해 저놈의 동굴에 들어부으면, 요괴가 물에 빠져 죽고 보물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정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그 계책이 비록 기발하긴 하나, 자칫 스승님까지 물에 빠져 죽게 할까 두렵네."

손오공이 호기롭게 외쳤다.

"걱정 마십시오. 만약 스승님이 물에 빠지신다 해도, 제가 반드시 살려낼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들 앉아만 계시는 건 예의가 아니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자 화덕성군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가보게, 어서 가!"

"좋다, 대성!" 손오공은 다시 근두운을 타고 북천문 밖으로 곧장 날아갔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다문천왕이 다가오며 예를 갖추고 물었다.

"손 대성,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오호궁에 가서 수덕성군을 좀 만나야겠소.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오늘은 제가 순찰할 차례입니다."

다문천왕이 대답하는 사이, 방, 유, 구, 필 네 명의 천장군이 다가와 예를 표하며 차를 대접하려 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됐소, 됐어. 내가 지금 일이 아주 급하거든."

손오공은 문지기 신들을 뒤로하고 오호궁에 이르러, 수부의 신들에게 즉시 보고하라고 일렀다. 신들이 보고했다.

"제천대성 손오공께서 오셨습니다!"

수덕성군이 이 말을 듣자마자, 사해와 오호, 팔하, 사독, 삼강, 구파를 비롯해 각처의 용왕들에게 내렸던 조사 명령을 모두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의관을 정제하고 띠를 묶은 뒤 궁문 밖으로 나가 손오공을 맞이하며 궁 안으로 안내했다.

"어제 가한사(可韓司)가 우리 궁을 조사했는데, 우리 부서의 신선 중 누군가가 속세를 그리워하여 요괴 짓을 할까 염려되어 강과 바다, 하천의 신들을 조사하던 중이라 아직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 요괴는 강이나 하천의 신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정령입니다. 앞서 옥황상제께서 이천왕 부자와 두 명의 뇌공을 내려보내 붙잡게 했으나, 요괴가 던진 고리에 신령한 병기 여섯 가지를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도 어쩔 도리가 없어 동화궁으로 올라가 화덕성군께 청하여 화부의 신들을 거느리고 불을 내리게 했더니, 이번에는 화룡과 화마 같은 것들까지 고리에 몽땅 잡혀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놈이 불을 무서워하지 않으니 반드시 물은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군께 물의 기세를 빌려 저 요괴를 잡고, 빼앗긴 병기들을 되찾아 천계의 장수들에게 돌려주며 스승님의 난처한 상황도 해결하고자 왔습니다."

수덕성군이 그 말을 듣고 즉시 황하수백 신왕에게 명했다.

"대성을 따라가서 힘을 보태라!"

수백이 소매 안에서 백옥 대접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제게 물을 담을 이 물건이 있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그 대접에 물이 얼마나 담깁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요괴를 물에 빠뜨려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수백이 대답했다.

"대성께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접에 담긴 것은 바로 황하의 물입니다. 대접의 절반은 강의 절반이고, 대접 하나를 다 채우면 강 하나와 같습니다."

손오공이 기뻐하며 말했다.

"대접 반 개 정도면 충분하겠구려!"

손오공은 수덕성군과 작별을 고하고 황하의 신과 함께 천계를 떠났다.

황하수백은 바가지로 물을 반쯤 떠서 손오공과 함께 금산으로 갔다. 남쪽 언덕 아래에서 이정, 나타, 뇌공, 화덕성군을 만난 황하수백은 그 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말하였다.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자세히 설명할 것 없습니다. 우선 수백은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저놈의 동굴 문을 열게 한 다음, 놈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물을 안으로 들이부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괴물 놈들 무리가 통째로 물에 잠겨 죽겠지요. 그사이에 나는 스승님의 시신을 건져 올린 뒤, 나중에 스승님을 다시 살려내면 그만입니다."

황하수백은 명을 받들어 손오공의 뒤를 바짝 따랐다. 산비탈을 돌아 금동 입구에 다다르자, 수백이 크게 외쳤다.

“요괴야, 문을 열어라!”

문을 지키던 작은 요괴가 손오공의 목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급히 달려가 보고했다.

“손오공이 또 왔어요!”

그 말을 들은 요괴는 보물을 챙겨 창을 휘두르며 달려 나와 돌문을 활짝 열었다. 그 틈을 타 수백이 백옥 대접을 기울여 물을 안으로 쏟아 부었다. 물이 밀려드는 것을 본 요괴는 들고 있던 창을 내팽개치고, 급히 고리를 꺼내 동굴 입구를 막아섰다. 하지만 엄청난 물줄기는 막아낼 길 없이 겹으로 계속해서 넘쳐흘렀다.

손오공은 다급히 근두운을 타고 뛰어올라 수백과 함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섰다. 이천왕과 신선들도 모두 구름을 타고 봉우리 앞에 멈춰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몰아치는 물결은 파도가 되어 거세게 일렁였으니, 참으로 장관이었다.

시로 이르되,

한 국자 쏟은 물이 이토록 엄청날 줄이야, 참으로 예측할 수 없구나.
오직 신령한 공덕이 만물을 이롭게 하여, 백 개의 강물을 불어나게 하
도다. 졸졸 흐르는 소리는 골짜기를 뒤흔들고, 넘실대는 기세는 하늘
을 뒤흔네. 웅장한 위세는 천둥처럼 달려가고, 거센 물결은 눈보라처
럼 휘몰아치네. 천 길 높이의 파도는 길을 삼키고, 만 겹의 물결은 바위
벽을 때리네. 차갑게 부서지는 소리는 옥을 씻는 듯하고, 소용돌이치
는 소리는 악기 소리 같구나. 바위에 부딪히니 푸른 옥 가루가 흩날리
고, 소용돌이치니 아득한 구멍이 생기네. 낮은 곳과 움푹한 곳을 따라
흘러가며, 골짜기와 평지 사이를 쉽 없이 이어가네.

그 광경을 본 손오공은 마음이 급해져 외쳤다.

“이런, 큰일 났구나! 물이 사방으로 퍼져 민가의 논밭을 다 잠가버리
겠어. 요괴의 동굴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으로만 넘쳐나니 이
를 어찌면 종단 말이냐!”

손오공이 수백에게 어서 물을 거두라고 재촉했다. 그러자 수백이 대
답했다.

“소신은 물을 내보낼 줄만 알지, 거두는 법은 모릅니다. 옛말에 ‘뿌
린 물은 다시 거두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라, 그런데 산이 워낙 높고 가파른 탓인지, 쏟아진 물은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갔다. 순식간에 물줄기는 사방으로 흩어지며 골짜기와 구렁
사이로 다시 흘러 들어갔다.

한편, 동굴 밖으로 작은 요괴 몇 마리가 뛰쳐나오더니, 밖에서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며 여전히 신이 나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이정 천왕이 보고 말했다. "물이 도무지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구나. 애써 수고한 보람도 없이 헛수고만 했어."

손오공은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양손으로 주먹을 휘두르며 요괴들의 우두머리 앞으로 들이닥쳐 호통을 쳤다. "어딜 도망가느냐! 이놈, 받아라!"

그 기세에 눌린 작은 요괴들은 창과 몽둥이를 내팽개치고 동굴 안으로 도망치더니, 벌벌 떨며 보고했다. "대왕님, 큰일 났습니다!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요괴 왕이 장창을 치켜들고 문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 망할 원숭이 놈이 아주 지긋지긋하구나! 네놈은 몇 번이나 나를 이기지 못했고, 물과 불을 써봐도 내 근처에도 오지 못했는데, 어찌 또 목숨을 버리러 찾아왔느냐?"

손오공이 맞받아쳤다. "이놈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누가 죽을지 누가 살지는 두고 봐야 알 것이니, 이리 와서 이 할아버지가 날리는 주먹 맛이나 봐라!"

요괴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 원숭이 놈이 억지로 버티려 드는구나! 나는 창을 쓰는데 저놈은 주먹을 쓰다니. 저렇게 근육만 잡힌 주먹이 고작 호두알만 한데, 어찌 망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됐다, 됐다. 내 창은 잠시 내려놓고, 네놈의 주먹질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상대해 주마."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말 잘했다, 어서 올라오너라!"

요괴가 옷자락을 휘날리며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무기를 내려놓고 두 주먹을 치켜들었다. 그 모습이 마치 기름칠을 한 철퇴처럼 묵직해 보였다. 손오공은 발을 넓게 벌려 자세를 잡고 공격을 준비하며, 동굴 입구에서 요괴와 주먹을 주고받으며 격렬하게 맞붙었다. 정말 대단한 싸움이었다.

요괴가 넓게 팔을 벌려 휘두르고 날카로운 발차기를 날리면, 손오공은 가슴을 들이받고 심장과 간을 낚아챌 듯이 몰아쳤다. 신선이 길을 가리키듯 유연하게 움직이고, 노인이 학을 타고 노닐듯 변화무쌍했다. 굶주린 호랑이가 먹이를 덮치듯 매섭고, 교룡이 물속에서 노닐듯 흥포했다. 요괴가 몸을 뒤집으며 뱀처럼 파고들면, 손오공은 사슴이 뿔을 흔들듯 기묘하게 피했다. 요괴가 땅을 휩쓸며 돌진하면, 손오공은 손목을 비틀어 하늘의 기운을 가두듯 맞섰다. 청사자가 입을 벌리듯 달려들면, 잉어가 등뼈를 튀기듯 몸을 날렸다. 머리 위로 꽃을 뿌리듯 공격하고 허리를 휘감아 줄을 엮듯 몰아치며, 바람을 타고 부채질하듯, 급히 내리는 비에 꽃잎이 떨어지듯 몰아붙였다. 요괴가 관음보살의 손바닥 같은 넓은 장법을 쓰면, 손오공은 나한의 발차기처럼 날카롭게 대응했다. 길게 뻗는 손바닥은 시원스럽고 여유가 있었으나, 짧고 빠른 주먹의 매섭고 날카로움을 당해내기는 어려웠다. 두 사람이 수십 합을 겨루었으나,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 할 것 없이 막상막하였다.

두 사람이 동굴 입구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정은 크게 소리치며 환호했고 화덕성군은 손뼉을 치며 칭찬했다. 두 명의 뇌공과 나타도 신선들을 거느리고 달려와 돕고자 했으며, 주변의 요괴들도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며 칼과 도를 휘두르며 한꺼번에 요괴를 호위했다. 손오공은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깨닫고, 자신의 털을 한 움큼 뽑아 공중에 뿌리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털들이 서른에서 쉰 마리의 작은 원숭이로 변해 일제히 달려들었다. 원숭이들은 요괴를 에워싸고 다리를 붙잡고 허리를 잡아당기며, 눈을 활쫓고 털을 뽑아대며 정신없이 괴롭혔다. 당황한 요괴가 급히 보물인 고리를 꺼내 들자, 손오공과 이정 일행은 요괴가 함정을 쓰러는 것을 보고 구름을 타고 높은 봉우리로 피신했다. 요괴가 고리를 하늘 높이 던지자,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서른에서 쉰 마리의 원숭이들이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동굴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결국 요괴가 승리하자, 요괴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문을 닫으며 승전보를 울리러 떠났다.

나타가 말했다. "손오공은 역시 대단한 장사입니다. 방금 보여준 권법은 금상첨화였고, 분신술을 부리는 솜씨는 남들 앞에 위엄을 떨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멀리서 지켜보셨으니 말씀해 보십시오. 저 요괴의 재주가 이 손오공과 비교하면 어떠합니까?"

이정이 대답했다. "그놈은 동작이 느릿느릿해서 대성처럼 빠르고 민첩하지 못하네. 우리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당황하더니, 자네가 분신술을 펼치는 것을 보고는 겁을 먹었어. 그래서 저렇게 커다란 고리를 던져 함정을 판 것이라네."

손오공이 말했다. "요괴를 잡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저 고리를 다루는 솜씨가 만만치 않군요."

화덕성군과 황하수백이 거들었다. "승리하고 싶다면 저놈의 보물을 빼앗는 수밖에 없네. 그래야만 저놈을 잡을 수 있어."

손오공이 물었다. "그 보물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훔쳐 오는 방법뿐 이겠군요."

등공과 장공이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이라면 대성보다 잘하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천계에서 난동을 부리실 때를 생각해보십시오. 천계의 술을 훔치고, 복숭아를 훔치고, 용의 간과 봉황의 골수, 심지어 태상노군의 금단까지 훔치셨으니 그 수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오늘이야말로 그 솜씨를 발휘할 때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십시오. 제가 가서 상황을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손오공은 봉우리 위에서 뛰어내려 동굴 입구까지 몰래 다가갔다. 그리고는 몸을 획 흔들며 아주 작은 파리로 변신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이지 기가 막히게 정교했다.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하다.

날개는 대나무 막처럼 얇고, 몸집은 꽃술처럼 작다. 손발은 털보다 더 굵고, 눈은 별처럼 반짝이며 또렷하다. 향기를 맡고 냄새를 좇는 데 능하며, 날아갈 때는 바람을 타고 무척이나 빠르다. 저울에 달아보아야 겨우 영점 눈금을 누를 만큼 가벼우나, 그래도 제법 쓸모가 있어 사랑스럽구나.

파리가 된 손오공은 문 위를 살금살금 날아다니다가 문틈 사이로 쏙 파고들어 갔다. 안을 들여다보니 요괴들이 무리 지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다. 요괴의 왕은 높은 무대 위에 높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뱀 고기, 말린 사슴 고기, 곰 발바닥, 낙타 혹, 그리고 각종 산채와 과일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청자 술병에는 향긋한 양젖 술이 담겨 있었고, 커다란 사발에 술을 가득 채워 마음껏 마시고 있었다.

손오공은 요괴 무리 사이로 내려앉은 뒤, 이번에는 오소리 요괴로 변신하여 무대 근처로 천천히 다가갔다. 한참을 지켜보았지만,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급히 몸을 돌려 무대 뒤로 가보니, 뒷마당에는 불룡이 울부짖고 불말이 히힃거리는 듯한 신비로운 형상들이 높이 걸려 있었다. 그때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자신의 금고봉이 동쪽 벽에 기대어 있는 게 아닌가!

손오공은 너무 기뻐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바람에 변신을 푸는 것도 잊은 채, 성큼성큼 다가가 철봉을 덥석 쥐었다. 그러고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요괴들의 기세를 단번에 꺾어버리며 몽둥이를 휘둘러 길을 뚫기 시작했다. 요괴들은 혼비백산하여 간이 콩알만 해졌고, 요괴의 왕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손오공에게 세 명은 밀쳐지고 두 명은 쓰러졌다. 손오공은 피로 물든 길을 열며 단숨에 동굴 문을 향해 달려 나갔다.

이 상황을 시로 읊자면 이러하다.

요괴 놈이 교만하여 경계심이 없으니, 주인의 무기가 다시 본인에게 돌아왔구나.

결국 길흉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2회 — 손오공이 금각대왕을 크게 소 란스럽게 하다

悟空大鬧金{{參

여래가 암시를 주어 주인공을 돕다

시로 이르되 마음속 원숭이는 온갖 계책을 부려보지만 물과 불을 써
도 요괴를 제압하기는 어렵구나

다음 회에 이어진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손오공이 금고아봉을 되찾아 문밖으로 뛰어나
와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니,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다. 이천왕이 물
었다. "이번 일은 어찌 되었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제가 변신해서
그놈의 동굴로 몰래 들어갔더니, 요괴 놈은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게다가 놈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놈의 뒤쪽을 살피다 보니, 갑자기
말 울음소리와 용의 울음소리가 들려 그것이 화부의 물건임을 알게 되
었습니다. 동쪽 벽에는 제 금고아봉이 놓여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손

에 쥐고 길을 따라 싸우며 나왔습니다." 신들이 물었다. "네 보물은 찾았다니 다행이지만, 우리 보물은 언제쯤 되찾을 수 있겠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철봉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놈을 때려눕히고 보물을 되찾아 가져다드리겠습니다."

한창 싸우던 중, 산비탈 아래에서 징과 북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함성이 땅을 흔들 정도로 크게 들려왔다. 알고 보니 뿔대왕이 수많은 요괴를 거느리고 손오공을 잡으러 온 것이었다. 이를 본 손오공이 외쳤다. "좋다, 좋아! 아주 잘 됐구나. 여러분은 잠시 앉아 계시오. 내가 가서 저놈을 잡아 오리다!" 손오공은 철봉을 높이 치켜들고 정면으로 맞서며 호통을 쳤다. "이 요괴 놈아, 어디를 가느냐! 내 몽둥이를 받아라!" 요괴는 창을 들어 막아내며 욕설을 내뿜었다. "이 도둑 원숭이 놈! 정말 무례하구나. 네가 감히 대낮에 내 물건을 훔쳐 가다니!" 손오공이 맞받아쳤다. "죽고 싶어 환장한 놈이로구나! 네놈이 함정을 파놓고 대낮에 내 물건을 가로채 가는데, 그게 어찌 네 것이란 말이나? 도망갈 생각 마라, 내 매를 좀 맞아야겠다!" 요괴는 창을 휘둘러 손오공의 공격을 막아냈다. 두 존재의 싸움이 한창 격렬해졌다.

시로 이르되, 대성은 위엄을 떨치며 맹렬히 몰아치고 요괴는 굽히지 않고 맞서 싸우네. 양쪽이 용맹을 겨루니 어느 누구 하나 물러설 줄 모르네. 한쪽의 철봉은 용의 꼬리처럼 휘감기고 다른 쪽의 장창은 구렁이 머리처럼 요동치네. 철봉이 바람 소리를 내며 몰아치면 장창은 물결처럼 웅장하게 막아내네. 채색 안개 자욱해 산등성이 어둑하고 상서로운 구름 뭉게뭉게 피어나니 숲마저 슬퍼하네. 하늘을 날던 새들도 날개를

접고 멈추고 들판의 짐승들도 머리를 움츠려 숨었네. 요괴 무리는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고 손오공은 기세등등하게 맞서 싸우네. 철봉 하나로 적수가 없으니 서천 만 리를 누비며 천하를 호령하네. 장창 또한 만만치 않은 상대라 금산의 주인으로 오래도록 자리를 지켰네. 두 싸움이 마주쳤으니 좋게 끝날 리 없고 승부를 가리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으리.

요괴와 손오공은 세 시진 동안이나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어느덧 하늘은 어둑어둑해졌다. 요괴가 장창을 받쳐 들고 말했다. "손오공, 그만해라! 날이 저물어 어두우니 싸울 때가 아니다. 일단 각자 쉬었다가 내일 다시 겨루자꾸나." 손오공이 욕을 하며 대꾸했다. "이놈, 입 닥쳐라! 이제 막 흥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날이 저무는 게 무슨 상관이나? 반드시 네놈과 승부를 내고야 말겠다!" 요괴는 크게 호통을 치며 창을 휘둘러 위협하는 척하더니, 얼른 몸을 피해 달아났다. 그리고는 요괴 무리에게 무기를 거두라고 명령한 뒤, 동굴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아걸었다.

손오공이 금고아봉을 움켜쥐고 돌아오자, 강가에 있던 천계의 신들이 모두 모여 축하를 건넸다. 신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과연 대단한 제천대성이십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엄청난 재주를 가지셨군요!"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에요."

이때 이천왕이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이건 그냥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장수라는 뜻입니다. 이번 싸움은 예전에 하늘을 뒤흔들 듯 한 그물을 쳤던 그때 못지않게 대단했습니다."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지난 일은 그만두고 앞을 봅시다. 저 요괴도 나와 한바탕

싸웠으니 분명 지쳐 있을 겁니다. 나도 꽤나 고생했으니 다들 편히 앉아 좀 쉽시다. 나는 다시 동굴로 들어가 놈의 형편이 어떤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반드시 몰래 잠입해서 저 괴물을 잡아내고, 놈의 무기도 되찾아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태자(나타)가 말했다. "벌써 날이 저물었으니, 오늘은 그만 쉬고 내일 아침에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대꾸했다. "이 젊은이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군. 도둑질을 하는데 어떻게 대낮에 손을 단 말인가? 이런 일은 밤을 틈타 몰래몰래 움직여야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성공하는 법이라네."

화덕성군과 뇌공도 거들었다. "삼태자, 그런 소리 말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대성께서는 이런 일에 아주 능숙하신 분이라네. 지금이야말로 적당한 때지. 첫째로 요괴가 지쳐 있을 것이고, 둘째로 밤이라 어두워서 방비도 허술할 테니, 어서 다녀오십시오. 어서요!"

손오공은 싱글벙글 웃으며 금고아봉을 숨겼다. 그리고는 높은 봉우리에서 뛰어내려 동굴 입구에 이르더니, 몸을 획 움직여 작은 귀뚜라미 한 마리로 변신했다. 참으로 그 모습이 이러했다.

시로 이르되, 입은 딱딱하고 수염은 길며 피부는 검고, 눈은 밝으며 발톱과 다리는 갈라져 있구나.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아래 담벼락 끝에서 울어대니, 밤이 고요하여 사람의 말소리처럼 들리네. 이슬 맺힌 쓸쓸한 풍경 속에, 끊어질 듯 이어지는 울음소리 가련하구나. 나그네의 창가에서 들으면 타향살이 시름 깊어지리니, 빈 계단 아래 침상 밑에 숨어 있네.

귀뚜라미가 된 손오공은 다리를 힘차게 구르며 몇 번을 폴짝폴짝 뛰어 문가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문틈 사이로 몸을 쏙 밀어 넣고는, 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안쪽에서 새어 나오는 등불 빛을 향해 자세히 살펴 보았다. 그러자 크고 작은 요괴 무리가 너나 할 것 없이 허겁지겁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손오공이 귀뚜라미의 몸으로 찌르륵찌르륵 한바탕 울어대자, 얼마 지나지 않아 요괴들은 먹던 것을 치우고 잠자리를 정리하며 각자 쉴 채비를 하러 흩어졌다.

대략 초경(初更) 무렵, 손오공이 요괴의 뒷방에 몰래 들어갔다. 마침 요괴가 명령을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각 문을 지키는 놈들은 잠을 깨고 정신 차려라! 손오공이 또 무슨 변신술을 써서 몰래 들어와 물건을 훔칠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 그 명령에 밤샘 근무를 서던 놈들이 서둘러 움직이며 딱딱이와 방울을 울려댔다.

손오공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즐기며 방 안으로 쏙 들어갔다. 방 안에는 돌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좌우로는 화장을 한 산의 정령들과 나무 요괴들이 요괴를 모시기 위해 침구류를 펼치며 대기하고 있었다. 어떤 놈은 신발을 벗기고, 어떤 놈은 옷을 벗기며 요괴를 수발하고 있었다.

요괴는 옷을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 왼쪽 팔에 하얗게 빛나는 고리 하나를 끼고 있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진주를 꿰어 만든 팔찌 같았다. 요괴는 그 고리를 벗지 않고 오히려 위쪽으로 두어 번 더 밀어 올려 팔에 단단히 고정하더니 그제야 잠자리에 들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손오공은 다시 몸을 바꾸어 노란색 벼룩으로 변신했다. 그리고는 돌침대 위로 뛰어올라 이불 속으로 파고들더니, 요괴의 팔 위로 기어 올라가 아주 세게 한 입을 짹 깨물었다.

요괴가 깜짝 놀라 몸을 뒤척이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 쓸모없는 놈들아! 이불도 제대로 안 털고 침대도 안 닦았느냐? 대체 어떤 놈이길래 나를 이렇게 깨무는 게냐!" 요괴는 팔에 찬 고리를 다시 두어 번 위로 끌어올리고는 다시 잠을 청했다.

손오공은 그 고리 위로 다시 기어 올라가 또 한 번 짹 깨물었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게 된 요괴가 다시 몸을 뒤척이며 소리쳤다. "아이고,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손오공이 살펴보니 요괴가 무장을 튼튼히 하고 보물까지 몸에 지니고 있어, 도저히 빼앗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도둑질을 하려 해도 소용 없을 것 같았다. 손오공은 침대 아래로 뛰어내린 뒤 귀뚜라미로 변신하여 방을 나갔다. 뒤쪽으로 가니 용이 울고 말이 히힃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그곳은 문이 굳게 잠겨 있었는데, 화룡과 화마가 그 안에 매달려 있었다.

손오공은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문 앞으로 다가가 자물쇠를 푸는 법을 펼쳤다. 주문을 외우며 손으로 숙 문지르자, 철컹 소리와 함께 자물쇠 양쪽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갔다. 문을 밀고 안으로 뛰어 들어가 살펴보니, 안은 화기(火器)들이 내뿜는 빛 덕분에 대낮처럼 환했다. 문 양 옆에는 태자의 요괴를 베는 칼 같은 병기들이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고, 화덕성군의 화궁(火弓)과 화전(火箭) 등도 놓여 있었다.

손오공이 불빛에 의지해 주위를 한 번 둘러보는데, 문 뒤쪽 석탁 위에 대나무로 짠 쟁반 하나가 보였다. 그 위에는 털 한 줌이 놓여 있었다. 손오공은 몹시 기뻐하며 그 털을 집어 들고는 더운 입김을 두어 번 불며 외쳤다.

"변하라!"

그러자 털은 순식간에 삼사십에서 쉰 마리쯤 되는 작은 원숭이들로 변했다. 손오공은 원숭이들에게 칼, 검, 몽둥이, 밧줄, 바퀴 모양의 무기뿐만 아니라 활, 화살, 창, 수레, 호로병, 그리고 화아(불까마귀), 화서(불쥐), 화마(불말) 등 거두어 갈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챙기게 했다. 또한 화룡을 몰아 불길을 일으켜 안에서 밖으로 치솟게 했다.

순식간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무기들이 부딪히고 터지는 소리가 천둥과 대포가 연달아 터지는 것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요괴들은 혼비백산하여 잠결에 이불을 뒤집어쓴 채 머리까지 감싸고 비명을 지르거나 울부짖었으나, 도망칠 길을 찾지 못해 태반이 불에 타 죽고 말았다. 미후왕 손오공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니, 때는 이미 삼경(밤 11시~새벽 1시 사이)이었다.

한편, 저 높은 봉우리 위에서 이천왕과 신선들이 갑자기 번쩍이는 불빛을 보고는 앞다투어 몰려나왔다. 그들은 손오공이 용을 타고 나타나, 작은 원숭이들을 부리며 씩씩하게 봉우리 위로 올라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았다.

"무기를 내놓아라! 무기를 내놓아라!"

그 외침에 화덕성군과 나타가 응답했다. 손오공이 몸을 한 번 크게 떨자, 흩어졌던 털들이 다시 그의 몸으로 돌아와 붙었다. 나타는 손오공이 되찾아준 여섯 가지 무기를 챙겼고, 화덕성군은 불의 신들을 시켜 화룡을 비롯한 물건들을 거두어들였다. 신선들은 모두 싱글벙글 웃으며 손오공을 축하해 주었다.

한편, 금동 안은 불길의 사방에서 치솟아 오르는 바람에 뿔대왕은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는 급히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고는, 양손에 금강탁을 든 채 동쪽의 불을 밀어 꺼뜨리고 서쪽의 불을 밀어 꺼뜨리기를 반복했다. 허공에는 연기와 불꽃이 자욱하게 피어 올랐고, 그는 보물을 쥔 채 동굴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닌 뒤에야 겨우 사방의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급히 요괴들을 모아 수습하려 했으나, 이미 요괴들 태반이 불에 타거나 다쳐 죽고 말았다. 남녀 요괴를 통틀어 백 명 남짓한 수만 겨우 건졌을 뿐이었다. 게다가 무기를 보관해 둔 곳을 살펴보니, 병기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뒤쪽을 살펴보니 팔계와 사오정, 그리고 장로가 여전히 밧줄에 묶인 채 풀리지 않았고, 백룡마는 여전히 구유에 묶여 있었으며, 짐 보따리들도 방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요괴가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다. "어떤 놈이 조심성 없이 불을 질러 이 지경을 만들었던 말이나!"

결에서 모시던 부하가 아뢰었다. "대왕님, 이 불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분명 진영을 습격해 약탈하는 도둑놈이 화덕성군의 물건을 가져다가 불을 지르고, 신령한 병기들까지 훔쳐 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제야 요괴는 모든 상황을 깨닫고 외쳤다. "다른 누구겠느냐, 필시 그 손오공 놈이 분명하다! 어쩐지 잠자리에 들 때부터 마음이 뒤숭숭하더라니. 그 원숭이 놈이 변신해서 몰래 들어와 내 팔을 두어 번 깨문 것이로구나. 분명 내 보물을 훔치려 했을 텐데, 내가 단단히 채워놓은 것을 보고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자, 아예 병기들을 훔치고 불을 질러 나를 태워 죽이려 작정한 것이로다! 이놈의 원숭이, 얇은피를 써 보았자 내 능력을 알 리가 있겠느냐! 나는 이 보물만 있으면 바다에 빠져도 가라앉지 않고, 불덩이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 이번에 그놈을 붙잡기만 한다면, 아주 호되게 혼을 내주어 내 분풀이를 하고야 말리라!"

이야기를 나누며 속을 태우던 사이, 어느덧 닭 울음소리가 들리며 날이 밝아왔다. 높은 봉우리 위에 있던 태자(나타)가 여섯 자루의 병기를 되찾은 뒤, 손오공에게 말했다.

"제천대성, 날이 밝았으니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저 요괴의 기세가 꺾였을 때 화덕성군 일행과 힘을 합쳐 다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에는 반드시 저놈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웁은 말씀이요!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한판 제대로 놀아보자꾸나!"

신선들은 저마다 위풍당당하게 기세를 떨치며 무예를 뽐내고는 곧 장 동굴 입구로 향했다. 손오공이 크게 외쳤다.

"이 고약한 요괴 놈아, 당장 나와서 이 몸과 한판 붙어보자!"

한편, 불길에 휩싸인 두 석문은 재가 되어 사라졌고, 문 안쪽에서는 요괴 몇 마리가 바닥을 쓸며 재를 치우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신선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빗자루를 내던지고 갈퀴를 버려둔 채 안으로 도망치며 외쳤다. "손오공이 수많은 천신을 거느리고 문밖에서 다시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뿔대왕은 소스라치게 놀라 이를 갈며 눈을 부릅떴다. 그는 긴 창을 치켜들고 보물들을 챙겨 문밖으로 뛰쳐나오며 악을 썼다. "이 도둑놈 같은 원숭이 녀석! 네놈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재주가 있길래 감히 나를 능멸하느냐!"

손오공은 웃는 얼굴로 맞받아쳤다. "이 고약한 괴물 녀석! 내 재주가 어떤지 알고 싶으냐? 그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 직접 들려주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재주가 뛰어나, 온 천하에 이름을 떨쳤지. 영특한 머리로 선도를 닦으며, 불로장생의 방도를 전수받았노라. 뜻을 세워 신선의 땅에 귀의하고, 정성을 다해 성인을 뵈러 갔지. 무수한 변화의 술법을 익히니, 온 우주와 허공이 내 놀이터로다. 한가할 때는 산에서 호랑이를 굴복시키고, 심심할 때는 바다에서 용을 잡았노라. 화과산에 뿌리를 두고 왕의 자리에 올랐으며, 수렴동(水簾洞)에서 기세를 떨쳤지. 몇 번이고 천계에 도전하여, 수차례 하늘의 권위를 빼앗으려 했노라. 옥황제께서 제천대성이라는 명예를 내리시고, 미후왕이라는 칭호까지 하사하셨지. 하지만 반도회 잔치에 나를 초대하지 않기에, 분한 마음에 몰래 침입했노라. 요지 연못에 몰래 들어가 옥액을 훔쳐 마시고, 보물 창고에 들어가 신비로운 술을 마셨지. 용의 간과 봉황의 골수까지 맛보았고, 온갖 산해진미를 훔쳐 먹었노라. 천 년 묵은 반도

를 즐겼고, 만 년 묵은 단약을 실컷 먹었지. 천계의 기이한 보물들을 닥치는 대로 가져가고, 성스러운 곳의 진귀한 물건들을 챙겼노라. 옥황제께서 내 재주를 시험하고자 천병을 보내 전쟁을 벌였으나, 아홉 별의 악한 기운을 내쫓고, 다섯 방향의 흉한 기운을 상하게 했지. 천계의 모든 신장과 장수들이 내 상대가 되지 못하고, 십만 대군도 감히 나를 막지 못했노라. 옥황제를 위협하여 명을 내리게 하니, 관강(灌江)의 소성(小聖), 곧 이랑신이 군사를 일으켰지. 일흔두 번이나 변화를 거듭하며, 저마다 정신을 떨치니 하나같이 강했노라. 남해의 관음보살이 싸움을 도우러 와, 정병(淨瓶)과 버들가지로 거들었고, 태상노군이 또 금강탁을 써서, 나를 하늘 위로 잡아갔노라. 옥황제(장대제) 앞에 묶여 죄를 심문받고, 힘센 장수가 칼을 들어 내 머리 가죽을 베려 했으나, 칼날에 불꽃만 번쩍였지. 온갖 수단을 써도 나는 죽지 않았고, 결국 태상노군의 화로에 던져져 불에 달궈졌으나, 내 몸은 강철처럼 단단해져서 다시 튀어나왔노라. 신들이 문을 닫아걸어도 막을 수 없자, 여러 성인이 의논하여 부처님께 빌었지. 과연 아래계서는 그 법력이 크고, 지혜가 끝없이 넓더라. 손바닥 위에서 근두운을 겨루더니, 산으로 나를 눌러 꼼짝 못 하게 했노라. 옥황제가 안천회를 열고 서역을 극락의 땅이라 일컬은 뒤, 나를 오백 년 동안이나 눌러두어 차 한 잔 밥 한 술 맛보지 못하게 했지. 금선장로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니, 동토에서 그를 보내 부처의 나라에 절하게 했지. 진경을 구해 상국(上國)으로 돌아가, 대당 황제께서 먼저 죽은 영혼들을 제도(濟度)하려 함이라. 관음보살이 내게 선한 길을 권하여, 가르침을 받들어 함부로 날뛰지 않았으니, 높은 산 아래 갇힌 고난을 벗어나, 이제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것이라. 이 고약한 요물아, 노루·여우 같은 잔꾀 부리지 말고, 우리 스승님을 돌려보내 법왕께 절하게 하라!"

요괴는 그 말을 듣고 손오공을 가리키며 외쳤다. "네놈이 바로 하늘을 훔친 대도둑이었구나! 거기 서라, 내 창 맛을 봐라!"

손오공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맞섰다. 두 존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 태자가 분노를 터뜨리고 화덕성군이 기세를 올리며, 그들이 가진 여섯 가지 신병과 화부의 무기들을 요괴에게 던졌다. 손오공의 기세도 한층 높아졌다. 이때 뇌공이 번개를 치고 이천왕이 칼을 휘두르며 위아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그러자 요괴는 위엄 있게 냉소를 지으며 소매 속에서 보물을 몰래 꺼내 하늘로 던지며 외쳤다. "받아라!"

순식간에 휘몰아치는 소리와 함께, 여섯 가지 신병과 화부의 무기, 뇌공의 번개, 이천왕의 칼, 그리고 손오공의 몽둥이까지 모두 요괴의 손으로 빨려 들어갔다. 신들은 다시 맨손이 되었고, 손오공 또한 빈손이 되고 말았다.

요괴는 승리를 거두고 몸을 돌리며 명령했다. "애들아! 돌을 나르고 문을 다시 쌓아라! 흙을 파서 동굴을 수리하고 방과 행랑을 새로 정리해두어라. 준비가 다 되면, 당승 일행 세 사람을 죽여 토지신에게 사례(謝土)하고 다 함께 복을 나누어 누리자꾸나!"

작은 요괴들은 명을 받들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편, 이천왕이 무리를 이끌고 높은 봉우리로 돌아가자, 화덕성군은 성격 급한 나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원망스러웠고, 뇌공은 이천왕이 잔

피를 부렸다며 닦았다. 오직 수백(물의 신)만이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침묵할 뿐이었다.

손오공은 그들이 서로 얼굴도 마주 보지 않으며 속으로 꿈한 것을 보고 마음이 쓰였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신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예부터 '승패는 병가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놈과 무예를 겨룬 것은 그저 그 정도였을 뿐입니다. 다만 저놈이 저 신기한 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해를 입은 것이고, 우리 무기까지 몽땅 낚아챈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손오공이 다시 가서 저놈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파헤쳐 오겠습니다."

태자(나타)가 말했다. "옥황제께 아뢰어 온 세상을 살살이 뒤져보아도 흔적조차 찾지 못했는데, 이제 또 어디로 가서 찾겠다는 말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생각해 보니 부처님의 법력은 끝이 없지 않습니다. 우선 서천으로 가서 우리 여래 부처님께 여쭙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헤안으로 세상의 사대주를 굶어살피시어, 저 요괴가 어느 곳에서 태어나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지, 그리고 저 고리가 대체 어떤 보물인지를 알아내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놈을 반드시 잡아 여러분의 화를 풀어드리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천계로 돌아가게 하드리겠습니다."

신들이 말했다. "그럴 생각이 있다면 지체할 것 없이 어서 가시오, 어서!"

손오공은 소리를 내어 외치더니 곧장 근두운을 타고 날아 영산에 일찍 도착했다. 상서로운 빛을 내뿜으며 내려앉으니 사방으로 보이는 경치가 참으로 일품이었다.

시로 이르되, 영험한 봉우리들은 뻗어나고 첩첩이 쌓인 산맥은 맑고 아름다우며, 신선들이 사는 산봉우리는 푸른 하늘에 맞닿아 있구나. 서천의 거대한 진산으로서 중화의 기세를 누르고, 천지의 원기가 멀리까지 흐르고 위엄 있는 풍채는 온 세상에 가득하네. 때때로 울려 퍼지는 종과 경쇠 소리 길게 이어지고, 맑고 명랑한 불경 읽는 소리 귀에 들려오네. 푸른 소나무 아래에는 우바새(優婆塞, 재가 신자)가 설법하고, 초록빛 측백나무 사이로는 나한들이 거니네. 백학은 정답게 취령(鷲嶺, 영취산)에 찾아오고, 푸른 난새는 한가로운 정자에 머무네. 검은 원숭이는 짝을 지어 선과를 받들고, 장수하는 사슴은 쌍을 지어 보랏빛 꽃을 바치네. 그윽한 새들은 마치 속삭이듯 자주 울어대고, 기이한 꽃들은 이름 모를 색채로 화려하게 피었네. 굽이치는 산봉우리들은 겹겹이 둘러싸여 있고, 굽이굽이 이어진 옛길은 곳곳이 평탄하구나. 참으로 맑고 영험하며 뻗어난 땅이라, 장엄하고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풍모로다.

손오공이 산의 경치를 감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손오공, 어디서 왔느냐? 또 어디로 가느냐?" 급히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비구니 존자였다. 손오공이 예를 갖추며 말했다. "여래를 뵈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비구니가 말했다. "이 장난꾸러기 같으니라고! 여래를 뵈고 싶으면 보석 같은 사찰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무엇을 구경하고 있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곳에 처음 온

터라 무례를 범했습니다." 비구니가 말했다. "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손오공은 비구니를 따라 뇌음사 산문 앞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여덟 명의 금강역사가 위엄 있게 서서 길을 막고 있었다. 비구니가 말했다. "오공아,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가서 보고하마." 손오공은 어쩔 수 없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비구니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며 말했다. "손오공이 드릴 말씀이 있다며 여래를 뵙고자 합니다." 여래가 들어오라고 명을 내리자, 그제야 금강역사들이 길을 터주었다.

손오공이 머리를 숙여 절을 올리자, 여래가 물었다. "오공아, 전에 듣기로 관음보살이 너를 해탈시켜 불교에 귀의하게 하고, 당승이 이곳으로 경전을 구하러 오는 길을 보살펴 주었다는데, 너는 어찌하여 혼자 이곳에 왔느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손오공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부처님께 아뢰입니다. 제자는 계율을 지키며 당승 스승님을 모시고 서천으로 향하던 중, 금산 금동에 이르러 시대왕(兪大王)이라는 악마를 만났습니다. 그놈은神通력이 어찌나 넓고 큰지, 스승님과 사제들을 모두 동굴 안으로 잡아넣었습니다. 제자가 그것을 되찾으려 맞서 싸웠으나, 그놈이 하얗고 번쩍이는 고리 하나를 던져 제 여의봉을 빼앗아 갔습니다. 혹시 천계의 장수가 속세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 저지른 일인가 싶어 급히 하늘로 올라가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옥황제께서 이천왕 부자를 보내 도와주게 하였으나, 그놈이 나타나 태자의 여섯 가지 병기까지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화덕성군에게 청해 불을 질러 놈을 태워 보려 했으나, 그놈은 불을 다루는 도구까지 낚아채 갔습니다. 수덕성군

에게 청해 물을 뿌려 놈을 잡기게 하려 했으나, 털끝 하나 적시지 못했습니다. 제자가 온 힘을 다해 여의봉과 물건들을 몰래 빼돌려 다시 싸워보려 했으나, 그놈이 다시금 앞서 뺏었던 것들을 모두 고리 안에 가두어 버리는 바람에 도저히 힘으로는 굴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 특별히 고하오니,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저놈이 대체 어떤 근본을 가진 존재인지 알려주옵소서. 그래야 제가 그놈의 일가친척과 이웃을 찾아내어 이 마물을 붙잡고, 스승님을 구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혜안으로 멀리 살피니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여래가 손오공에게 말했다.

"저 괴물이 누구인지는 나도 알고 있지만, 너에게는 말해줄 수가 없구나. 너는 입이 가벼운 원숭이라, 내가 저놈을 지목했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저놈이 너와 싸우기는커녕 영산까지 떼를 쓰며 몰려올 것이니, 결국 나에게 화가 미칠 게다. 대신 내가 법력을 써서 네가 저놈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마."

손오공이 다시 절을 올리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물었다.

"여래시여, 어떤 법력으로 도와주시렵니까?"

여래는 즉시 열여덟 존의 로한에게 명하여 보물 창고를 열게 한 뒤, 금단사(금빛 단약의 가루) 열여덟 알을 꺼내어 손오공을 돕게 했다. 손오공이 궁금하여 물었다.

"그 금단사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여래가 대답했다.

"네가 동굴 밖으로 나가서 저 요괴에게 승부를 겨루자고 제안하라. 요괴가 밖으로 나오면 로한들이 금단사를 뿌려 저놈을 빠뜨려야 한다. 그러면 저놈은 몸을 움직일 수도, 발을 뺄 수도 없게 될 것이니, 그때 네가 마음껏 두들겨 패면 된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아주 좋습니다, 정말 멋진 계획입니다! 어서 가서 해보겠습니다."

로한들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금단사(금빛 단약 가루)를 챙겨 문밖으로 나섰다. 손오공은 여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길을 따라 살펴보니 로한은 고작 열여섯 분뿐이었다. 손오공이 소리쳤다.

"여기가 대체 어디길래 사람을 이렇게 빼돌리는 거요!"

로한들이 물었다.

"누가 빼돌렸다는 말이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원래 열여덟 분을 보내기로 했다면서, 어찌하여 지금은 열여섯 분뿐이란 말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에서 향룡(降龍)과 복호(伏虎) 두 존자가 걸어 나오며 손오공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공, 어찌 이리도 성미를 부리나? 우리 둘은 뒤에서 여래의 분부를 듣고 있었을 뿐이라네."

손오공이 투덜거렸다.

"너무하시는구려, 너무해! 내가 조금 늦게 소리쳤다면 감히 나오지도 않을 뻔했구려."

로한들은 허허 웃으며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날아올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산 경계에 도착했다. 이천왕은 손오공을 보자 신하들을 거느리고 마중 나와 지난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그러자 로한이 말했다. "구구절절 설명할 것 없다. 어서 저놈을 불러내라."

손오공은 주먹을 불끈 쥐고 동굴 입구로 다가가 꾸짖었다. "이 무엄한 괴물 놈아! 어서 나와서 네놈의 손 외조부와 대면 좀 하자꾸나!"

요괴의 부하가 급히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마왕이 화를 내며 말했다. "이 도둑 원숭이가 대체 누굴 데려와서 이리 날뛰는 것이냐?" 부하가 대답했다. "별다른 장수는 없고, 저놈 혼자뿐입니다." 마왕이 말했다. "그 여의봉도 이미 내가 뺏어버렸거늘, 어찌하여 또 혼자 나타난 것이냐? 설마 또 한판 붙어보겠다는 게냐?"

마왕은 보물을 챙기고 창을 움켜쥔 채, 요괴에게 바위를 치우라고 명령했다. 그리고는 문밖으로 뛰어 나가며 소리쳤다. "이 도둑 원숭이 놈아! 번번이 나한테 당했으면 이제 그만 물러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또 와서 소란을 피우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이 무식한 괴물 놈이 앞뒤를 가릴 줄 모르는구나! 네놈이 행복하고 예의를 갖추서, 내 스승님과 사제들을 돌려보내 주겠다고 약속한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주마.”

그러자 괴물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 스님 세 명은 이미 내 손아귀에 들어왔으니, 머지않아 잡아먹을 것이다. 상황 파악도 못 하고 있느냐? 어서 꺼져라!”

손오공은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턱 근육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도저히 분노를 참지 못한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채, 주먹을 휘두르며 비스듬히 달려 나가 요괴를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요괴 역시 긴 창을 휘두르며 맞서 싸웠다. 손오공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요괴를 몰아붙였고, 요괴는 손오공의 계락을 알아채지 못한 채 동굴 입구에서 남쪽으로 쫓겨났다. 손오공은 즉시 로한에게 신호를 보내 금단사를 요괴를 향해 함께 뿌리라고 일렀다.

그 금단사는 이러하였다.

안개 같고 연기 같아 처음에는 흩날리더니, 어지러운 구름처럼 온 세상 하늘 끝까지 내려앉네. 하얗게 흐릿하여 가는 곳마다 눈을 어지럽히고, 캄캄하고 아득하여 날아다니며 길을 찾기 어렵구나. 나무 하던 나무꾼은 일행을 잃고 헤매며, 약초 캐던 선동은 집을 찾지 못해 방황하네. 잘게 부서지면 밀가루처럼 가볍게 날리고, 굵게 흩어지면 깨알처럼 어지러이 구르네. 세상은 흐릿하고 산꼭대기는 어둑한데, 드넓은 하늘은 태양마저 가려버렸구나. 말을 타고 달리는 먼지보다도 훨씬 심하여, 향기로운 수레를 탄 이조차 견디기 어렵도다. 본래 아무 감정 없

는 무생물일 뿐이나, 하늘을 가리고 땅을 덮어 요괴를 잡으려 하네. 요괴가 바른 도를 어지럽히기에, 로한이 법을 받들어 위엄을 떨치노라. 손안의 보배가 빛을 발할 때, 눈앞이 번쩍이며 눈부시게 펼쳐지리라.

요괴는 날아오는 모래 때문에 눈이 어지러워지자 고개를 꼭 숙였다. 그러자 발밑의 모래가 순식간에 3척(약 1m)이나 깊게 쌓였다. 당황한 요괴는 몸을 휙 날려 모래 위층으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채 중심을 잡기도 전에 순식간에 다시 2척(약 60cm)이나 모래가 차올랐다. 다급해진 요괴는 발을 빼내더니 얼른 그 고리(圈子)를 꺼내 위로 휙 던지며 외쳤다. "잡아라!"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요괴는 열여덟 알의 금단사를 모조리 낚아채 버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자신의 동굴로 도망쳐 들어갔다.

로한들은 하나같이 빈손으로 구름을 멈춰 세웠다. 손오공이 가까이 다가가 물었다. "로한님들, 어찌하여 금단사를 뿌리지 않으시는 겁니까?" 로한이 대답했다. "방금 쟁강하는 소리가 나더니, 금단사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또 그놈이 수작을 부렸군요." 이천왕을 비롯한 신선들이 말했다. "이토록 굴복시키기가 어렵다니, 대체 저놈을 어떻게 잡겠는가? 언제쯤 하늘로 돌아가 황제님을 뵈 수 있단 말인가?" 곁에 있던 향룡(降龍) 로한과 복호(伏虎) 로한이 손오공에게 말했다. "오공, 우리가 왜 이렇게 늦게 도착했는지 아는가?" 손오공이 말했다. "소손은 그저 여러분이 제때 오지 못한 것만 탓할 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로한이 설명했다. "여래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 '저 요괴의神通력이 워낙 광대하니, 만약 금단사를 잃게 된다면 손오공을 이한천 도솔궁(兜率宮)

에 있는 태상노군에게 보내 그 흔적을 찾게 하라. 그러면 단번에 요괴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일세."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다. "가증스럽기도 하지! 여래께서도 나를 살짝 따돌리셨구먼. 진작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야지, 덕분에 여러분이 멀리까지 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천왕이 말했다. "여래께서 이미 그렇게 명확히 알려주셨으니, 대성께서 진작 움직이셨어야 했네."

손오공은 소리를 지르며 곧장 근두운을 타고 남천문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네 명의 대원수가 주먹을 쥐고 공손히 손을 모으며 물었다.

"괴물을 잡는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오공은 걸어가며 대답했다.

"아직 멀었소, 아직 멀었어. 지금은 근원을 찾아가는 중이랍니다."

네 장수는 감히 앞을 가로막지 못하고 그를 천문 안으로 들여보냈다. 손오공은 영소전이나 두우궁에는 들르지도 않고 곧장 삼십삼천 너머 이한천 도솔궁(兜率宮) 앞으로 향했다. 그곳에 두 명의 선동이 시종을 들며 서 있었으나, 손오공은 이름조차 묻지 않고 그대로 밀고 들어갔다. 당황한 두 선동이 그를 붙잡으며 외쳤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어디로 가려는 겁니까?"

그제야 손오공이 말했다.

"나는 제천대성이다. 태상노군을 좀 만나러 왔지."

선동이 말했다.

"어찌 이리 무례하십니까? 잠시 멈추십시오. 저희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손오공은 설명할 마음도 없다는 듯 호통을 한 번 치고는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그러다 안에서 나오던 태상노군과 정면으로 딱 마주쳤다. 손오공은 몸을 굽히며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그동안 뵙지 못했습니다."

태상노군이 웃으며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 불경을 구하러 가지 않고 내게는 무엇 하러 왔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불경이야 밤낮없이 구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방해가 좀 있어서 잠시 들렀습니다."

태상노군이 말했다.

"서천 가는 길이 험난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손오공이 말했다.

"서천이야 서천이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흔적을 찾아내서 어르신께 따져 물을 게 있으니까요."

태상노군이 말했다.

"이곳은 지극히 높고 성스러운 선궁인데, 대체 찾을 흔적이 무엇이 있단 말이냐?"

손오공이 안으로 들어가 눈을 떼지 못한 채 이리저리 살피며 나아갔다. 몇 겹의 복도를 지나가다 문득 외양간 곁에서 한 아이가 졸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정작 청우는 외양간 안에 없었다. 손오공이 "영감님, 소가 도망갔어요, 소가 도망갔다고요!"라고 외쳤다.

태상노군이 깜짝 놀라 "이 짐승 같은 놈이 언제 도망갔단 말이냐?"라고 소리쳤다. 한창 소란을 피우는 사이, 졸고 있던 아이가 막 잠에서 깨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앞에 엎드려 말했다. "주인님, 제자가 잠이 드는 바람에 언제 도망갔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태상노군이 꾸짖었다. "이놈아, 어찌하여 졸고 있었느냐?" 아이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제자가 단방(丹房, 약을 만드는 방)에서 금단 한 알을 주웠는데, 그걸 먹고는 그만 여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태상노군이 말했다. "아마도 그저께 만든 칠반화단(七返火丹) 중 하나가 남은 것을 이놈이 주워 먹은 모양이구나. 그 단약을 한 알 먹으면 꼬박 칠 일을 잠들게 되거늘. 네가 잠든 사이에 돌볼 사람이 없으니, 저 짐승이 그 틈을 타서 하계로 도망친 게로다. 벌써 칠 일이 지났으니 틀림없구나."

태상노군이 혹시 어떤 보물을 훔쳐 갔는지 살펴보았다. 손오공이 말했다.

"특별한 보물은 없고, 그저 아주 무시무시한 고리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상노군이 급히 살펴보니 온갖 물건은 다 있었으나, 금강탁만 보이지 않았다. 태상노군이 외쳤다.

"이 고약한 놈이 내 금강탁을 훔쳐 갔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과연 그 보물이었군요. 아까 저를 때린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저 아래 세상에서 기고만장하게 날뛰며 우리 물건을 얼마나 많이 낚아챘는지 모릅니다."

태상노군이 물었다.

"그놈이 대체 어디에 있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지금 금산 금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놈이 우리 당승을 잡아 가두고 제 금고아봉까지 빼앗았습니다. 천계의 군사를 불러 도움을 청했더니 나찰의 신병을 뺏겼고, 화덕성군을 불렀더니 그가 가진 불 도구까지 뺏겼습니다. 물의 신을 불러 그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 했으나 다행히 물건을 뺏기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래께 청하여 로한들이 금단사를 뿌리게 했으나, 그 금단사마저 낚아채 갔습니다. 당신 같은 어른이 요괴를 방치하여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뺏게 두었으니,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것입니까?"

태상노군이 말했다.

"내 금강탁은 내가 관문을 지나며 불교를 전파할 때 쓰던 도구로, 어릴 때부터 정성 들여 만든 보물이다. 그 어떤 병기나 물, 불도 이 보물 근처에는 얼씬도 못 하지. 만약 그놈이 내 파초선까지 훔쳐 갔다면 나조차도 그놈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손오공은 기쁜 마음으로 태상노군을 따랐다. 태상노군은 파초선을 손에 들고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함께 신선들의 궁궐을 떠나 내려갔다. 남천문 밖에서 구름을 낮게 깔고 금산 경계에 이르자, 그곳에는 이미 열여덟 존의 로한과 뇌공, 수백, 화덕성군, 그리고 이천왕 부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손오공은 그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태상노군이 말했다.

"손오공이 저 요괴를 밖으로 유인해내야 내가 저놈을 잡을 수 있다."

손오공이 봉우리 아래로 뛰어내리며 다시 큰 소리로 옥설을 퍼부었다. "이 망할 놈의 요괴 녀석아! 어서 나와서 죽음을 맞이해라!"

그 소리에 작은 요괴가 다시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요괴 왕이 말했다. "저 도둑 원숭이가 이번에는 또 누구를 불러들였는지 모르겠구나." 말을 마친 요괴 왕은 서둘러 창을 잡고 보물을 챙겨 문밖으로 맞서 나왔다.

손오공이 꾸짖었다. "이 악독한 요괴 놈아, 이번에야말로 네놈은 죽은 목숨이다! 도망갈 생각 마라, 내 손바닥 맛을 좀 봐라!" 손오공은 겹싸게 몸을 날려 요괴의 품 안으로 파고들더니, 얼굴을 향해 뺨을 세차

게 후려치고는 곧장 뒤돌아 달아났다. 요괴 왕이 창을 휘두르며 뒤를 쫓았다.

그때 높은 봉우리 위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牛) 새끼가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다니,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이나?”

요괴 왕이 고개를 들어보니 태상노군이었다. 요괴 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겁에 질려 중얼거렸다. “저 도둑 원숭이가 정말 땅에서 난 귀신이로구나. 대체 어떻게 우리 주인을 찾아온 것이란 말인가?”

태상노군이 주문을 외우며 파초선을 한 번 크게 휘두르자, 요괴가 던진 금강탁이 날아왔으나 노군이 단숨에 낚아챘다. 다시 한번 파초선을 휘두르니, 요괴는 기운이 빠지고 온몸의 힘이 풀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알고 보니 바로 푸른 소 한 마리였다. 태상노군이 입에서 신령한 기운을 내뿜어 금강탁을 붙자, 탁이 요괴의 코를 꿰뚫었다. 노군은 자신의 도포 허리띠를 풀어 탁에 묶은 뒤 손에 쥐고 끌고 갔다. 지금까지도 소의 코를 꿰는 고리가 남아 있는데, 이를 '빈랑(賓郎)'이라 부르기도 하니 바로 이 때문이다. 태상노군은 여러 신선에게 작별을 고한 뒤, 푸른 소의 등에 올라 채색 구름을 타고 곧장 도솔원(兜率院)으로 돌아갔으며, 요괴를 결박한 채 이한천으로 높이 올라갔다.

손오공이 천계의 신들과 함께 동굴 안으로 쳐들어갔다. 그는 그곳에 있던 백여 마리의 작은 요괴들을 모조리 때려눕혀 죽이고, 각자의 무기를 챙겼다. 그 후 손오공은 이천왕 부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들을 천계로 돌려보냈고, 뇌공은 자신의 처소로, 화덕성군은 자신의 궁으로,

물의 신은 강으로 돌아갔으며, 로한은 서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나서 야 손오공은 당삼장과 저팔계, 사오정을 구해내고 자신의 여의봉을 되찾았다. 구출된 세 사람은 손오공에게 고마움을 전한 뒤, 말과 짐을 챙겨 서둘러 동굴을 벗어났다. 스승과 제자들은 이제 큰길을 찾아 다시 길을 떠났다.

길을 가던 중, 길가에서 "당승 스님, 와서 공양(齋飯)이나 드시지요."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장로는 깜짝 놀랐다.

결국 그것이 누구의 부름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3회 — 선주가 음식을 삼켜 귀신의 잉태를 품고, 황파가 물을 운반하여 사악 한 태를 해소하다

禪主吞餐懷鬼孕 黃婆運水解邪胎

제53회

법성(法性)은 서쪽에서 오다, 여인들의 나라를 만나고 심원(心猿)은
계책을 세워, 번뇌의 불길에서 벗어나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덕행은 팔백 번을 닦아야 하고, 남모를 공덕은 삼천 번 쌓아야 하네.

사물과 나, 그리고 원한 맺힌 이들까지 모두 고르게 평온해질 때,

비로소 서방 정토를 향한 본래의 서원이 이루어지리라.

마귀의 칼날과 병장기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니,

물과 불의 고난을 겪어도 허망한 수고로 남지 않으리라.

태상노군이 마귀를 굴복시키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니,
웃으며 푸른 소를 끌고 유유히 거니네.

이야기는 이러하다. 큰길가에서 부르는 소리를 내던 이들이 누구였겠는가? 바로 금산산신과 토지였다. 그들은 자금색 밭우에 담긴 밥을 받쳐 들고 외쳤다.

“성스러운 스님, 이 밥은 손대성께서 좋은 집에서 정성껏 동냥해 오신 것입니다. 스님께서 좋은 충고를 듣지 않으시고 요괴의 손에 잘못 빠지는 바람에, 손대성께서 온갖 고생을 다 하신 끝해야 오늘에서야 겨우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서 이 밥을 드시고 다시 길을 떠나십시오. 손대성의 지극한 효심과 정성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삼장이 말했다. “제자야, 정말 너에게 만 번이나 신세를 졌구나. 말로 다 고마움을 표현할 수가 없다. 진작 네가 그려 준 동그라미 밖으로 나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걸 알았더라면, 어찌 이런 목숨을 잃을 뻔한 재앙을 당했겠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께 숨김없이 말씀드리자면, 스님께서 제가 그린 동그라미는 믿지 않으시더니 도리어 남이 씌운 동그라미(금강탁)에 갇히는 신세가 되셨으니 이 얼마나 큰 고생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팔계가 끼어들며 물었다. “아니, 웬 동그라미가 또 있다는 거야?”

손오공이 대꾸했다. “다 네놈의 그 못된 입방정 때문에 스승님께서 이런 큰 난리를 겪으신 것 아니냐! 이 못난 놈아! 내가 하늘과 땅을 뒤

옆고 천병천장과 물과 불, 그리고 부처님의 단사까지 다 불러 모았건만, 그놈은 온통 하얗고 번쩍이는 동그라미 하나로 다 쏘어가 버리더라 말이다. 여래께서 나한에게 힌트를 주어 그 요괴의 근원을 알려주신 덕분에 태상노군을 모셔와서야 겨우 굴복시킬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청우(푸른 소)가 요괴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 말을 들은 삼장이 깊이 감격하며 말했다. “착한 제자야,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다음부터는 반드시 네 말대로 따르마.”

네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나누어 먹었다. 손오공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밥을 차린 지 꽤 되었는데, 어째서 아직도 이렇게 뜨겁단 말이냐?” 그러자 토지가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손대성께서 공덕을 다 쌓으셨음을 알기에, 소신이 직접 온기를 불어넣어 대접하려는 것입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친 일행은 발우를 정리하고 토지와 산신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제야 삼장은 말에 올라타 높은 산을 넘어 길을 떠났다.

시로 이르되, 마음의 번뇌 씻어내고 바른 깨달음 향해 가니, 바람을 벗 삼고 물을 마시며 서천으로 향하도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어느덧 이른 봄이 되었다. 주변에서는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다.

"자줏빛 제비는 향기로운 부리를 맞대고 속삭이며 잠이 들고, 꾀꼬리는 교묘한 목소리를 뽐내며 노래하네. 땅에는 떨어진 꽃잎이 비단처럼 깔려 있고, 산에는 푸른 잎이 돋아나 융단처럼 쌓였구나. 고개 위에는 청매가 열리고 콩이 맺히며, 절벽 앞 고목에는 구름이 머무네. 들판

은 안개 빛에 젖어 은은하고, 모래밭은 따스한 햇살에 달궂지는구나.
곳곳의 정원에는 꽃이 피어나 꽃가루를 날리고, 대지에 봄벌이 돌아 버
들강아지가 새로 돌아나네."

길을 가던 중, 갑자기 맑고 투명한 물이 흐르는 작은 강 하나를 만났
다. 물결은 차갑고 잔잔하게 일렁였다. 삼장이 말 고삐를 당겨 멈춰 서
서 살펴보니, 저 멀리 강 건너편에 버드나무 그늘이 푸르게 드리워져
있고 초가집 몇 채가 살짝 보였다.

손오공이 저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사람이 사는 걸 보니, 분명
배를 짓는 사공이 있을 겁니다."

삼장이 말했다. "나도 저쪽에 집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한다면,
배가 보이지 않으니 선뜻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구나."

그러자 저팔계가 짐을 내려놓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이보시오, 사
공 양반! 배 좀 이쪽으로 저어다 주시오!"

저팔계가 몇 번을 더 불러대자, 버드나무 그늘 사이에서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배 한 척이 나타나더니 이내 강가로 다가왔다. 스승과 제
자들이 그 배를 자세히 살펴보니 참으로 이러했다.

시로 이르되, "짧은 노가 물결을 가르고, 가벼운 노질에 파도가 이는
구나. 배 안은 채색 칠이 되어 화려하고, 뒷판은 평평하여 짐을 싣기 좋
네. 뱃머리에는 밧줄이 둥글게 감겨 있고, 선미의 키를 엮은 곳은 밝게
빛나네. 비록 작은 배 한 척의 항해이나, 호수나 바다를 떠다니는 배에
뒤지지 않네. 화려한 돛과 굵은 밧줄은 없을지라도, 튼튼한 기둥과 노

는 갖추었으니, 만 리를 가는 신비로운 배에는 못 미칠지언정, 강 하나를 건너기에는 충분하구나. 강 양쪽 기슭을 오가며, 오래된 나루터를 드나드네."

배가 순식간에 강가에 닿자, 뱃머리에 있던 여인이 외쳤다. "강 건너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예요!"

삼장이 말을 몰아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 여인의 모습이 이렷했다.

머리에는 비단 수건을 두르고, 발에는 검은 비단 신을 신었구나. 온갖 천을 덧댄 숨저고리에 허리에는 수천 번 바느질한 치마끈을 맸네. 손목은 거칠고 힘이 넘치는데, 눈가는 흐릿하고 눈썹은 찌푸려져 얼굴에는 노쇠함이 가득하구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가늘고 고운데, 가까이서 보니 그저 늙은 여인이로다.

손오공이 배 옆으로 다가가 물었다. "당신이 배를 젓는 사람인가요?" 여인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뱃사공은 어디 가고, 왜 할머니가 배를 젓고 계신가요?" 여인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고 손으로 널빤지를 끌어당겼다.

사오정이 짐을 짊어지고 배 위로 옮겨 놓았고, 손오공은 스승이 배에 올라타도록 부축했다. 그러고 나서 배 안으로 건너간 뒤, 저팔계가 백룡마를 끌고 올라오자 널빤지를 거두었다. 여인이 노를 저어 움직이니 순식간에 강을 건넜다.

서쪽 기슭에 발을 내딛자, 삼장은 사오정에게 짐을 풀게 하여 돈 몇 푼을 건네주었다. 여인은 돈이 많은지 적은지 따지지도 않고, 밧줄을 물가의 말뚝에 묶어둔 뒤 싱글벙글 웃으며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삼장이 눈앞의 맑은 물을 보자 갑자기 목이 말라 저팔계에게 명령했다. “발우를 가져와서 물을 좀 떠 오너라. 목이 너무 마르구나.” 그러자 저팔계가 대답했다. “저도 마침 물이 좀 마시고 싶던 참이었어요.” 저팔계는 즉시 발우를 가져와 물을 한 가득 떠서 스승에게 건넸다. 삼장이 물을 반쯤 마시고 남겨두자, 저팔계가 그것을 받아 단숨에 들이켜고는 삼장을 말에 태워 모셨다.

스승과 제자들이 길을 찾아 서쪽으로 향한 지 채 반 시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말 위에 앉아 있던 삼장이 신음하며 말했다. “배가 아프구나.” 뒤따르던 저팔계도 곧바로 말했다. “저도 배가 좀 아프데요.” 사오정이 거들었다. “아무래도 찬물을 마셔서 그런 모양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삼장이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배야! 너무 아프구나!” 저팔계도 따라 외쳤다. “아이고, 저도 배가 너무 아파요!”

두 사람은 통증을 참지 못해 찢찢맸는데,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손으로 배를 만져보니 마치 핏덩이와 고기 덩어리가 들어 있는 듯했고, 뱃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계속해서 요동쳤다. 삼장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문득 길가에 마을 하나가 보였다. 나무 끝에는 풀 바구니 두 개가 걸려 있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다 왔습니다! 저기 술을 파는 집이 보이네요. 가서 따뜻한 국물이라도 좀 얻어 마시며 스승님 배를 좀 달래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약을 파는 곳이 있는지 물어보고 약이라도 구해와서 스승님의 복통을 고쳐드릴게요.”

삼장이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백룡마를 재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집 대문 앞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렸다. 대문 밖을 보니 한 노파가 풀로 만든 의자에 단정히 앉아 삼을 찢고 있었다. 손오공이 앞으로 나아가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할머니, 저희는 동토 대당에서 온 스님들입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당나라 황제의 동생이신데, 강을 건너다 강물을 마신 뒤로 배가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노파가 싱글벙글 웃으며 물었다.

"아니, 저기 저 강에서 물을 마셨단 말ियो?"

손오공이 대답했다.

"여기 동쪽에 있는 청수하에서 마셨습니다."

노파가 매우 반가운 듯 웃으며 말했다.

"허허, 이거 참 재미있는 일이구려, 재미있어.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오. 내가 자세히 말해주리다."

손오공은 삼장을 부축하고 사오정은 저팔계를 부축했다. 세 사람은 배를 움켜쥔 채, 얼굴이 노랗게 뜨고 눈썹이 일그러질 정도로 심한 복통을 견디며 초가집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손오공이 말했다.

"할머니, 제 스승님께 드릴 뜨거운 국 좀 얼른 끓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사례하겠습니다."

그런데 노파는 국을 끓이기는커녕, 싱글벙글 웃으며 뒤편으로 달려가 소리쳤다.

"이것 좀 봐요, 이것 좀 봐요!"

그러자 안에서 발을 질질 끌며 중년쯤 되어 보이는 여인 두세 명이 더 나오더니, 모두 삼장을 바라보며 비웃기 시작했다. 손오공은 크게 화가 나서 호통을 치며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다. 그 기세에 놀린 여인들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도망쳤다. 손오공은 앞으로 나서서 노파를 붙잡고 말했다.

"어서 국을 끓여라! 그러면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마."

노파는 벌벌 떨며 대답했다.

"아이고, 나으리! 국을 끓여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이분들의 복통을 고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일단 저를 놓아주시고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손오공이 노파를 놓아주자 그녀가 말을 이었다.

"이곳은 서량여국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나라는 온통 여자뿐이고 남자는 한 명도 없어서, 당신들을 보니 반가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네 스승님이 드신 물이 좋지 않았군요. 그 강 이름은 자모하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 국왕 성 밖에는 영양관이라는 역참이 있는데, 그 역참 문 앞에 조태천이라는 샘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스무 살이 넘어야만 감히 그 강물을 마시지요. 물을 마시면 배가 아프면서 태기가 생기는데, 사흘 뒤에 영양관에 있는 조태천 샘물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물에 그림자가 두 개로 비치면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스승님께서 자모하의 물을 드셔서 태기가 생긴 것이니 머지않아 아이를 낳게 될 텐데, 뜨거운 국 따위로 어찌 고치겠습니까?"

삼장이 그 말을 듣고는 얼굴색이 하얗게 질려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제자들아,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나?"

팔계는 허리를 뒤틀고 몸을 비틀며 신음 섞인 소리로 투덜거렸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데, 우리는 분명 남자 몸인데 어디에 산도(産道)가 있단 말입니까? 대체 어떻게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옛말에 '수박이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했다. 때가 되면 분명 옆구리 쪽이 찢 갈라지면서 뚫고 나올 게 다."

그 말을 들은 팔계는 겁에 질려 벌벌 떨며 고통을 참지 못하고 외쳤다. "아이고, 관두자, 관둬! 죽는다, 죽어!"

사오정이 웃으며 말했다. “둘째 형님, 그렇게 몸을 비틀지 마세요. 그러다 자칫 아이를 키울 창자라도 잘못 건드려서 태아에게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팔계는 더욱 당황하여 눈에 눈물까지 그렇그런 채 손오공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다. “형님, 저 할머니께 좀 여쭙봐 주세요. 손길이 부드러운 산파가 어디 있는지 미리 몇 명만 구해달라고요. 아까부터 배가 주기적으로 심하게 뒤틀리는 게, 아무래도 진통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곧, 곧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사오정이 다시 웃으며 거들었다. “둘째 형님이 진통이 뭔지는 아시는 모양이네요. 그래도 너무 몸을 비틀지는 마세요. 그러다 양수라도 터지면 큰일이니까요.”

삼장이 신음하며 말했다. “할머니, 혹시 이 근처에 의원이 있습니까? 제 제자를 보내 낙태약을 좀 사 오게 하여 이 태기를 쏘아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노파가 대답했다. “약을 구한다 해도 소용없을 게요. 다만 우리 마을 정남쪽 거리에 해양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속 파아동이라는 동굴에 낙태천이라는 샘이 하나 있지요. 그 샘물을 한 모금 마셔야만 태기가 가라앉는 법인데, 지금은 그 물을 얻기가 아주 어렵다요. 몇 년 전부터 여의진선이라는 이름의 도인이 나타나서 그 파아동을 취선암으로 고치더니, 낙태천 샘물을 지키며 남들에게 함부로 내주지 않거든. 물을 구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예물과 술, 과일 등을 정성껏 차려 바쳐야 겨우 물 한 사발을 얻을 수 있다요. 그런데 당신들 같은 떠돌이 승

려들이 무슨 돈이 있어 그런 걸 다 마련하겠소? 그저 목숨을 걸고 버티며 때가 되면 아이를 낳는 수밖에 없지 않겠소.”

이 말을 들은 손오공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말했다. “할머니, 여기서 해양산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노파가 답했다. “서른 리쯤 된다고요.”

손오공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스승님, 걱정 마십시오. 이 손오공이 가서 물을 좀 떠 오겠습니다!”

과연 대단한 손오공, 사오정에게 분부했다. “너는 스승님을 잘 살피라. 만약 저 여편네들이 무례하게 굴며 스승님을 희롱하려 들거든, 예전에 쓰던 수단을 동원해 무서운 낫짝을 지어 호되게 겁을 주어라. 내가 물을 떠 오는 동안 말이다.” 사오정이 명을 받들었다.

그때 노파가 커다란 사발 하나를 내밀며 손오공에게 말했다. “이 사발을 가져가게나. 물을 넉넉히 떠 오되, 우리도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좀 남겨두어야 하네.” 손오공은 정말로 사발을 받아 들고 초가집을 나와 구름을 타고 날아갔다.

노파는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며 감탄했다. “아이고, 신령님! 저 스승님은 구름을 타고 다니는군요!”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가 여인들을 불러내더니, 당승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리고는 모두 그를 나한이나 보살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다. 한쪽에서는 탕을 끓이고 밥을 지어 당승에게 공양했으니, 그 정성이 대단했다.

한편,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날아오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산봉우리가 구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구름을 누르며 눈을 크게 뜨고 그곳을 살펴보았는데, 참으로 장관인 산이었다.

시로 이르되,

비단처럼 화려한 꽃들이 피어 있고 들풀은 푸른 융단처럼 깔렸구나. 계곡물은 끊임없이 이어져 흐르고 시냇가 구름은 한가로이 노니네. 겹겹이 쌓인 골짜기에는 덩굴이 뻗뻗하고 멀리 보이는 봉우리에는 나무가 무성하구나. 새들은 지저귀고 기러기는 날아가며 사슴은 물을 마시고 원숭이는 나무를 탄다. 푸른 산은 병풍처럼 둘러쳐 있고 푸른 절벽은 여인의 머릿결처럼 매끄럽구나. 먼지 날리는 세상은 도달하기 어렵지만 졸졸 흐르는 샘물과 바위는 봐도 봐도 질리지 않네. 신선 아이들이 약초를 캐러 가는 모습을 보고 나무꾼이 떨감을 지고 돌아오는 것을 자주 마주치니 과연 천태산의 경치에 뒤지지 않고 서화산의 삼봉보다도 빼어나구나.

손오공이 한창 산의 경치를 감상하고 있는데, 그늘진 곳에 장원이 하나 있는 것이 보였다. 그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손오공이 산을 내려가 장원으로 곧장 향하니, 그곳 또한 참으로 아늑하고 좋은 곳이었다.

시로 이르되,

작은 다리는 흐르는 물로 이어져 있고 초가집은 푸른 산을 등지고 있네. 마을 개는 울타리 곁에서 짖고 그윽한 곳에 사는 이들은 자유로이 오가네.

이윽고 문 앞에 이르니, 한 노도인이 푸른 풀밭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손오공은 바리때를 내려놓고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도인이 몸을 굽혀 답례하며 물었다.

“그쪽은 누구십니까? 이 작은 암자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저는 동토 대당에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임무를 맡은 승려입니다. 저희 스승님이 자모하의 물을 잘못 마시는 바람에, 지금 배가 불러오고 통증이 심해 견디지 못하고 계십니다. 현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태기가 생긴 것이라 고칠 방법이 없다더군요. 알아보니 해양산 파아동에 있는 낙태천 물을 마셔야 이 태기를 없앨 수 있다고 하여, 여의진선 어른을 뵈고 스승님을 구할 샘물을 좀 얻고자 찾아왔습니다. 노도인께서 길을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인이 웃으며 말했다.

“이곳이 바로 파아동입니다. 지금은 취선암으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저는 다름이 아니라 여의진선 어른의 첫째 제자입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제가 어른께 전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손오공이 말했다.

“저는 당삼장 법사님의 첫째 제자인 손오공이라고 합니다.”

도인이 물었다.

“그럼 예물과 술 같은 사례는 어디에 준비해 두었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저는 그저 길을 지나가는 떠돌이 승려라 따로 준비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인이 웃으며 말했다.

“참으로 어리석으시군요. 우리 스승님께서서는 산의 샘물을 지키고 계시기에, 아무에게나 공짜로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돌아가서 예물을 제대로 갖춰 오셔야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돌아가십시오. 헛된 생각은 마시고요.”

손오공이 말했다.

“사람의 정이라는 것이 황제의 어명보다도 크다오. 가서 내 이름을 말해 보시오. 그럼 분명히 도와줄 것이고, 어찌면 샘물뿐만 아니라 우물째로 내어줄지도 모르니까 말이오.”

도인이 그 말을 듣고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다. 그러자 진선은 거문고를 타고 있다가 연주를 마친 뒤에야 입을 열었다.

“스승님, 밖에 어떤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당삼장의 첫째 제자인 손오공이라 자칭하며, 스승을 구하기 위해 낙태천 물을 구하러 왔답니다.”

진선은 처음에는 듣지도 않고 넘기려 했으나,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사나운 기운이 온몸에 퍼졌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문고를 타던 침상에서 내려왔다. 그리고는 평상복을 벗어 던지고 도복으로 갈아입은 뒤, 여의구를 챙겨 들고 암자 문밖으로 뛰어 나가며 외쳤다.

"손오공은 어디 있느냐!"

손오공이 고개를 돌려 보니, 그 진선의 차림새가 이러하였다.

머리에는 별 모양의 관을 쓰고 화려한 빛을 발하며, 몸에는 금실을 수놓은 붉은 법의를 입었구나. 발에는 비단 무늬가 가득한 구름 신을 신었고, 허리에는 보석이 박힌 보배로운 띠를 둘렀네. 비단 무늬가 들어간 양말은 물결 위를 걷듯 고우나, 치맛자락 사이로 수놓은 비단이 반쯤 드러났구나. 손에는 여의 금고리(금갈고리)를 쥐고 있으니, 그 날카로운 자루는 마치 용이나 구렁이처럼 길도다. 봉황 같은 눈은 빛나고 눈썹은 곧게 솟았으며, 강철 같은 어금니는 날카롭고 입술은 붉게 뒤집혔네. 이마 아래 수염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휘날리고, 귀밑머리는 붉고 짧게 더부룩이 뻗어 있구나. 그 험악한 모습은 마치 온원수(溫元帥) 같으나, 다만 의관(차림새)만은 (온원수와) 같지 않구나.

손오공은 그 모습을 보고 합장하며 예를 갖추어 말했다.

"빈승이 바로 손오공입니다."

그러자 진선이 웃으며 물었다.

"네가 정말 손오공이란 말이나? 아니면 이름만 빌린 가짜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참 이상합니다. 예부터 '군자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성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바로 손오공인데, 어찌 가짜 이름을 쓴단 말씀입니까?"

진선이 다시 물었다.

"그럼 나를 알아보겠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제가 불교에 귀의하여 수행에만 전념하며 산과 강을 넘나들다 보니, 어릴 적 친구들도 소홀히 하여 아직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던 것입니다. 방금 자모하 서쪽 마을 사람들에게 길을 묻다가, 선생님께서 여의진선이라는 것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진선이 차갑게 말했다.

"너는 네 갈 길을 가고, 나는 나의 도를 닦을 것이니,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제 스승님이 자모하의 물을 잘못 마시는 바람에, 배가 아프면서 태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인께서 계신 이곳까지 찾아와, 낙태천 물 한 사발을 간청하여 스승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그 선인이 눈을 부라리며 화를 내며 물었다. "네 스승이 혹시 당삼장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인이 이를 악물며 원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혹시 성영대왕이라는 요괴를 본 적이 있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그건 호산(號山) 고송간(枯松澗) 화운동(火雲洞)에 사는 홍해아라는 요괴의 별칭 아닙니까. 진선께서는 그놈을 왜 물으십니까?" 선인이 말했다. "그놈은 내 조카다. 나는 우마왕의 형제이기도 하고. 얼마 전 네 스승의 큰제자인 손오공이 게으름을 피우는 바람에 내 조카가 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형님께 전해 들었다. 나는 마침 너희에게 복수할 기회만 찾고 있었는데, 네가 제 발로 찾아와서 웬 물을 달라는 게냐?"

손오공이 웃음을 띠며 달래듯 말했다. "어르신, 오해하셨습니다. 어르신의 형님께서도 저와는 친구 사이였고, 어릴 적에는 저희가 칠형제의도 맺지 않았습니까? 다만 제가 어르신의 댁이 어디인지 몰라 찾아뵙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조카분은 좋은 일을 겪어 관음보살을 따르며 선재동자가 되었으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보다 못할 수도 있는 법인데 어찌 저를 탓하십니까?"

여의진선이 호통을 쳤다. "이 망할 원숭이 놈! 어디서 말장난이냐! 내 조카가 차라리 자유로운 왕으로 사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남의 종노릇을 하는 게 낫겠느냐? 무례하게 굴지 마라, 내 갈고리에 맞아 죽어라!"

손오공이 여의진선의 공격을 철봉으로 막아내며 말했다. “선생님, 싸우자고만 하지 마시고 우선 이 샘물부터 좀 가져다주십시오.”

그러자 여의진선이 다시 욕설을 퍼부었다. “이 죽을 놈! 네놈이 살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만약 세 합 안에 나를 이긴다면 물을 가져다주마. 하지만 이기지 못한다면 너를 고기 양념으로 다져버려 내 조카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손오공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이 앞뒤도 모르는 악당 놈 같으니! 싸우고 싶다면 비켜봐라, 내 몽둥이 맛을 보여줄 테니!”

여의진선이 여의구를 휘두르며 즉시 맞서 공격했다. 두 사람은 취선암에서 격렬한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시로 이르되, 거룩한 스님이 잘못 마신 물에 태기가 생겼으니, 행자는 여의진선을 찾아 나섰다네. 그런데 저 진선은 원래 괴물이라, 힘을 믿고 낙태천을 억지로 지키고 있구나. 서로 만나 원한을 따지니, 다투기만 할 뿐 뜻대로 되지 않네. 말로는 화해를 논해도 마음은 엉켜 있고, 악한 뜻과 흥포한 감정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네. 한쪽은 스승의 목숨을 구하러 물을 구하러 왔고, 한쪽은 조카를 위해 물을 주지 않으려 하네. 여의구는 전갈의 독처럼 매섭고, 금고봉은 용의 기세처럼 사납구나. 가슴을 향해 휘두르는 찌르기는 맹렬하고, 발을 낚아채는 갈고리는 오묘하기 그지없네. 손을 뒤집어 치는 몽둥이는 상처를 깊게 만들고, 어깨 너머로 휘두르는 갈고리는 머리 위를 후려치네. 허리를 묶는 일격은 매가 참새를 낚듯 하고, 머리를 누르는 세 번의 갈고리는 매미를 잡듯 매섭구나. 오고 가며 승패를 다투니, 되돌아오고 다시 맞붙기를 두 차

레나 반복하네. 갈고리와 몽둥이가 뒤섞여 앞뒤를 알 수 없으니, 누가 이기고 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구나.

여의진선은 손오공과 수십 합을 싸웠으나 도저히 손오공을 당해낼 수 없었다. 손오공의 공격은 갈수록 맹렬해졌고, 그의 철봉은 마치 굴러가는 유성처럼 머리 위로 무섭게 쏟아졌다. 결국 기력이 다한 여의진선은 여의구를 끌며 산 위로 도망치듯 물러났다.

손오공은 그를 쫓아가는 대신 암자 안으로 들어가 물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도인은 이미 암자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상태였다. 손오공은 기와 그릇을 손에 들고 문 앞으로 달려가, 온 힘을 다해 발로 차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우물가에 엎드려 있던 도인을 향해 손오공이 호통을 치며 몽둥이를 들어 내리치려 하자, 도인은 뒤로 달아나 버렸다.

겨우 물을 길기 위해 두레박을 찾아내어 막 물을 치려던 찰나, 여의진선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여의 갈고리를 휘둘러 손오공의 발을 낚아챘고, 손오공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보기 좋게 고꾸라졌다. 손오공이 벌떡 일어나 철봉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여의진선은 옆으로 잽싸게 피하며 갈고리를 든 채 비아냥거렸다.

"네가 감히 내 물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느냐?"

손오공이 욕설을 내뱉으며 외쳤다.

"이놈, 당장 이리 나오너라! 네놈 같은 악당을 아주 박살을 내주마!"

여의진선은 직접 싸우러 나서지는 않았지만, 손오공이 물을 낚지 못하도록 길목을 딱 지키고 서서 방해했다. 손오공은 그가 움직이지 않자, 왼손으로는 철봉을 휘두르고 오른손으로는 두레박을 다루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가 두레박 줄을 덜컥거리며 내려보내자마자 여의진선이 다시 갈고리를 휘둘렀다. 손오공은 한 손으로 버티지 못하고 또다시 발이 갈고리에 걸려 뒤로 나자빠졌고, 그 바람에 두레박까지 통째로 우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손오공이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다.

"이놈이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구나!"

그는 다시 일어나 양손으로 철봉을 휘두르며 앞뒤 가리지 않고 맹렬하게 공격했다. 하지만 여의진선은 여전히 적을 맞서 싸우는 대신 뒤로 물러나며 손오공이 물을 낚는 것만 철저히 막아섰다. 손오공은 다시 물을 길으려 했으나, 두레박도 없고 또 갈고리에 걸려 넘어질까 봐 겁이 났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도저히 안 되겠구나. 가서 도와줄 녀석을 불러와야겠다.'

손오공은 크게 외치며 구름을 몰아 마을 집 앞까지 단숨에 달려가 "사오정!" 하고 불렀다. 그러자 집 안에서는 삼장이 고통에 겨워 신음 소리를 내고 있었고, 저팔계 역시 끙끙거리는 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었다. 부르는 소리를 들은 두 사람이 반가워하며 말했다.

"사오정, 손오공이 왔다!"

사오정이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가며 물었다.

"형님, 물을 가져오셨습니까?"

손오공은 집 안으로 들어가 삼장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삼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자야, 어찌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사오정 형제를 데리고 함께 가려 합니다. 저 암자 근처에 가서 제가 그놈과 싸우는 동안, 사오정 형제가 그 틈을 타서 물을 길어와 스승님을 구하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삼장이 말했다.

"병이 없는 두 사람이 다 가버리고 병든 우리 둘만 남겨두면, 대체 누가 나를 돌봐준단 말이냐?"

곁에 있던 노파가 거들었다.

"나한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자분들이 없어도 저희가 알아서 잘 돌봐드릴 테니까요. 아침에 도착하셨을 때부터 저희는 이미 안쓰러운 마음이 컸답니다. 방금 보살님 같은 분이 구름과 안개를 몰고 나타나시는 걸 보고서야 당신이 나한 보살님이라는 걸 알았지 뭐니까. 저희가 감히 다시 해를 끼치지는 않을 테니 안심하세요."

손오공이 투명스럽게 외쳤다. "이보시오, 여인네들이 감히 누구를 해치겠다는 거요?"

그러자 노파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할아버지! 우리 집에 오신 게 천만다행인 줄 아세요. 다른 집으로 가셨으면 아마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팔계가 콧방귀를 끼며 물었다. "무사하지 못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노파가 대답했다. "우리 집은 대여섯 식구가 다 나이 먹은 어른들이라, 남녀 간의 풍류 따위는 다 끊은 지 오래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집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람이 많은데, 그 어린 것들이 당신들을 그냥 보내주겠어요? 분명히 몸을 섞으려 들 거예요. 만약 응하지 않으면 목숨까지 위태로워질걸요? 당신들 몸의 살점을 다 베어다가 향주머니를 만들지도 몰라요."

저팔계가 대꾸했다. "그렇다면 난 전혀 걱정할 게 없겠군. 저 여인들은 향기로운 몸이라 향주머니를 만들기에 딱 좋겠지만, 나는 냄새나는 돼지라 살점을 베어 가봤자 냄새만 날 테니 말이야. 그러니 난 무사하겠구먼."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입방정 떨어뜨리고 힘이나 좀 아껴 뒤라. 그래야 순산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노파가 재촉했다. "망설일 시간 없으니 어서 물을 구하러 가세요."

손오공이 물었다. "집에 물을 길는 두레박이 있소? 좀 빌려줍시다."

노파는 즉시 뒤쪽에서 두레박 하나와 밧줄 하나를 꺼내 사오정에게 건네주었다. 사오정이 말했다. "밧줄을 두 줄 챙겨가야겠어. 혹시라도 우물이 깊으면 모자랄지도 모르니까."

사오정은 물통과 줄을 받아 들고 손오공을 따라 마을을 나섰다. 두 사람이 구름을 타고 날아간 지 반 시진(약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해양산 경계에 다다랐다. 구름을 낮추어 암자 밖으로 내려가자, 손오공이 사오정에게 분부했다.

"너는 물통과 줄을 챙겨서 한쪽 옆에 숨어 있다가, 이 몸이 나서서 싸울 때를 기다려라. 우리 둘의 싸움이 한창 격렬해지면, 그때를 틈타 얼른 들어가서 물을 떠서 바로 나오너라."

사오정은 손오공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손오공이 철봉을 휘두르며 문 앞으로 다가가 크게 외쳤다. "문 열어라! 문 열어!"

문을 지키던 도인이 그 모습을 보고 급히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다. "스승님, 손오공이 또 왔습니다!"

그러자 여의진선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저 망할 원숭이 놈이 아주 막무가내로 구는구나. 전부터 수단이 예사롭지 않다는 말은 들었지만, 오늘 보니 저 몽둥이 하나는 정말 상대하기 까다롭겠어."

도인이 말했다. “스승님, 저놈의 수단이 높긴 해도 스승님께서도 결코 뒤쳐지지 않으니 충분히 맞설 수 있습니다.”

여의진선이 대답했다. “앞선 두 번의 싸움에서는 내가 저놈에게 졌지 않느냐.”

도인이 다시 말을 이었다. “앞선 두 번은 저놈이 그저 기세가 좋아서 이긴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물을 길으러 왔을 때, 스승님께서 저놈을 두 번이나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야말로 대등하게 맞선 것이지요. 저놈이 지난번에는 어쩔 수 없이 물러갔지만, 이번에 다시 찾아온 것을 보니 삼장의 배 속의 아이가 커져서 몸이 무거워진 모양입니다. 삼장이 원망을 쏟아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온 것이니, 분명 제 스승은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스승님께서 반드시 이기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의진선은 그 말을 듣자마자 봄기운이 가득한 듯 기세등등하게 웃으며,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여의구(如意鉤)를 치켜들고 문밖으로 걸어나와 호통을 쳤다. “이 고약한 원숭이 녀석! 또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그저 물을 좀 가지러 왔을 뿐이다.” 그러자 여의진선이 대꾸했다. “이 샘물은 우리 집 우물이다. 제아무리 황제나 재상이라 해도 예의를 갖춰 술과 음식을 바쳐야 겨우 조금 나누어 주는 법인데, 하물며 너는 나의 원수 아니냐? 그런데 감히 빈손으로 와서 물을 가져가려 하다니!”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정말로 안 주겠다는 말이나?” “안 준다, 절대 못 준다!” 손오공이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쳤다. “이 못된 놈! 물을 안 준다면 매를 좀 맛봐야겠구나!” 손오공은 곧바로 싸울 자세를 취하더니, 말할 틈도 없이 달려들어 몽둥이를 휘둘렀다.

여의진선은 몸을 옆으로 비켜 피하며 여의구로 급히 맞서 싸웠다. 두 사람의 싸움은 이전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격렬했다.

시로 이르되,

금고봉과 여의구가 맞부딪치니 두 사람 원한 품고 분노가 치솟네.
모래와 돌이 날리고 천지가 어둡구나 먼지 구름 일어 일월조차 슬퍼하네. 대성(손오공)은 스승 구하러 물을 구하러 왔건만 요괴 신선은 조카 위해 물을 안 주려 하네. 두 사람 힘겨루기 끝이 없으니 한곳에서 생사를 걸고 싸우누나. 이를 악물고 승부를 가리려 하고 이를 갈며 강한 자와 부드러운 자가 맞서네. 싸움이 거듭될수록 기세는 더욱 드높아 구름과 안개 뿜어내니 귀신들도 근심하네. 무기와 몽둥이 부딪치는 소리 요란하고 천지를 울리는 함성이 산을 뒤흔드네. 광풍은 휘몰아쳐 숲을 흔들고 살기는 북두칠성을 가로지르네. 대성은 싸울수록 신이 나고 요괴는 싸울수록 더욱 악착같이 버티네. 서로 이기려 작정하고 싸우니 죽거나 이길 때까지 멈출 줄 모르네.

두 사람은 암자 문앞에서 춤을 추듯 격렬하게 맞붙으며 싸우다가, 산비탈 아래까지 내려가서도 좀처럼 승부를 내지 못한 채 끈질기게 대치했다.

한편, 사오정이 물통을 들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러자 우물가에 있던 도인이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네놈은 누구냐! 감히 어디라고 와서 물을 가져가려 하느냐?"

사오정은 물통을 내려놓고 곧장 향요보장(요괴를 물리치는 보물 지팡이)을 꺼내 들었다. 대꾸할 것도 없이 곧바로 머리부터 내리쳤다. 도

인은 미처 피하지 못해 왼쪽 팔이 부러졌고, 땅바닥에 쓰러져 살려달라고 몸부림쳤다.

사오정이 꾸짖으며 말했다. "이 요망한 놈을 당장 때려죽여야겠구나! 하지만 사람이니 불쌍히 여겨 목숨만은 살려주마. 비켜라, 물을 길어야겠다!"

도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울부짖으며 뒷마당으로 기어 도망갔다. 사오정은 그제야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뒤 암자 문을 나섰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날아올라 손오공을 향해 외쳤다. "형님, 물을 다 길어왔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봐줍시다, 제발 봐주세요!"

손오공이 그 말을 듣고는 여의금고봉으로 갈고리를 받쳐 지탱하며 말했다.

"내가 본래 너를 아주 없애버리려 했으나, 네가 딱히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니 봐주마. 또 네 형인 우마왕과의 정을 생각해서 봐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까는 내가 갈고리에 두 번이나 걸리는 바람에 물을 가지러 가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내가 호랑이를 산에서 쫓아내는 '조호이산'의 계책을 써서 네가 싸우러 나오게 만들었으니, 그사이 내 사제가 물을 가지러 갔느니라. 내가 마음만 먹고 본실력을 발휘한다면, 네가 아무리 대단한 여의진선이라 한들, 아니 이런 놈이 몇 명 더 온다 해도 다 때려잡을 수 있다.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는 게 나으니, 이번엔 너를 그냥 놓아주마. 앞으로 다시 물을 가지러 오는 자가 있다면 절대로 그를 해치지 마라."

하지만 이 요괴는 선의를 베푸는 손오공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기회를 엿보다가 갈고리를 휘둘러 손오공의 발을 낚아채려 했다. 손오공은 재빨리 갈고리를 피한 뒤 앞으로 달려들며 호통을 쳤다.

"어딜 도망가느냐!"

요괴는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중심을 잃고 허우적거리며 일어나지 못했다. 손오공은 요괴가 들고 있던 여의갈고리를 뺏어 들더니 두 토막을 내고, 다시 한 번 휘둘러 네 토막을 내버렸다. 그러고는 갈고리를 땅에 내던지며 말했다.

"이 못된 놈! 다시는 무례하게 굴지 마라!"

요괴는 벌벌 떨며 수치심을 참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오공은 허허 웃으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이에 시로 이르되,

"참된 납을 단련하려면 참된 물이 필요하고, 참된 물로 조화시켜야 참된 수은이 마르지 않네. 참된 수은과 납에는 어머니의 기운이 없으니, 영험한 모래와 약이 곧 신선의 단약이라네. 아이의 태기가 헛되이 맺힌 것은, 흙의 어머니가 공을 들여 어렵지 않게 풀어낸 것이니, 곁길로 빠지는 종파를 무너뜨리고 바른 가르침을 세우면, 마음의 주인이 뜻을 이루어 웃음꽃이 피어나리라."

손오공은 상서로운 빛을 뿜으며 달려가 사오정을 따라잡았다. 진짜 물을 얻은 손오공은 기뻐하며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 그는 구름을 타고 내려와 곧장 마을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 가보니 저팔계가 배를 내밀고 문설주에 기대어 끄끙거리고 있었다.

손오공이 살금살금 다가가 말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언제 방을 잡았느냐?"

저팔계가 당황하며 말했다. "형님, 놀리지 마세요. 혹시 물을 구해왔나요?"

손오공이 한 번 더 그를 골려주려는데, 뒤따라온 사오정이 웃으며 말했다. "물 가져왔습니다, 물 가져왔어요!"

삼장은 통증을 참으며 몸을 일으켜 말했다. "제자들아, 너희도 고생이 많구나."

마을 노파도 무척 기뻐하며 식구들 모두가 절을 올리며 말했다. "아이고, 보살님!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고는 얼른 자기식기인 사기잔을 가져와 물을 반 잔 정도 담아 삼장에게 건네며 말했다.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딱 한 모금만 드시면 태기가 가라앉을 겁니다."

그러자 저팔계가 말했다. "난 잔 같은 거 필요 없으니, 그냥 물동이째 가져와서 나한테 줘요!"

노파가 꾸짖었다. "영감님, 농담도 정도껏 하셔야죠! 만약 그 물동이째 들이켰다간 창자와 배가 통째로 녹아버릴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 말에 겁을 먹은 저팔계는 감히 떠꼴을 하지 못하고, 그저 반 잔의 물을 마셨다.

그곳에서 밥을 먹을 무렵이었다. 두 사람의 배 속에서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일더니, 꾸르륵꾸르륵 소리를 내며 장이 서너 차례 요동치기 시작했다. 장이 요동치자 참다못한 저팔계는 대소변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말았다. 삼장 역시 참지 못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 볼일을 보러 가려 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절대 탁 트인 곳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남들이 볼까 겁도 나지만, 갑자기 찬바람이라도 맞으면 산후풍 같은 병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노파는 즉시 깨끗한 통 두 개를 가져와 두 사람이 편히 볼일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잠시 후, 몇 차례 더 볼일을 보고 나서야 통증이 잦아들기 시작했고, 부풀어 올랐던 배도 점차 가라앉으며 핏덩이 같던 살덩이들도 서서히 녹아내렸다. 노파는 기운을 차리도록 그들에게 흰쌀죽을 끓여 대접했다.

저팔계가 말했다. “할머니, 제 몸은 아주 튼튼해서 보충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따뜻한 물을 좀 데워주시면, 몸을 씻고 나서 죽을 먹는 게 훨씬 좋겠네요.”

그러자 사오정이 말했다. “둘째 형님, 씻으면 안 됩니다. 산후조리하는 사람이 물에 닿으면 병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저팔계가 대꾸했다. “내가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저 가볍게 유산한 것뿐인데 뭐가 무섭다고 그래요? 깨끗이 씻는 게 낫지.”

결국 노파는 물을 데워와 두 사람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겨주었다. 삼장은 죽과 국을 두 그릇 정도 먹었고, 저팔계는 열 그릇 넘게 먹어치우고도 더 달라고 보챘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먹보야, 좀 적당히 먹어라. 배가 모래주머니처럼 볼록해지면 꼴이 말이 아니잖니.”

저팔계가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암돼지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야?”

노파는 다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노파가 삼장에게 말했다. “스님, 이 물을 제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자 손오공이 물었다. “이 멍청아, 이제 물 안 마셔도 되겠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배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뱃속의 태기도 다 빠져나갔는지 아주 개운하네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물을 왜 또 마셔요?”

손오공이 말했다. “두 사람 다 나왔으면, 이 물을 너희 집에 가져다 주마.”

노파는 손오공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남은 물을 옹기 항아리에 담아 뒷마당 땅속에 묻었다.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이 항아리에 든 물이면 내 관 짜는 비용으로도 충분하겠구나!”

가족들은 모두 기뻐하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상과 의자를 내어 놓았다. 삼장 일행은 식사를 마친 뒤, 평온하게 하룻밤을 푹 쉬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일행은 노파의 집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을을 떠났다. 삼장은 말 안장에 올라탔고, 사오정은 짐을 짊어졌으며, 손오공은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고 저팔계는 고삐를 잡았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시로 이르되, "입과 몸의 죄업을 깨끗이 씻어내니, 속세의 몸을 벗어 던져 자연히 몸이 맑아지리라."

결국 그 나라 경계 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4회 — 법성이 서쪽에서 넘어와 여인 국을 만나고, 마음의 원숭이가 계책을 세 워 연화의 유혹에서 벗어나다

法性西來逢女國 心猿定計脫煙花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삼장 일행은 마을 사람들과 작별하고 길을 따라 서쪽으로 나아갔다. 서른에서 마흔 리쯤 갔을까, 어느덧 서량여국의 경계에 다다랐다. 말을 타고 가던 당삼장이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공아, 저 앞에 성곽이 보이고 저잣거리 사람들의 말소리가 시끌벅적하니, 아마도 서량여국일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매사에 주의하고 법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절대로 마음을 방탕하게 놀려 수행의 도리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 말을 들은 세 제자는 스승의 엄한 명령을 받들어 조심하기로 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행은 동관 상가 입구에 다다랐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 긴 치마에 짧은 저고리를 입고, 얼굴에는 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노소를 불문하고 온통 여인뿐이었다. 두 거리에서 물건을 사고팔던 여인들은 일행 네 사람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일제히 손뼉을 치며 깔깔 웃어댔다. 그리고는 얼굴을 단장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씨받이 사내가 왔다, 씨받이 사내가 왔다!" 그 소란에 당삼장은 당황하여 말을 몰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순식간에 거리는 여인들로 가득 들어찼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만 들려왔다. 저오능이 입을 놀리며 정신없이 외쳤다. "나는 팔려 가는 돼지다, 나는 팔려 가는 돼지다!"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이 바보야, 헛소리 말고 평소 네 못생긴 얼굴이나 제대로 내보여!" 저오능은 정말로 고개를 양옆으로 세차게 흔들더니, 부채 같은 귀를 종긋 세우고 연꽃 봉오리 같은 입술을 실룩거리며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 모습에 여인들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다. 시로 이르되,

성승이 부처님께 절하러 가는 길에 서량에 이르니, 나라 안은 음기만 가득하고 양기가 드물구나. 농사짓고 장사하는 이 모두가 여인들이요, 고기 잡고 나무하고 밭 갈고 가축 치는 이도 모두 화장한 여인이라. 아리따운 여인들은 길마다 씨받이 사내라 부르고, 젊은 여인들은 거리 가득 분 바른 사내를 맞이하네. 오능이 추한 모습을 부리지 않았던들, 꽃 같은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그 곤경을 견디기 어려웠으리라!

결국 여인들은 겁을 먹고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저마다 손을 맞잡고 허리를 굽히며, 고개를 저으며 손가락을 깨무는 등 별별 떨면서 길가에 줄지어 서서 당삼장을 바라보았다. 손오공도 못생긴 표정을 지

으며 길을 터주었고, 사오정 역시 호랑이처럼 험악한 표정을 지어 위엄을 세웠다. 저오능은 말 옆에서 입을 가린 채 귀를 종긋 세우고 서 있었다.

일행이 앞으로 나아가니, 시장 거리의 집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고 가게들은 웅장하게 들어서 있었다. 소금과 쌀을 파는 곳부터 술집과 찻집까지 즐비했으며, 북과 나팔을 부는 누각과 객주들이 늘어서 있었다. 스승과 제자들이 길을 꺾어 돌자, 갑자기 한 여관(女官)이 길 아래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보였다. "멀리서 오신 손님들은 성문을 함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역에 들러 명부에 이름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명단을 가지고 가서 보고한 뒤, 통행증을 확인하고 들여보내 드리겠습니다." 당삼장이 그 말을 듣고 말에서 내려 살펴보니, 관아 위에 '영양역(迎陽驛)'이라는 세 글자가 적힌 현판이 걸려 있었다. 당삼장이 말했다. "오공아, 저 마을 사람들이 하던 말이 사실이었구나. 정말로 영양역이 있구나." 사오정이 웃으며 말했다. "둘째 형님, 그럼 형님도 저 조태천(照胎泉) 가에 가서 한번 비취 보시지요. 혹시 그림자가 두 개로 보이지(아직 태기가 있지) 않는지 말이에요." 저오능이 대꾸했다. "농담 마라. 나는 벌써 그 낙태천(落胎泉) 물을 한 잔 마셔 버려서 뱃 아이를 이미 다 떨어뜨렸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비취 보겠느냐?" 당삼장이 뒤를 돌아보며 일렀다. "오능아, 말조심해라. 말조심해." 그리고는 앞으로 나아가 여관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했다.

여관이 길을 안내하여 그들을 역 안으로 모셨다. 정청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차를 내오라고 일렀다. 그런데 그곳의 하인들을 보니 모두 머리를 세 갈래로 땀아 내리고 옷을 두 겹으로 나누어 입은 모습이었

다. 차를 나르는 사람들의 모습조차 웃음을 자아낼 만했다. 잠시 후 차를 다 마시자, 여관이 몸을 굽혀 정중히 물었다. "손님들께서는 어찌 오셨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우리는 동토 대당의 황제 폐하께서 보내신, 서천으로 부처님을 뵙고 불경을 구하러 가는 흠차(欽差) 사절이다. 우리 스승님은 당나라 황제의 친동생이신 당삼장 법사이며, 나는 그분의 첫째 제자인 손오공이다. 이 둘은 내 사제인 저오능과 사오정이며, 말까지 합쳐 모두 다섯 식구가 함께 길을 가고 있다. 여기 통행증이 있으니 확인하고 길을 열어다오." 여관은 붓을 들어 내용을 다 적은 뒤,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나으리, 죽을죄를 지었습시다. 저는 영양역의 역승이라, 귀한 상국의 나으리들께서 오실 줄 미처 알지 못하고 멀리 마중 나가지 못했습니다." 인사를 마친 여관은 즉시 관리에게 음식을 준비시키며 말했다. "나으리들, 잠시만 편히 앉아 계십시오. 제가 성안으로 들어가 여왕님께 보고드리고, 통행증을 새로 고쳐 써서 인장을 찍어 드린 뒤 서쪽으로 가시는 길을 편히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당삼장은 기쁜 마음으로 앉아 더 말하지 않았다.

한편, 역승은 의관을 정제하고 곧장 성안의 오봉루 앞으로 가서 황문관에게 말했다. "나는 영양역의 역승인데, 주군을 뵙고 드릴 말씀이 있소." 황문관이 즉시 보고를 올리자, 전각 안에서 명을 내려 불러들이고 물었다. "역승이 무슨 일로 보고하러 왔느냐?" 역승이 대답했다. "소신이 역에서 동토 대당의 황제 동생인 당삼장을 맞이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손오공, 저오능, 사오정이라는 세 제자가 있고, 말까지 합쳐 모두 다섯이 함께 서천으로 부처님을 뵙고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에 주군께 특별히 여쭙오니, 그들이 통행증을 새로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하여 보내주시겠습니까?" 여왕은 이 보고를 듣고 마음속으

로 무척 기뻐하며 문무백관에게 말했다. "과인이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금병풍이 채색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옥거울이 밝은 빛을 발하더군요. 이는 분명 오늘 있을 경사의 징조로다." 여관들이 단지(丹墀) 아래에서 둘러 절하며 물었다. "주군, 어찌하여 그것이 오늘 경사의 징조가 되는 것이옵니까?" 여왕이 말했다. "저 동토에서 온 남자는 당나라 황제의 동생이다. 우리 나라에는 혼돈이 처음 열린 이래로 대대로 임금이 있었으나, 이토록 남자가 이곳에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행히 오늘 당나라 황제의 동생이 내려왔으니, 이는 하늘이 내려 보낸 것임이 틀림없다. 과인은 나라의 부귀를 다 바쳐 저분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왕후가 되어 그와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자손을 낳고 번창시켜 나라의 업을 영원히 이어가고자 한다. 이것이 어찌 오늘 경사의 징조가 아니겠느냐?" 여관들은 절하고 춤추며 여왕을 찬양했고, 모두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역승이 다시 아뢰었다. "주공의 말씀은 대대로 가문을 빛낼 좋은 방책입니다. 다만, 황제 동생분의 세 제자가 너무 흉악하게 생겨서 도저히 짝을 맞춰줄 만한 관상이 아닙니다."

여왕이 물었다. "경이 보기에 황제 동생의 모습이 어떠하며, 그 제자들은 어찌 그리 흉측하다는 말인가?"

역승이 대답했다. "황제 동생분은 용모가 당당하고 풍채가 늠름하시니, 참으로 대당 제국의 대장부이자 중화의 인물이라 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세 제자는 인상이 너무 사납고 흉측하여 마치 요괴처럼 생겼습니다."

여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제자들끼리 짝을 지어 보내고, 통행증 서류만 바꿔치기해서 서천으로 떠나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황제 동생만 내 곁에 남겨둔다면 무엇이 문제란 말이나?"

신하들이 모두 엎드려 아뢰었다. "주공의 말씀이 지극히 옳사옵니다. 저희도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맺는 일에는 반드시 중매인이 있어야 합니다. 예부터 이르기를, '인연의 맺어짐은 붉은 잎에 달려 있고, 부부의 인연은 월하노인이 붉은 줄로 묶어주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여왕이 명령했다. "경들의 말대로 하겠다. 태사를 중매인으로 삼고, 영양역의 역승을 주례자로 세워라. 먼저 역으로 가서 황제 동생에게 청혼을 하도록 해라. 그가 허락하면, 과인이 직접 가마를 타고 성 밖으로 나가 맞이하겠다."

태사와 역승은 명을 받들어 궁을 물러나왔다.

한편, 당삼장 일행이 역관에서 막 재(齋) 식사를 하려는데, 밖에서 사람이 들어와 보고했다. "당가 태사님과 저희 역의 역승 마님께서 오셨습니다." 당삼장이 물었다. "태사께서 오시다니, 무슨 뜻인가?" 저오능이 말했다. "아마도 여왕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려는 모양입니다." 손오공이 거들었다. "초대하는 게 아니라, 혼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겠지요." 당삼장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오공아, 만약 여왕께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억지로 혼인을 시키려 한다면 어찌해야 하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께서서는 그저 허락만 하십시오. 뒷일은 이 손오공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명의 여관이 일찍이 도착하여 장로에게 절을 올렸다. 장로가 하나하나 답례하며 말했다. "빈승은 출가한 몸인데, 무슨 덕이 있다고 감히 어른들께서 절을 하시겠습니까?" 태사는 장로의 모습이 늙름하고 기품 있는 것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생각했다. '우리 나라에 정말 큰 복이 왔구나. 이 남자라면 우리 여왕님의 남편이 되기에 충분하겠어.' 두 여관은 절을 마치고 곁에 서서 말했다. "어제(御弟) 어르신, 정말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당삼장이 물었다. "출가한 몸인 저에게 무슨 경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사가 몸을 굽히며 말했다. "이곳은 서량여국으로, 나라 안에 예로부터 남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어르신께서 이곳에 오셨으니, 신은 여왕님의 뜻을 받들어 특별히 혼인을 청하러 왔나이다." 당삼장이 말했다. "선재, 선재로다! 빈승은 홀몸으로 귀한 땅에 왔고, 곁에 아내나 자식도 없으며 오직 고집 센 제자 셋뿐인데, 어른께서 청하시는 혼인이 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역승이 말을 이었다. "소관이 방금 조정에 들어가 보고하니, 여왕님께서 매우 기뻐하며 말씀하시기를, 밤새 길몽을 꾸었다고 하셨습니다. 꿈에 금빛 병풍에서 찬란한 색채가 피어나고 옥거울에서 광명이 뻗어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어르신은 중화상국의 귀한 사내분이시니, 우리 여왕님께서도 나라의 부귀를 다 바쳐 어제 어르신을 데릴사위로 맞이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르신께서 남쪽을 등지고 임금의 자리에 앉으시면, 여왕님께서도 황후가 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에 태사에게 중매를 맡기고 소관에게 혼례를 주관하라 명하셨기에, 이렇게 특별히 혼인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당삼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태사가 다시 말했다. "대장부라면 때를 만났을 때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나라의 부귀를 걸고 데릴사위를 구하는 일은 천하에 흔치 않은 일입니다. 부디 어서 허

락하여 주시어, 저희가 보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장로는 더욱 어안이 빙빙하여 말을 잊지 못했다.

저오능이 곁에서 절굿공이 같은 주둥이를 쭉 내밀며 소리쳤다. "태사님, 가서 여왕님께 전하십시오. 우리 스승님은 오랫동안 수행하여 도를 깨우친 나한이시라, 당신 나라의 재물에도 마음이 없고 나라를 기울일 만한 미모에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어서 통행증부터 바꿔주시고 스승님을 서쪽으로 보내주십시오. 대신 저를 여기 남겨서 데릴사위로 삼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태사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감히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때 역승이 나서서 말했다. "비록 남자라지만 생김새가 너무 추하여 우리 여왕님의 뜻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자 저오능이 웃으며 대꾸했다. "참으로 융통성이 없으시군요. 예부터 이르기를, 굽은 버들로는 키(簾箕)를 만들고 가는 버들로는 뒷박(斗)을 만든다 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못생긴 사내를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손오공이 말했다. "이 어리석은 놈아, 함부로 지껄이지 마라. 스승님의 뜻에 따를 것이니, 갈 만하면 가고 멈춰야 하면 멈추는 것이다. 괜히 중매 일을 지체시키지 마라."

당삼장이 말했다. "오공아, 네 생각은 어떠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제 생각에는 스승님은 여기 남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부터 '천 리 밖 인연도 실로 이어진 듯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인연이 어디 있었습니까?"

당삼장이 말했다. "제자야, 우리가 여기서 부귀영화를 탐내면 누가 서천에 가서 불경을 구해오겠느냐? 자칫 우리 대당 제국의 황제 폐하의 명성을 더럽히는 일이 될 수도 있단다."

그러자 태사가 말했다. "황제 폐하의 동생이시여, 소신 감히 아뢰옵니다. 저희 여왕님의 뜻은 오로지 폐하의 동생분을 친척으로 맞이하고자 함입니다. 세 분 제자께서는 혼인 잔치에 참석하여 대접을 받으시고, 통행증을 새로 발급받아 서천으로 떠나시면 될 일입니다."

손오공이 끼어들며 말했다. "태사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는 곤란할 것 없습니다. 스승님은 기꺼이 이곳에 남아 여왕님의 남편이 되시게 하고, 저희는 어서 통행증이나 바꿔서 서쪽으로 보내주십시오. 나중에 경전을 다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이곳에 들러 부모님처럼 모신 여왕님께 인사를 드리고, 여비도 좀 챙겨서 대당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태사가 역승과 함께 손오공에게 예를 갖추며 말했다. "이 일을 성사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오능이 거들었다. "태사님,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허락했으니 일단 여왕님께 말씀드려 잔치부터 준비하게 하십시오. 저희가 시원하게 술 한잔할 수 있게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태사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곧바로 잔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승과 태사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이 기쁜 소식을 여왕에게 보고하러 돌아갔다.

한편, 당삼장이 손오공을 붙잡고 꾸짖었다. "이놈, 원숭이 녀석아! 나를 죽일 작정이냐?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여기서 혼인을 하라니, 그러면 너희 서천의 부처님을 어떻게 뵈겠느냐? 나는 죽어도 그런 짓은 못 한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안심하십시오. 제가 스승님의 성품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곳에 와서 이런 사람을 만났으니, 어쩔 수 없이 상대의 계책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당삼장이 물었다. "계책을 역이용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만약 스승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여왕은 통행증을 바꿔주지도 않고 우리를 보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왕이 마음이 독해져서 군사를 불러 스승님의 살점을 베어내 향주머니라도 만든다면, 우리에게 무슨 좋은 보답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요괴를 물리치는 신통력을 써서 해결하려 해도 문제입니다. 스승님도 아시다시피 저희의 손발은 무겁고 무기는 흉악하지 않습니까? 손을 좀 쓰다 보면 이 나라 사람들을 죄다 때려죽이게 될 것입니다. 여왕이 우리 길을 막는 것이 요괴나 괴물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한 나라의 백성일 뿐이지요. 게다가 스승님께서서는 평소 선하고 자비로운 분이라 길 위에서 단 하나의 목숨도 상하게 하지 않으려 하시는데, 만약 무고한 백성들을 무수히 죽이게 된다면 스승님의 마음이 어찌 견디시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선하지 못한 일입니다." 당삼장이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오공아, 네 말이 아주 옳다. 하지만 여왕이 나를 안으로 불러들여 부부의 예를 갖추려 한다면 어찌하겠느냐? 내가 어찌 원양(元陽)을 잃고 불가의 덕행을 망가뜨릴 수 있겠느냐? 참된 정기(眞精)를 흘려보내 우리 가르침의 인간

된 몸을 떨어뜨리면 어찌란 말이나?"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오늘 혼인을 허락하면, 여왕은 분명 황제에 버금가는 예우를 갖추어 가마를 보내 스승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스승님께서서는 사양하지 마시고, 여왕의 화려한 가마를 타고 보전에 올라 남쪽을 향해 앉으십시오. 그리고 여왕에게 어보와 인장을 가져오라 하여, 저희 형제들도 입궐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통행증에 인장을 찍고, 여왕에게 직접 서명까지 받아 저희에게 넘겨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연회를 베풀게 하여 여왕과 기쁨을 나누는 척하면서, 동시에 저희를 배웅하게 하십시오. 연회가 끝나면 다시 가마를 준비시켜 저희 세 사람을 성 밖으로 배웅하게 하고, 스승님은 다시 여왕 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여왕과 신하들이 기쁨에 취해 있으면, 우리를 막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해치려는 나쁜 마음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성 밖으로 나갔을 때, 스승님께서 가마에서 내리시면 사오정이 곁에서 모시게 하여 백룡마에 올라타게 하십시오. 그때 제가 정신법(定身法)을 써서 여왕과 신하들을 모두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뒤, 저희는 큰길을 따라 서쪽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 낮밤을 걸어간 뒤에 제가 주문을 외워 술법을 풀어주면, 그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성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왕의 목숨을 해치지 않아도 되고, 스승님의 원신(元神)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혼인으로 그물을 벗어나는(가친탈망假親脫網)' 계책이니, 어찌 일거양득의 묘책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당삼장은 이 말을 듣고서야 마치 술에서 깨어나고 꿈에서 막 깬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근심을 잊을 정도로 기뻐하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자의 식견이 참으로 높구나!" 네 사람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일을 의논하였다.

한편, 태사와 역승은 황제의 명을 기다리지도 않고 곧장 조정의 백옥 계단 앞까지 달려가 아뢰었다.

“주군, 꿈의 예시가 아주 정확합니다. 이제 곧 물과 물고기가 만나는 듯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왕은 구슬로 장식된 발을 건너 올리고 용상에서 내려왔다. 앵두 같은 입술을 열어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여왕은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아양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경이 어제(御弟)를 만나고 왔으니, 상황이 어떠한가?”

태사가 대답했다.

“저희가 역에 도착하여 어제를 뵙고 곧바로 혼인을 청하는 말을 올렸습니다. 어제께서는 처음에는 거절하며 핑계를 대셨으나, 다행히 큰 제자가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그는 스승을 우리 주군과 맺어주어, 스승이 남쪽을 다스리는 황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먼저 통행증의 내용을 바꾸어 세 사람이 서쪽으로 떠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경을 구해 돌아올 때, 다시 이곳에 들러 부모님을 뵙고 노잣돈을 받아 대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여왕이 웃으며 다시 물었다.

“어제께서 다른 말씀은 없으셨는가?”

태사가 아뢰었다.

“어제께서는 별다른 말씀 없이 우리 주군과 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그 둘째 제자라는 자가 먼저 잔치를 베풀고 술을 대접받아야 겠다고 합니다.”

여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명을 내려 광록시에서 연회를 준비하게 했다. 또한 한쪽에서는 커다란 가마를 준비하여 성 밖으로 나가 남편을 맞이하도록 했다. 여관들은 왕의 명을 받들어 궁전을 청소하고 연회장을 꾸몄다. 한쪽에서는 연회를 준비하느라 불이 나도록 서둘렀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마를 정비하느라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을 마쳤다. 서량여국이 비록 여인들의 나라라지만, 그 화려한 가마는 대당의 번영함에 뒤지지 않았다.

시로 이르면,

여섯 마리 용이 채색을 내뿜으며 수레를 밀어 올리고, 쌍봉이 상서로운 기운을 띠며 가마를 몰고 오네. 향기로운 내음은 사방에 가득하고, 상서로운 기운은 구름처럼 피어오르네. 금물고기와 옥패를 찬 관리들이 에워싸고, 보석으로 장식한 머리를 한 여인들이 줄을 잇네. 원앙이 그려진 부채가 가마를 가리고, 비취색 구슬 발에는 봉황 비녀의 그림자가 드리우네. 악기 소리는 아름답고 가락은 조화로우니, 기쁨의 물결은 하늘에 닿고, 즐거운 기운은 마음속에서 넘쳐나네. 화려한 비단 천막은 하늘을 뒤덮을 듯 흔들리고, 오색 깃발은 궁궐 계단에 빛나고 있네. 본래 이 땅에는 혼례가 없었으나, 오늘 여왕이 훌륭한 사내를 맞이하려 하네.

얼마 지나지 않아 화려한 가마가 성 밖으로 나와 영양역에 일찍 도착했다. 그때 누군가 당삼장 일행에게 보고했다.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당삼장은 세 제자와 함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대청으로 나가 마중을 나갔다. 여왕은 발을 걷고 가마에서 내리며 물었다. "저분이 바로 대당의 황제 동생이신가?" 태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역문 밖 향안 앞에 서 있는, 관복을 입은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왕은 봉황 같은 눈을 반짝이며 고운 눈썹을 모으고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과연 그 풍채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라. 시로 이르되, 풍채는 늠름하고 위엄이 넘치며, 용모는 흰칠하고 당당하구나. 은을 쌓은 듯 하얀 치아에, 붉은 입술은 네모반듯하게 자리 잡았네. 정수리는 평평하고 이마는 넓어 천창(天倉)이 가득하며, 수려한 눈매와 맑은 눈썹에 턱(地閣)은 길구나. 두 귀에 윤곽이 뚜렷하니 참으로 호걸이요, 온몸이 속되지 않으니 빼어난 사내로다. 아, 참으로 총명하고 풍류 넘치는 묘령의 미남자여, 서량의 아리따운 여인에게 딱 어울리는구나. 여왕은 당삼장의 모습에 마음이 설레고 흡족하니, 자신도 모르게 정욕이 솟구치고 애욕이 건잡을 수 없이 커졌다. 여왕은 앵두 같은 작은 입을 열어 외쳤다. "대당의 황제 동생이시여, 어서 오셔서 저와 부부의 인연을 맺지 않으시렵니까?" 그 말을 들은 당삼장은 얼굴이 붉어지고 귀까지 빨개져서, 부끄러운 나머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오능은 곁에서 입을 벌린 채 게슴츠레한 눈으로 여왕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과연 여왕의 모습은 하늘거리듯 아름다웠다. 시로 이르되, 눈썹은 푸른 깃털 같고 피부는 양기름처럼 매끄럽구나. 얼굴은 복숭아 꽃잎을 받친 듯하고 머리에는 금빛 봉황 실 같은 머리채가 쌓였

네. 가을 물결처럼 맑고 깊은 눈빛은 요염하고, 봄 죽순처럼 가늘고 고운 손은 교태로운 자태라. 비스듬히 드리운 붉은 비단은 화려하게 나부끼고, 높이 꽃은 비녀에는 구슬과 비취가 찬란히 빛나네. 왕소군(昭君)의 미모가 어떻다 한들, 진실로 서시(西施)보다 뛰어나구나. 버들 같은 허리를 살짝 펴니 금패옥이 울리고, 연꽃을 밟듯 가벼운 발걸음은 옥 같은 몸을 움직이네. 달 속의 향아(嫦娥)인들 여기 미치겠는가, 구천의 선녀인들 어찌 이와 같으랴. 궁중 단장의 정교함이 예사롭지 않으니, 참으로 서왕모(王母)가 요지에 내려온 듯하도다. 그 어리석은 저오능은 좋은 광경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입가에 침을 흘렸으며, 가슴속에서는 사슴이 뛰듯 심장이 요동쳤다. 순식간에 온몸의 힘이 쪽 빠지는데, 마치 눈사자가 불길 앞에 놓인 듯 저도 모르게 녹아내리는 모양새였다.

여왕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당삼장의 손을 덥석 붙잡았다. 그러고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달콤하게 말했다. “어제(御弟) 오라버니, 어서 용차에 오르세요. 저와 함께 금란보전으로 가서 부부의 인연을 맺도록 해요.” 당삼장은 너무 놀라 몸을 떨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채, 마치 술에 취하거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옆에 있던 손오공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스승님, 너무 사양하지 마세요. 어서 사모님과 함께 가마에 오르시지요. 그사이 얼른 통행증을 바꿔놓고 저희는 경전을 구하러 떠나겠습니다.” 당삼장은 차마 대답도 못 하고 손오공의 옷자락을 두어 번 끌어내리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스승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부귀영화를 누릴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당삼장은 어쩔 도리가 없어 결국 여왕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여왕에게 다가가, 그녀의 고운 손을 잡고 함께 용차에 올라탔다.

여왕은 기쁨에 겨워 어서 부부가 되고 싶어 했으나, 당삼장은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휩싸여 오로지 부처님께 빌 생각뿐이었다. 한 사람은 신방에서 촛불을 밝히고 원앙처럼 다정한 부부가 되기를 꿈꿨고, 다른 한 사람은 서천 영산에 가서 부처님을 뵈기를 간절히 바랐다. 여왕은 진심이었으나 성승은 가식적이었다. 여왕은 진심으로 평생을 함께할 화목한 삶을 꿈꿨고, 성승은 마음을 숨긴 채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할 생각이었다. 한 사람은 남자를 만난 기쁨에 낮이라도 당장 부부의 연을 맺고 싶어 했으나, 다른 한 사람은 여인의 유혹을 만날까 두려워 한시라도 빨리 이 곤경에서 벗어나 뇌음사로 가기만을 바랐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가마에 올랐으나, 당삼장의 마음이 여왕과 같을 리 만무했다.

문무 관리들은 주군과 스님이 함께 봉련(여왕의 가마)에 올라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보고는, 저마다 입가에 미소를 띠며 의례를 갖추어 행렬을 성안으로 인도했다. 손오공은 사오정에게 짐을 지게 하고 백룡마를 끌게 하여, 대가(여왕의 가마)의 뒤를 따라 나란히 행진했다. 한편 저오능은 앞질러 뛰어다니다가 먼저 오봉루 앞에 도착하더니 큰 소리로 떠들었다.

"이야, 정말 편하고 좋구나! 이래서 안 되면 저래서 안 된다더니, 그냥 혼례 잔치나 치르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게 최고겠어!"

저오능이 떠드는 바람에 의례를 인도하던 여관들은 모두 가마 곁으로 돌아가 보고했다.

"주군, 저 입이 크고 귀가 커다란 자가 오봉루 앞에서 잔치 음식 좀 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왕은 보고를 듣고는 당삼장의 어깨에 기대어 꽃 같은 뺨을 맞대고는, 예쁜 목소리로 물었다.

"어제(御弟) 오라버니, 저 입이 크고 귀가 커다란 사람이 오라버니의 제자인가요?"

당삼장이 대답했다.

"제 둘째 제자입니다. 놈은 타고난 식성이 워낙 좋아 평생 먹을 것만 밝히니, 우선 술과 음식을 좀 챙겨주어야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왕이 급히 물었다.

"광록사에서 연회를 준비한 것이 다 되었나요?"

여관이 보고했다.

"이미 다 준비되었습니다. 동각에 고기 음식과 채식 음식을 두 종류로 차려 놓았습니다."

여왕이 다시 물었다.

"어찌하여 두 종류나 준비했느냐?"

여관이 답했다.

"대당 황제의 동생분과 제자분들이 평소에 채식을 하실까 염려되어, 고기 음식과 채식을 모두 마련하였습니다."

여왕은 다시 싱글벙글 웃으며 당삼장의 어깨에 기대어 물었다.

"어제 오라버니, 오라버니는 고기 음식을 드시나요, 아니면 채식을 드시나요?"

당삼장이 말했다.

"빈승은 채식을 합니다만, 술은 아직 끊지 못했습니다. 채소로 만든 술을 몇 잔 준비하여 제 둘째 제자와 함께 먹어야겠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태사가 아뢰었다. "동각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오늘처럼 길하고 좋은 날에 어제(御弟)님과 혼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열리는 상서로운 날이니, 어제께서 보전(寶殿)에 올라 남쪽을 향해 앉으시고 연호를 바꾸어 즉위하시옵소서."

여왕은 크게 기뻐하며 장로의 손을 잡고 용차에서 내려 단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신선이 연주하는 음악이 바람을 타고 누각 아래로 흐르고, 성문 사이로 비취색 가마가 다가온다. 봉황의 문은 활짝 열려 빛이 은은하게 감돌고, 황궁의 길은 비단처럼 화려하게 늘어서 있구나. 기린전 안에는 향로의 연기가 아롱아롱 피어오르고, 공작 병풍 곁으로는 방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정자와 누각은 드높아 마치 상국(上國) 같고, 옥으로 된 대궐과 금빛 말들은 더욱 기이하고 아름답구나.

동각 아래에 이르니, 아름다운 악기 소리와 노랫소리가 한 무더기로 들려오고, 곱게 화장한 여인들이 두 줄로 늘어서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중앙 대당에는 두 종류의 성대한 연회가 차려져 있었는데, 왼쪽 상석에는 채식 연회가, 오른쪽 상석에는 고기 연회가 마련되어 있었고, 아래쪽 두 길목에는 모두 단독 좌석들이 놓여 있었다.

여왕은 옷소매를 여미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옥잔을 받쳐 든 채 다가와 자리를 권했다. 그때 손오공이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저희 스승님과 제자들은 모두 채식을 합니다. 먼저 스승님을 왼쪽 채식석에 모시고, 그다음 세 자리를 돌려가며 좌우로 나누어 앉아야 저희 형제들도 편히 앉을 수 있습니다.”

태사가 반가워하며 맛장구를 쳤다. “웁으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웁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부자 관계와 같으니 나란히 앉아서는 안 됩니다.”

여인 관리들이 서둘러 좌석을 조정했다. 여왕은 한 사람 한 사람 잔을 건네며 세 제자의 자리를 정해주었다. 손오공은 당삼장에게 눈짓을 보내 답례를 하라고 일렀다. 당삼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옥잔을 들고 여왕과 함께 잔을 나누며 자리에 앉았다. 문무백관들이 황제의 은혜에 절하며 감사를 표한 뒤, 각자의 품계에 따라 양옆으로 나뉘어 앉자 비로소 음악이 멈추고 술이 권해졌다.

저오능은 앞뒤 가릴 것 없이 그저 배를 채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 옥설과 쌀밥, 찌떡, 달콤한 떡은 물론이고 버섯과 송이버섯, 죽순, 목이버섯, 금잔화, 석화채, 김, 순무, 토란, 무, 마, 황

정까지 가리지 않고 몽땅 먹어 치워 그릇을 싹 비워버렸다. 술을 대여
섯 잔쯤 들이켠 저오능이 입을 크게 벌리며 외쳤다.

"자, 술을 더 가져오너라! 커다란 잔을 내오너라! 몇 잔 더 마시고 나
서 각자 할 일을 하자고!"

사오정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이렇게 좋은 잔칫상을 두고 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리숙한 저오능이 웃으며 말했다.

"옛말에 이르기를 '활 만드는 사람은 활을 만들고, 화살 만드는 사람
은 화살을 만든다'고 했네. 우리도 지금 각자 할 일이 있지 않은가. 누
구는 청혼을 하고, 누구는 혼인을 하고, 누구는 불경을 구하러 가고,
누구는 길을 떠나야지. 술만 탐하다가 일을 그르치면 안 되네. 어서 빨
리 통행증 서류나 처리하자고. 장수가 말에서 내리지 않듯, 각자 앞길
을 향해 달려가야지!"

여왕이 이 말을 듣고 즉시 큰 잔을 가져오라 명했다. 시종들이 서둘
러 앵무새 모양 잔, 물떼새 모양 국자, 금그릇, 은그릇, 유리잔, 수정
대접, 봉래사 모양 사발, 호박 종 등을 가져와 옥처럼 맑은 술과 향기로
운 술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일행은 정말로 술을 한 차례씩 시원하게
들이켰다.

당삼장이 몸을 일으켜 여왕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폐하, 성대한
대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술은 이미 충분하니, 이제 보전으로 드시

어 관문 서류를 바꿔 주십시오. 날이 밝으면 서둘러 이 세 사람을 성 밖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여왕은 그 말에 따라 장로를 데리고 연회를 끝낸 뒤 금란보전으로 올라가, 장로에게 즉위할 것을 권했다. 그러자 당삼장이 말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방금 태사께서 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상서로운 기운이 도는 때가 되어야 빈승이 감히 자리에 앉아 임금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선 관문 서류에 인장부터 찍어 이들을 보내주십시오.”

여왕은 그 말대로 다시 용상에 앉더니, 금으로 만든 의자 하나를 가져와 용상 왼편에 두고 당삼장에게 앉으라고 청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통관문첩을 가져오라고 일렀다. 손오공이 사오정에게 짐을 풀게 하여 관문 서류를 꺼내오게 했다. 손오공은 두 손으로 정중히 서류를 받들어 올렸다.

여왕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위에는 대당 황제의 보인 아홉 개가 찍혀 있고, 아래에는 보상국, 오계국, 차지국의 국인이 찍혀 있었다. 여왕은 서류를 다 보고는 아양 섞인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어제 동생님, 성이 또 진 씨인가요?”

당삼장이 대답했다. “속세에서의 성은 진 씨이나, 법명은 현장입니다. 대당 황제 폐하의 성은이 깊어 저를 동생처럼 여기시어, 성을 당 씨로 내려주셨습니다.”

여왕이 물었다. “그런데 왜 관문 서류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없나요?”

당삼장이 말했다. “이 세 명은 고집불통인 아이들로, 대당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왕이 다시 물었다. “대당의 백성도 아닌데, 어찌하여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당삼장이 설명했다. “첫째 제자는 동승신주 오래국 출신이고, 둘째는 서우하주 오스장 출신이며, 셋째는 유사하 출신입니다. 세 사람 모두 하늘의 법도를 어긴 죄를 지었으나, 남해 관음보살님께서 그 고통에서 구해 주시니 선한 마음으로 귀의하여 죄를 씻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저를 보호하며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에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 길 위에서 거둔 이들이라 서류에 법명을 적지 않았습니다.”

여왕이 말했다. “그럼 내가 직접 그들의 법명을 적어 넣어 줄까요?”

당삼장이 대답했다. “폐하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왕은 즉시 먹과 붓을 가져오게 하여, 향기로운 먹을 진하게 갈고 붓끝을 축축이 적시게 했다. 그리고는 서류 뒷면에 손오공, 저오능, 사오정 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 후 어인을 꺼내어 반듯하게 찍고, 자신의 친필 서명까지 남겨 아래로 전달하게 했다. 손오공이 서류를 받아 사오정에게 짐을 꾸리게 했다.

여왕은 금과 은을 한 쟁반 가득 담아 내어주며 용상에서 내려와 손오공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대들 세 사람이 이것을 여비로 삼아 내일 아침 서천으로 떠나시오. 나중에 경전을 다 가져오면 과인이 더 큰 보

답을 하겠소.” 손오공이 대답했다. “저희 같은 수행자는 금이나 은을 받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알아서 구걸하며 지낼 것입니다.” 여왕은 그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비단 열 필을 꺼내 손오공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대들은 길을 떠나는 걸음이 급하여 옷을 지어 입을 겨를이 없을 터이니, 이것으로 길 위에서 추위를 막을 옷이라도 지어 입으시오.”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수행자는 비단을 입을 수 없습니다. 몸을 가릴 평범한 옷이 따로 있습니다.” 여왕은 그가 끝내 받지 않자, “쌀 세 되를 가져가서 가는 길에 한 끼 식사로 삼으시오”라고 일렀다. 저오능은 ‘밥’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덩석 받아 짐 꾸러미 사이에 챙겨 넣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보게 형제, 짐이 이미 무거운데 쌀까지 짊어질 기운이 있겠나?” 저오능이 웃으며 대답했다. “네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구나. 쌀은 먹으면 없어지는 물건이라 딱 한 끼만 먹으면 끝나는 걸!” 그러고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은혜에 감사했다.

당삼장이 말했다. “폐하, 부디 저를 도와 저 세 제자를 성 밖으로 배웅해 주십시오. 제가 아이들에게 서천으로 가는 길을 잘 가라고 몇 마디 당부만 하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폐하와 함께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리며 아무런 걱정이나 미련 없이 폐하를 온전히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왕은 이것이 계책인 줄도 모르고 즉시 명령을 내려 가마를 준비하게 했다. 그러고는 당삼장과 나란히 앉아 화려한 봉황 가마에 몸을 싣고 서쪽 성문을 나섰다.

성 안의 사람들은 모두 잔에 맑은 물을 채우고 향로에 향을 피우며 두 가지를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나는 여왕의 화려한 가마를 보

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황제의 동생인 당삼장의 용모를 보는 것이었다. 성안에는 나이 든 이도, 어린 이도 없이 온통 곱고 예쁜 얼굴을 한 여인들과 머리를 아름답게 올린 여인들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왕의 가마는 성을 빠져나와 서쪽 관문 밖으로 향했다.

손오공, 저오능, 사오정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대열을 가지런히 정비하더니, 여왕의 가마를 향해 성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여왕께서는 멀리까지 배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이대로 작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당삼장도 천천히 수레를 멈추고 여왕을 향해 포권하며 말했다. “폐하께서는 이만 돌아가십시오. 빈승은 이제 경을 구하러 떠나야겠습니다.”

여왕은 그 말을 듣고는 안색이 하얗게 질려 당삼장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했다. “어제(御弟) 오라버니, 저는 이 나라의 모든 부귀영화를 바쳐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내일이면 당신이 보위에 올라 임금이 되시고, 저는 그대의 왕비가 되려 하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저오능이 갑자기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다. 입을 이리저리 비틀고 귀를 흔들며 가마 앞으로 돌진하더니 소리쳤다. “우리 스님과 당신 같은 분칠한 해골이 무슨 부부란 말입니까? 우리 스승님을 당장 놓아주소!”

여왕은 저오능이 꼴사납게 행패를 부리는 모습에 혼비백산하여 가마 안으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 틈을 타 사오정이 인파 속에서 당삼장을 낚아채듯 데리고 나와 말에 태웠다.

그때 길가에서 갑자기 한 여인이 튀어나오더니 소리쳤다. "당나라 황제님의 동생이시여,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십니까? 저와 함께 즐거운 풍류를 즐기러 가세요!"

사오정이 욕을 하며 외쳤다. "무지한 요괴 놈 같으니!" 그러고는 보주를 쥔 지팡이를 휘둘러 머리 위로 내리쳤다. 하지만 그 여인은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더니,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당삼장을 휩쓸어 가버렸다.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니, 그가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아! 과연 시로 이르기를, "유혹의 그물을 간신히 벗어났더니, 이번에는 풍월의 마귀를 만났구나."

결국 그 여인이 사람인지 요괴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승님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5회 — 색욕과 음란한 유희가 당삼장을 흔들고, 성품을 바르게 닦아 불괴의 몸을 이루다

色邪淫戲唐三藏 性正修持不壞身

한편, 손오공과 저팔계가 막 그 여인들을 혼내주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오정이 소란을 피우며 외쳤다. 급히 뒤를 돌아보니 당삼장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있었다.

손오공이 물었다. "어떤 놈이 스승님을 낚아챈 것이냐?"

사오정이 대답했다. "어떤 여자가 회오리바람을 일으켜 스승님을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휘파람을 불며 구름 위로 훌쩍 뛰어올랐다. 그리고 손을 햇빛 가리개처럼 이마에 얹고 사방을 살폈다. 그러자 회색 먼지가 구름처럼 일렁이며 북서쪽 방향으로 거세게 몰려가는 것이 보였다. 손오공이 급히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형제들아, 어서 구름을 타고 나를 따라 스승님을 구하러 가자!"

저팔계와 사오정은 즉시 짐을 말에 실은 뒤,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뛰어올라 손오공을 뒤쫓았다.

서량국의 임금과 신하들, 그리고 여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먼지투성이가 된 바닥에 엎드려 말했다. "대낮에 하늘로 승천하는 나한이셨으니, 우리 주군께서는 부디 놀라거나 의심하지 마옵소서. 당나라 황제 동생분 또한 도를 닦으신 선승이신데, 저희가 눈이 멀어 중원의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된 걱정만 했나이다. 주군께서는 어서 수레를 타고 궁으로 돌아가시옵소서." 여왕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고, 여러 관리들도 모두 함께 궁으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기로 한다.)

한편, 손오공 형제 세 사람은 구름을 밟고 안개를 헤치며 회오리바람이 불어온 방향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갔다. 어느 높은 산에 이르자 먼지도 가라앉고 바람도 잦아들어, 요괴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세 사람이 구름에서 내려와 길을 찾아 헤매던 중, 문득 한쪽 벽면이 푸른 돌로 빛나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마치 병풍처럼 생겼다. 세 사람이 말을 끌고 돌병풍을 돌아가 보니, 그 뒤에 석문 두 짝이 나타났다. 문 위에는 '독적산 비파동'이라는 여섯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팔계가 덩석 앞으로 나서더니 쇠갈퀴를 휘둘러 문을 부수려 했다. 그러자 손오공이 급히 말리며 말했다.

"이보게, 서두르지 마라! 우리가 회오리바람을 따라 여기까지 단숨에 달려왔는데, 방금 이 문을 발견했으니 안이 어떤 상태인지 아직 알 수가 없지 않느냐. 만약 이 문이 요괴의 함정이라면 괜히 적의 눈에 띄어 화를 자초할 뿐이다. 너희 둘은 일단 말을 끌고 다시 돌병풍 앞으로 가서 잠시 기다려라. 내가 먼저 들어가서 안을 살펴보고 적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게 좋겠다."

이 말을 들은 사오정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역시 형님은 무모하게 덤비지 않고 세심하게 살피시는군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사오정과 저팔계는 말을 끌고 다시 뒤로 물러났다.

손오공이神通력을 발휘하여 주문을 외우며 몸을 흔드니, 정말이지 가볍고 날렵하게 꿀벌 한 마리로 변신했다. 그 모습이 이러하니,

시로 이르되, 날개는 얇아 바람 따라 부드럽고 허리는 가늘어 햇살 아래 비치네. 입은 달콤하여 꽃술을 찾고 꼬리는 날카로워 두꺼비를 잘 잡는구나. 꿀 만드는 공이 어찌 가볍다 하겠는가 관아에 들 듯 스스로 겸손히 예를 갖추네. 이제 묘책을 써서 처마 밑 문틈으로 날아 춤추듯 들어가노라.

손오공은 문틈 사이로 파고들어 두 겹의 문을 지나 안으로 날아 들어갔다. 그러자 정가운데 꽃 정자 위에 한 여요가 단정히 앉아 있고, 그 좌우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를 양 갈래로 묶은 어린 계집아이들이 모여 무엇인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손오공은 살금살금 날

아 올라가 꽃 정자 격자에 내려앉은 뒤 귀를 기울였다. 그때 머리를 쌍상투로 묶고 더벅머리를 한 여인 둘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면식(麵食) 쟁반을 받쳐 들고 정자로 올라오며 말했다.

"마님, 한 쟁반은 사람 고기 소를 넣은 고기 만두이고, 한 쟁반은 팔소를 넣은 채소 만두입니다."

그러자 여요가 웃으며 말했다.

"얘들아, 당나라 황제의 동생(御弟)을 부축해 오너라."

그러자 화려한 옷을 입은 계집아이들이 뒷방으로 가서 당삼장을 부축해 나왔다. 당삼장은 얼굴은 누렇게 뜨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눈은 붉게 충혈된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를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손오공이 탄식하며 말했다.

"스승님이 독에 중독되셨구나!"

요괴가 정자 아래로 내려오니, 봄파처럼 가늘고 고운 열 손가락이 드러났다. 요괴는 당삼장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어제(御弟)님,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이곳이 비록 서량 여인국의 궁전처럼 부유하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아주 한가롭고 자유로워 불경을 읽으며 염불하기에는 딱 좋습니다. 저와 도반(道伴)이 되어 함께 지내신다면, 참으로 백 년 동안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당삼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요괴가 다시 말했다.

"너무 번뇌하지 마세요. 여인국에서 잔치에 참석하셨을 때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한 걸 알고 있어요. 여기 고기 만두와 채소 만두를 두 접시 준비했으니, 우선 드시면서 놀란 마음을 좀 가라앉히세요."

당삼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말도 하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아야겠다. 이 요괴는 여왕과는 다르구나. 여왕은 사람의 몸이라 행동거지에 예의가 있었지만, 이 요괴는 요사한 신령이니 나를 해칠지도 모르겠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내 제자 셋이 내가 이곳에 갇힌 줄도 모르고 있을 텐데, 만약 나를 해치기라도 한다면 목숨을 잃어도 억울하지 않겠는가?'

속으로 고민하며 대책을 세워보았으나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당삼장은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고기 것은 무엇이고, 소(素)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괴가 대답했다.

"고기 것은 사람 고기 소를 넣은 만두이고, 소한 것은 팔소를 넣은 만두랍니다."

당삼장이 말했다.

"빈승은 소한 것을 먹겠습니다."

요괴가 웃으며 말했다.

"얘야, 따뜻한 차를 가져와서 너희 집 어르신께 채소 만두를 대접해 드리거라."

그러자 어린 계집아이가 향긋한 차 한 잔을 받쳐 들고 와 당삼장 앞에 놓았다. 요괴는 채소 만두 하나를 쪼개어 당삼장에게 건넸고, 당삼장은 고기 만두 하나를 통째로 요괴에게 건네주었다.

요괴가 웃으며 물었다.

"어제(御弟)님, 어찌하여 저에게는 쪼개 주지 않으시나요?"

당삼장이 합장하며 말했다.

"저는 출가한 몸이라, 감히 고기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요괴가 말했다.

"출가한 몸이라 고기를 못 드신다면, 어찌 지난번 자모하 강가에 서는 물을 그리 잘 드시고, 오늘은 또 팔소 만두를 그리 잘 드시는 건가요?"

당삼장이 대답했다.

"물이 높으면 배는 빨리 가고, 모래가 깊으면 말은 더디게 가는 법이지요."

손오공은 격자 틈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말을 주고받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혹여나 스승님이 참된 본성을 잃을까 걱정되어 참지 못하고

본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철봉을 빼들며 호통을 쳤다. "이 무례한 요괴 놈아!"

그 모습을 본 여요는 입에서 연기 같은 빛을 한 줄기 뿜어 꽃 정자를 덮어버리더니 명령했다. "애들아, 어제(御弟)를 거둬들여라!"

그러고는 세 갈래로 된 강철 삼지창을 들고 정자 문밖으로 뛰어나오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건방진 원숭이 놈! 감히 내 집에 몰래 들어와 내 얼굴을 훑쳐보다니! 어디 도망가느냐, 이 할멈의 창 맛을 좀 봐라!"

손오공은 철봉으로 창을 막아내며 싸우다 뒤로 물러났고, 두 사람은 동굴 밖으로 튀어나왔다. 저팔계와 사오정은 석병 앞에서 기다리다가 두 사람이 다투며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당황한 저팔계가 백마를 끌고 오며 말했다. "사오정, 너는 짐과 말만 잘 지키고 있어라. 이 몸이 가서 좀 거들어 주마."

이 멍청이(저팔계)는 양손에 쇠스랑을 치켜들고 앞으로 달려 나가며 외쳤다. "사형은 뒤로 물러나세요! 이 천한 요괴는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여요는 저팔계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다시 수단을 부렸다. 크게 소리를 한 번 지르니 코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오고 입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몸을 한 번 부르르 떨더니 세 갈래 삼지창을 휘두르며 맞받아 달려들었다. 여요의 손이 몇 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몰아붙였다. 손오공과 저팔계가 양옆에서 공격을 막아 세웠다.

여요가 말했다. "손오공, 네놈은 앞뒤를 가릴 줄 모르는구나. 나는 너를 알아보지만 너는 나를 모르지 않느냐? 네가 말하는 뇌음사의 여래 부처님조차 나를 두려워하신다. 너희 같은 털북숭이 놈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느냐? 모두 덤벼라, 하나하나 낚날이 상대해 주마!"

이 싸움의 기세를 시로 이르되,

여요는 위세가 드높고, 원숭이 왕은 기개가 넘치네. 천봉원수는 공을 다투어, 쇠스랑을 어지러이 휘두르며 능력을 뽐내려 하네. 한쪽은 손이 많아 창과 연기가 휘몰아치고, 두 쪽은 성미가 급해 무기와 안개가 뒤섞이네. 요괴는 짝을 찾으려 애쓰나, 스님들은 정기를 뺏길 리 없으니, 음과 양이 맞지 않아 서로 맞서 싸우며, 각자 솜씨를 겨루며 다투네. 음은 고요히 기운을 기르려 하나 움직임이 일고, 양은 기운을 거두어 지키려 하나 맑음을 사랑하네. 이로 인해 양쪽 모두 화목함이 없으니, 창과 쇠스랑, 철봉이 승부를 겨루는구나. 철봉도 힘이 세고 쇠스랑 또한 날카로우니, 여요의 강철 창과 팽팽히 맞서네. 독적산 앞에서도 서로 물러섬이 없고, 비파동 밖에서도 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네. 한쪽은 당승이 짝을 얻기를 바라나, 두 제자는 반드시 스님을 따라 진경을 구하리라. 천지를 뒤흔들며 싸우니,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도 자리를 바꾸는구나.

세 사람이 한참 동안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그때 여요가 몸을 휙 날리더니 '도마독(倒馬毒)'이라는 기술을 써서 손오공의 머리카락을 한 번 찢어버렸다. 손오공이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아파라!"

손오공은 통증을 참지 못하고 패하여 달아났고, 상황이 좋지 않음을 느낀 저팔계도 쇠스랑을 끌며 뒤로 물러났다. 승리를 거둔 여요는 강철 삼지창을 거두어들였다.

손오공은 머리를 감싸 쥐고 미간을 찌푸린 채 괴로운 표정으로 "큰 일이야, 정말 큰일이라고!"라며 소리쳤다. 저팔계가 다가와 물었다. "형님, 한창 잘 싸우고 계시더니 왜 갑자기 울상을 지으며 도망쳐 오시는 겁니까?" 손오공은 머리를 붙잡고 "아이고, 아파라, 아파!"라며 비명만 질렀다. 사오정이 말했다. "머리에 풍이 오신 것 아닙니까?" 손오공이 펄쩍 뛰며 대답했다. "아니야, 아니라고!" 저팔계가 다시 물었다. "형님, 다치신 데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머리를 아파하세요?" 손오공이 끔끔거리며 말했다. "이건 정말 큰일이야. 그놈이랑 한창 싸우고 있는데, 내가 그놈의 창술을 깨뜨리자마자 갑자기 몸을 휙 날리더니 무슨 무기인지 모를 걸로 내 머리를 쿡 찌르는 게 아니겠어? 그 뒤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버티겠기에 이리 도망쳐 온 거야."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평소에는 머리가 아주 단단하게 단련되었다고 그렇게 큰소리를 치시더니, 고작 그 한 방에 이렇게 당하시다니요?" 손오공이 대꾸했다. "말도 마라. 내 머리는 천계의 복숭아와 선주를 훔쳐 먹고, 태상노군의 금단을 먹고 천궁을 뒤엎었을 때도 멀쩡했던 말이다. 그때 옥황제가 힘센 귀왕과 이십팔수 신선들을 보내 나를 붙잡아 두니, 신장들이 칼과 도끼, 망치와 검을 휘두르고 번개를 치고 불을 질러댔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어. 게다가 태상노군이 나를 팔괘로에 넣고 마흔아홉 날 동안 달구었을 때도 상처 하나 없었던 말이다. 그런데

오늘 저 여자가 쓰는 무기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 손오공의 머리를 이토록 아프게 만든단 말이나!"

사오정이 말했다. "손을 좀 치워 보세요. 혹시 어디 깨진 데는 없는지 좀 보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안 깨졌어, 안 깨졌다고." 저팔계가 농담조로 말했다. "제가 서량국에 가서 연고라도 하나 구해다 붙여 드릴까요?" 손오공이 쏘아붙였다. "깨진 것도 아닌데 연고를 어디다 붙인단 말이나?"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도 참, 저는 태어나서 아픈 적 한 번 없었는데, 형님은 머리에 종기라도 나신 모양이네요."

사오정이 말했다. "둘째 형님, 그만 좀 놀리십시오. 벌써 날이 저물었는데, 형님은 머리까지 다치시고 스승님은 생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손오공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스승님은 괜찮아. 내가 안으로 들어갈 때 꿀벌로 변신해서 날아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꽃정자에 앉아 있더구나. 잠시 뒤에 시녀 둘이 만두를 두 쟁반 받쳐 들고 오는데, 한 쟁반은 사람 고기 소를 넣은 고기 만두고, 다른 한 쟁반은 팔소를 넣은 채소 만두였어. 그러더니 어린 계집아이 둘이 스승님을 부축해 나와서 놀란 가슴을 달래라고 만두를 권하며, 스승님께 도반이 되어 달라고 꼬드기더라 말이지. 스승님은 처음에는 그 여자에게 대답도 안 하고 만두도 안 드셨어. 그런데 그 여자가 달콤한 말로 계속 유혹하니깐, 스승님이 어찌 된 영문인지 어느샌가 입을 열어 채소 것을 먹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러자 그 여자가 채소 만두 하나를 갈라 스승님께 건넸지. 스승님은 고기 만두를 통째로 그 여자에게 건넸어. 여자가 '어찌 쪼개지 않습니다니까?' 하자, 스승님이 '출가한 몸이라 감히 고기를 깨뜨릴 수 없

소'라고 하셨지. 그러자 여자가 말하기를, '고기를 못 드신다면서, 엇그제 자모하 강가에서는 물을 어찌 그리 잘 드시고, 오늘은 또 팔소 만두를 찾으십니까?'라고 하더구나. 스승님은 그 뜻을 몰라 '물이 높으면 배는 빨리 가고, 모래가 깊으면 말은 더디게 간다'라며 두어 마디로 대꾸하셨지. 내가 격자 너머로 듣고는 스승님이 혹시라도 본성을 잃으실까 겁이 나서, 얼른 원래 모습으로 나타나 여의봉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 그랬더니 그 여자도 신통력을 부려 연기와 안개를 뿜어내더니 '어제(御弟)를 거둬들여라!'라고 외치며 쇠삼지창을 휘둘러 나와 동굴 밖으로 싸우며 나온 거야."

사오정이 이 말을 듣고는 손가락을 깨물며 말했다. "그 천박한 요괴가 대체 어디서부터 우리를 따라온 건지, 어떻게 그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걸까요?"

저팔계가 말했다. "그렇게 해서야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황혼이든 한밤중이든 상관없이 당장 저 문 앞으로 가서 싸움을 걸어야죠. 시끌벅적하게 소란을 피워 저 요괴가 잠 한 숨 못 자게 만들어야 우리 스승님을 괴롭히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가겠다."

사오정이 거들었다. "싸우러 갈 필요 없습니다. 첫째로 형님 머리도 아프시니 쉬셔야 하고, 둘째로 우리 스승님은 참된 승려시라 결코 여색이나 허망한 욕심에 마음을 뺏겨 본성을 어지럽힐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일단 산비탈 아래 바람을 피할 만한 곳에 앉아 밤새 기운을 좀 차린 뒤, 날이 밝으면 다시 방법을 찾아봅시다."

결국 세 형제는 백룡마를 단단히 묶어두고 짐을 지킨 채, 산비탈 아래에서 밤을 지새우며 쉬기로 했다.

한편, 요괴는 흉악한 마음을 접고 다시 즐거운 기색을 띠며 명령했다. "애들아, 앞문과 뒷문을 모두 꼭 닫아라!" 또한 야경 도는 자를 둘 두어 행자를 막게 하고, 문소리가 나면 즉시 알리게 했다. 이어 다시 명령했다. "아이들아, 침실을 깨끗이 치우고 촛불을 밝히며 향을 피워라. 당나라 황제의 동생(御弟)을 모셔오너라. 내가 그와 정을 나누리라." 그러고는 뒤에서 당삼장을 부축해 데리고 나왔다. 요괴는 온갖 교태를 부리며 당삼장을 이끌고 말했다. "옛말에 '황금은 귀한 게 아니라,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진짜 값진 것'이라 했습니다. 어서 저와 부부처럼 즐겁게 놀아봅시다." 당삼장은 어금니를 꼭 깨문 채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가지 않으려 했으나 요괴의 마음이 변해 목숨을 해칠까 두려웠기에, 어쩔 수 없이 벌벌 떨며 그녀를 따라 향방(香房)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낮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을 뿐, 방 안에 어떤 침상과 휘장이 있는지, 어떤 화장 도구가 있는지조차 눈길을 주지 않았다. 요괴가 내뿜는 온갖 운우(雲雨)의 유혹의 말들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참으로 대단한 스님이었다.

시로 이르되, 악한 기색은 눈에 담지 않고, 음란한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네. 그녀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얼굴은 똥과 흙처럼 여기고, 금보석 같은 미모는 먼지처럼 여기는구나. 평생 오직 참선만을 사랑하며, 반 걸음도 불법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 어찌 여인의 향기를 아끼겠는가, 오직 마음을 닦는 데만 전념할 뿐이라.

요괴는 생기가 넘쳐 봄기운이 끝이 없었으나, 당삼장은 죽은 듯 고요하여 참선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한 명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옥 같았고, 한 명은 타다 남은 재나 마른 나무 같았다. 요괴는 화려한 이불을 펼치며 음탕한 흥취를 돋우었으나, 당삼장은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며 일편단심을 지켰다. 요괴는 가슴을 맞대고 다리를 포개어 난봉(鸞鳳)의 정을 나누려 했고, 당삼장은 벽을 마주 보고 산으로 돌아가 달마를 찾으려 했다. 요괴는 옷을 벗으며 매끄러운 살결을 뽐냈고, 당삼장은 옷깃을 여미며 거친 몸을 감추었다.

요괴가 말했다. "내 베개는 남고 이불은 한가한데 어찌 잠들지 않으십니까?" 당삼장이 말했다. "제 머리는 깎이고 옷도 다른데 어찌 함께 하겠습니까?" 요괴가 말했다. "저는 전조(前朝)의 유취취(柳翠翠)가 되고 싶군요." 당삼장이 말했다. "빈승은 (유취를 제도한) 월사리(月闍黎) 스님이 아니올시다." 요괴가 말했다. "저는 서시(西施)보다 아름답고 더 요염하합니다." 당삼장이 말했다. "월(越)나라 왕은 그 때문에 오래도록 주검을 묻었소." 요괴가 말했다. "황제 동생님, '꽃 아래서 죽더라도 귀신이 되어 풍류를 즐기겠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당삼장이 말했다. "제 몸의 참된 양기(元陽)는 지극한 보배이니, 어찌 당신 같은 분 바른 해골과 가볍게 나누겠습니까……."

두 사람이 실없는 말을 주고받으며 밤이 깊도록 이어졌으나, 당삼장은 끝내 마음 한 자락 흔들리지 않았다. 요괴가 이리저리 몸을 비비며 놓아주지 않아도, 스님은 그저 점잖게 버틸 뿐이었다. 한참을 끈질기게 매달리다 결국 화가 난 요괴가 소리쳤다. "애들아, 밧줄을 가져오나라!" 가련하게도, 그토록 사랑하던 이를 밧줄로 뽕뽕 묶어버리니 그 모

습이 마치 원숭이처럼 꼴이 말이 아니었다. 요괴는 그를 복도로 끌고 나가 은등불을 꺼버리고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은 더 할 말이 없었다.

어느덧 닭 울음소리가 세 번 울려 퍼졌다. 산비탈 아래에서 손오공이 몸을 굽히며 말했다.

"아까는 머리가 아파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저릿하지도 않네. 그저 조금 가렵기만 해."

저팔계가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가려우면 그놈한테 다시 한번 찔러달라고 하면 어때요?"

손오공이 침을 튼 뺨으며 말했다.

"됐다, 이놈아!"

그러자 저팔계가 또 웃으며 따라 했다.

"됐다, 이놈아! 우리 스승님은 밤새도록 낭랑낭(浪浪浪)하셨네!"

사오정이 끼어들었다.

"그만 좀 다투세요. 날이 밝았으니 어서 요괴를 잡으러 가야지요."

손오공이 말했다.

"형제여, 자네는 여기서 말이나 잘 지키고 있게. 꼼짝 말고 말이야. 저팔계,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어수룩한 녀석은 정신을 가다듬고 검은 비단 도포를 단정히 여민 뒤, 손오공을 따라 각자 무기를 챙겨 들고 산 절벽을 뛰어올라 곧장 석병 아래에 이르렀다.

손오공이 말했다. "너는 일단 여기 서서 기다려라. 저 괴물이 밤사이 에 스승님을 해쳤을까 걱정되니, 내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좀 살펴보고 오겠다. 만약 저 요괴의 꾀에 빠져 원양(元陽)을 잃으셨다면 스승님의 덕행이 참으로 허사가 되니 우리 모두 뿔뿔이 흩어지면 될 것이고, 만약 본성을 어지럽히지 않고 선심(禪心)이 흔들리지 않으셨다면 힘을 합쳐 요괴를 때려죽이고 스승님을 구해 다시 서천으로 가면 된다."

그러자 저팔계가 말했다. "참 답답하기도 하시오. 예부터 말하기를 '마른 생선이 어찌 고양이의 좋은 배개가 되겠는가?'라고 하지 않았소. 설령 그렇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요괴가 스승님을 몇 번쯤은 주물러댔을 게 분명하오."

손오공이 대꾸했다. "쓸데없이 의심하며 헛소리 말아라. 내가 가서 보고 오마."

손오공은 몸을 돌려 돌병풍 뒤로 가더니, 저팔계와 헤어진 뒤 다시 몸을 흔들어 꿀벌로 변신하여 문 안으로 날아 들어갔다. 문 안을 보니 하녀 둘이 목탁과 방울(梆鈴)을 베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다시 꽃 정자로 가보니, 요괴는 밤새도록 시달리느라 지쳤는지 모두 날이 밝은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손오공이 뒤쪽으로 날아갔을 때, 어렴풋이 당삼장의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 보니 복도 아래에 스승님이 사지가 한데 묶인 채(四馬攢蹄) 결박되어 있었다. 손오공은 살며시 당삼장의 머리에 내려앉으며 "스승님!" 하고 불렀다.

당삼장이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했다. "오공이나? 어서 내 목숨을 구해다오!"

손오공이 물었다. "어젯밤의 좋은 일은 어찌 되었습니까?"

당삼장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결코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어제 보았을 때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듯한 기색이 있더니, 어찌하여 오늘은 이토록 험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당삼장이 대답했다. "그 요괴가 밤새도록 나를 졸라댔으나, 나는 옷고름 하나 풀지 않고 몸 한 번 침상에 대지 않았다. 내가 끝내 따르지 않자 나를 이곳에 묶어버린 것이다. 너는 부디 나를 구해 경을 가지러 가게 해다오."

스승과 제자들이 한창 대화를 나누고 있자, 잠들어 있던 요괴가 깜짝 놀라 깨어났다. 요괴는 비록 모질게 굴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는 눈치였다. 그는 몸을 뒤척이다가 "경을 구하러 떠나야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부부 대접은커녕 남남이 되려 하면서, 대체 무슨 경을 구하러 가겠다는 말인가!"

손오공은 당황하여 스승을 뒤로한 채 급히 날갯짓하며 밖으로 날아갔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손오공이 크게 외쳤다.

"팔계야!"

돌담 뒤에 있던 저팔계가 고개를 내밀며 물었다.

"그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아직 안 됐어, 안 됐어. 스승님이 저 요괴의 수작에 넘어가지 않고 버티시다가, 화가 난 요괴가 스승님을 밧줄로 꼬꼬 묶어버렸지 뭐야. 스승님이 방금 전까지 그간의 사정을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 요괴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내가 급히 도망쳐 나온 거야."

저팔계가 물었다.

"스승님이 뭐라고 하시던데?"

손오공이 대답했다.

"옷자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몸은 아직 침상에 닿지도 않았다고 하시더구나."

그러자 저팔계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하하하, 좋아, 좋아! 역시 진짜 스님답구나! 어서 스승님을 구하러 가자!"

저팔계는 성미가 급하고 거칠어 앞뒤 가릴 것 없이 쇠갈퀴를 휘둘러 돌문을 힘껏 내리찍었다. 그러자 돌문이 우르르 무너지며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 나갔다. 그 소리에 방울을 베고 잠들어 있던 하녀들이 깜짝 놀라 둘째 문밖으로 달려 나오며 외쳤다.

"문 열어요! 어제 그 못생긴 남자 둘이 앞문을 부숴버렸어요!"

방문을 나서던 여요는 하녀 네다섯 명이 달려 들어와 보고하는 소리를 들었다.

"마님, 어제 그 못생긴 남자 둘이 또 와서 앞문을 부숴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여요가 급히 소리쳤다.

"애들아, 어서 물을 데워 얼굴을 씻고 화장을 단장해라!" 그리고 일렀다. "어제(御弟)를 묶인 밧줄째로 들어다 뒷방에 거두어 두어라. 내가 가서 저놈들을 쳐줄 테니."

이 요괴가 사납게 달려 나오더니, 세 갈래로 갈라진 삼지창을 치켜 들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 원숭이 놈! 이 멧돼지 놈! 크게 무식한 것들이 감히 어디라고 내 문을 부수느냐!"

그러자 저팔계가 맞받아쳤다. "이 음탕하고 천한 것 같으니라고! 감히 우리 스승님을 가둬두고도 도리어 큰소리를 쳐? 우리 스승님은 네가 남편 삼으려고 꼬여 온 분이니, 어서 모셔다 드리면 목숨만은 살려

주마. 만약 한 번이라도 '안 된다'는 소리를 내뱉는 날에는, 이 몸이 쇠갈퀴로 한바탕 후려쳐 산까지 무너뜨려 줄 테다!"

요괴는 말로 따질 겨를도 없이 몸을 부르르 떨며 다시 도술을 부렸다. 코와 입에서는 연기와 불길이 뿜어져 나왔고, 요괴는 강철 삼지창을 들어 저팔계를 찔렀다. 저팔계가 몸을 옆으로 비틀어 피하며 쇠갈퀴를 휘둘렀고, 손오공도 곁에서 철봉을 휘두르며 가세했다. 요괴가 다시 신통력을 부리니, 손이 몇 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좌우에서 정신 없이 막아댔다. 서너 합을 주고받는 사이, 무슨 무기에 맞았는지 저팔계의 입술이 찢리고 말았다. 저팔계는 쇠갈퀴를 끌며 입술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며 도망쳤다. 손오공도 저팔계가 당한 것이 못마땅했는지, 철봉을 헛으로 한 번 휘두르고는 패한 척 물러났다. 요괴는 승리했다며 안으로 들어가 부하들에게 명령해 돌덩이를 쌓아 앞문을 막아버렸다.

한편, 사오정이 언덕 앞에서 말을 풀어놓고 있는데, 어디선가 저팔계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 보니 저팔계가 입술을 부어올린 채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사오정이 물었다. "왜 그러느냐?" 저팔계가 멍청하게 신음하며 대답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파, 아파 죽겠네!" 말을 다 잊지도 못하고 있을 때 손오공도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어제는 나한테 머리에 종기가 생길 거라고 저주하더니, 오늘은 아주 입술이 부어오르는 병이라도 걸린 모양이구나." 저팔계는 계속해서 앓는 소리를 냈다. "참기 힘들다, 정말 힘들어. 너무 아파서 죽겠단 말이야, 정말 큰일이야."

세 사람이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한 할머니가 왼손에 푸른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남산 길을 따라 채소를 따러 오는 모습이 보였다. 사오정이 말했다. "형님, 저 할머니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제가 가서 무슨 요괴인지, 도대체 어떤 무기를 썼기에 사람을 저렇게 다치게 하는 건지 물어볼게요." 손오공이 말했다. "잠깐 기다려라. 내가 직접 가서 물어보마." 손오공이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 할머니의 머리 위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덮여 있고 좌우로는 향기로운 안개가 몸을 감싸고 있었다. 손오공은 그것을 알아보고 외쳤다. "형제들아, 어서 와서 절을 올리지 않고 무엇 하느냐! 저 할머니는 바로 보살님이시다." 저팔계는 통증을 참으며 황급히 절을 올렸고, 사오정은 말을 끌며 몸을 굽혔다. 손오공은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으며 외쳤다. "나무 대자대비 구구 구난 영감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그들이 신령한 빛(元光)을 알아보는 것을 보고 상서로운 구름을 밟고 공중으로 솟아올라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바로 물고기 바구니를 든 어람관음(魚籃觀音)의 모습이었다. 손오공이 공중까지 쫓아가 절을 올리며 말했다.

"보살님, 미처 마중 나가지 못한 제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스승님을 구하려고 애쓰는 동안 보살님께서 내려오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마장(魔障)을 만나 거두기가 너무나 어려워니, 부디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보살이 말했다.

"이 요괴는 보통내기가 아니다. 저 녀석이 들고 있는 세 갈래 창은 본래 타고난 두 개의 집게발이란다. 사람을 찔러 아프게 하는 것은 꼬리에 달린 갈고리인데, 이를 '도마독(倒馬毒)'이라 부르지. 본체는 전갈 요괴란다. 예전에 저 녀석이 뇌음사에서 부처님이 경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있다가, 여래께서 손으로 한 번 밀치신 것이 잘못이라, 저 녀석이 갈고리를 휘둘러 여래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한 번 찔렀단다. 여래께서도 그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 곧바로 금강(金剛)에게 저 녀석을 붙잡게 하셨지. 그런데 저 녀석이 지금 이곳에 와 있구나. 당삼장을 구하러 거든 다른 분을 따로 청해야만 하겠다. 나조차도 저 녀석에게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구나."

손오공이 다시 절을 하며 여쭙었다.

"보살님,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어느 분을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제자가 즉시 가서 모셔 오겠습니다."

보살이 대답했다.

"동천문 안 광명궁으로 가서 묘일성관(昴日星官)에게 청해야만 저 녀석을 항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말을 마친 보살은 한 줄기 금빛으로 변하더니 곧장 남해로 돌아갔다.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멈춰 서서 저팔계와 사오정에게 말했다. "형제들아, 안심해라. 스승님을 구할 구원군이 나타났다." 사오정이 물었다. "그게 누구란 말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관세음보살께서 묘

일성관을 찾아가 청하라고 일러주셨다. 내가 얼른 다녀오마.” 저팔계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툭툭거렸다. “형님, 그 성관이라는 분께 가서 진통제나 좀 달라고 해봐요.”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약 같은 건 필요 없다. 어제처럼 밤새 아프다 보면 금방 나을 테니까.” 사오정이 말했다. “괜한 수고 하지 말고 어서 다녀오십시오.”

손오공은 서둘러 근두운을 타고 날아 순식간에 동천문 밖에 도착했다. 그때 증장천왕이 나타나 정중히 예를 갖추며 물었다.

"대성,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당승을 모시고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에 요괴를 만나 고초를 겪고 있소. 그래서 광명궁에 있는 묘일성관을 만나 이야기를 좀 나누려 하오."

그러자 도, 장, 신, 등 네 명의 사대원수도 나타나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묘일성관을 찾아가 요괴를 물리치고 스승님을 구하려는 것이오."

네 원수가 대답했다.

"성관께서는 오늘 아침 옥제의 명을 받들어 관성대로 순찰을 나가셨습니다."

손오공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정말 그런 말이 있소?"

신천군이 말했다.

"저희가 성관을 모시고 함께 두우궁으로 내려갔는데, 어찌 감히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도천군이 덧붙였다.

"이미 시간이 꽤 흘렀으니 아마 돌아오고 계실 겁니다. 대성께서는 먼저 광명궁으로 가 보십시오. 만약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때 관성대로 가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손오공은 기뻐하며 그들과 작별했다. 광명궁 문 앞에 이르니 과연 아무도 없었다. 손오공은 다시 몸을 빼내어 도망치듯 가려는데, 벽 쪽을 보니 병사 한 줄이 늘어서 있고 그 뒤로 묘일성관이 나타났다. 묘일성관은 아직 조정에 나갈 때 입는 금실이 수놓아진 관복 차림이었다. 그의 모습은 이러했다.

관에는 오악의 금빛 광채가 서려 있고, 손에 든 홀은 산하의 옥빛처럼 영롱하다. 도포에는 칠성의 구름이 층층이 흐르고, 허리에는 팔극의 보배 고리가 빛난다. 차고 있는 패옥은 운율을 맞추듯 쟁그랑 소리를 내고, 바람을 가르는 모습은 방울 소리처럼 경쾌하다. 비취 깃털 부채를 펼치니 묘수성이 나타나고, 하늘의 향기가 문정 가득히 퍼져 나간다.

앞서 가던 병사가 광명궁 밖에 서 있는 손오공을 보고 급히 몸을 돌려 보고했다. "주군, 손오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묘일성관은 구름 안개를 거두고 관복을 정돈한 뒤, 좌우로 길을 터 병사들을 물리고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추며 물었다. "대성, 어찌 오셨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을 구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을 청하러 왔소." 묘일성관이 물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서량국 독적산 비파동에 계시오." 묘일성관이 다시 물었다. "그 동굴에 어떤 요괴가 있기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방금 관세음보살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전갈 요괴가 나타나는데 오직 선생만이 그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여 모시러 왔소." 묘일성관이 말했다. "본래 옥황제께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나, 대성께서 여기까지 오셨고 또 보살님께서 추천까지 해주셨으니 일을 지체할까 두렵습니다. 차를 대접할 겨를도 없이 우선 요괴를 잡으러 함께 가겠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 명을 받들도록 하지요."

손오공이 그 말을 듣자마자 곧장 동천문을 나서서 서량국까지 달려갔다. 독적산이 멀지 않은 곳에 보이기 시작하자 손오공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산이 바로 그곳입니다."

묘일성관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니, 일행은 석병 앞 산비탈 아래에 도착했다. 사오정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둘째 형님, 일어나세요. 큰형님이 성관님을 모셔 왔습니다."

그러자 저팔계는 여전히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몸에 병이 있어 인사를 드릴 수가 없구려."

묘일성관이 물었다. "그대는 수행하는 사람인데, 무슨 병이 있다는 말이오?"

저팔계가 대답했다. "아침에 그 요괴와 싸우다가 놈의 무기에 입술을 찔렸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아픕니다."

묘일성관이 말했다. "이리 가까이 오시오, 내가 좀 봐주리다."

그제야 저팔계는 손을 떼고는 입을 웅얼거리며 말했다. "제발 꼭 좀 고쳐 주시오. 다 나으면 은혜를 잊지 않겠소."

묘일성관이 손으로 저팔계의 입술을 살짝 만지더니 후 하고 입김을 불자,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졌다. 저팔계는 기뻐하며 절을 올렸다. "묘하구나! 정말 묘해!"

옆에서 보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성관님, 번거로우시겠지만 제 머리도 좀 만져 주십시오."

묘일성관이 물었다. "그대는 독에 당하지 않았는데 머리는 왜 만져 달라는 것이오?"

손오공이 말했다. "어제 독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니 통증은 가셨지만, 아직도 좀 근질근질하고 가려운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날씨가 흐려지면 다시 아플까 봐 걱정이니, 부디 좀 살펴 주십시오."

묘일성관이 정말로 손오공의 머리를 만져보고 입김을 불어주니, 남아 있던 독 기운이 사라지며 가렵던 느낌도 깨끗이 가라앉았다.

저팔계가 기세등등하게 외쳤다. "형님, 가서 저 발칙한 요괴를 혼내 줍시다!"

묘일성관이 맞장구를 쳤다. "그렇고말고, 그렇고말고. 그대들이 그놈을 불러내시오. 내가 단숨에 제압해 버릴 테니."

손오공과 저팔계는 산비탈을 뛰어 올라가 석병 뒤에 이르렀다. 저팔계는 "손이 갈고리처럼 생겼구나!"라며 욕설을 퍼붓더니, 쇠갈퀴를 휘둘러 동굴 문 앞에 쌓여 있던 돌덩이들을 헤치며 나아갔다. 첫 번째 문에 다다르자 다시 갈퀴를 휘둘러 두 번째 문까지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

안에 있던 작은 요괴가 당황하여 달려가 보고했다. "할머니, 그 못생긴 놈들이 또 두 번째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그때 요괴는 당삼장을 꺾어내어 함께 차를 마시며 식사를 하자고 권하던 중이었다. 문이 부서졌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요괴는 꽃 모양 정자에서 튀어나와 저팔계를 향해 갈퀴를 휘둘렀다. 저팔계는 쇠갈퀴를 들어 맞서 싸웠고, 곁에 있던 손오공도 여의봉을 휘두르며 가세했다. 요괴가 살기를 띠며 곁으로 다가와 독수를 쓰러 하자, 손오공과 저팔계는 요괴의 수법이 예상롭지 않음을 알아채고는 즉시 뒤돌아 달아났다.

요괴가 석병을 지나 달려가자, 손오공이 소리쳤다. "묘일성관은 어디 계시오?"

그러자 산비탈 위에 서 있던 성관이 본모습을 드러냈다. 알고 보니 머리에 뿔이 달린 커다란 수탉이었는데, 고개를 치켜든 키가 6~7척이

나 되었다. 수탉이 요괴를 향해 한 번 크게 울자, 요괴는 즉시 본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비파만큼 커다란 전갈 요괴였다. 성관이 다시 한번 울부짖자, 요괴는 온몸에 힘이 빠지며 산비탈 앞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이에 시로 이르되,

"벗은 꽃처럼 화려하고 목에는 붉은 술을 두른 듯하며, 발톱은 단단하고 부리는 길며 눈빛은 매섭구나. 기운차게 날뛰는 위엄은 오덕(五德)을 모두 갖추었고, 당당한 기세는 세 번 우는 웅장함을 뽐내네. 어찌 초가집에서 우는 평범한 새와 같으랴, 본래 하늘의 별로서 성스러운 이름을 떨치는 존재로다. 독한 전갈은 사람의 도리를 닮아 무엇하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참된 형체를 드러내는구나."

저팔계가 앞으로 나서며 요괴의 가슴과 등을 발로 짓밟으며 말했다. "이 못된 놈! 이번에는 '도마독'을 써먹을 수 없겠구나." 요괴가 미동도 하지 않자, 저팔계가 쇠갈퀴를 휘둘러 요괴를 마구 짓이겨 놓으니 마치 썩은 장처럼 뭉개져 버렸다. 성관은 다시 금빛을 모아 구름을 타고 떠나갔다. 손오공은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하늘을 향해 절하며 감사 인사를 올렸다. "은혜가 너무나 큼니다. 조만간 궁궐로 찾아뵙고 제대로 보답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인사를 마친 뒤 짐과 말을 챙겨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에서 크고 작은 시녀들이 양옆으로 무릎을 꿇고 절하며 말했다.

"나으리, 저희는 요괴가 아니라 모두 서량국 여인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은 이 요괴에게 홀려 끌려온 것이고요. 스승님께서서는 뒤쪽 방에서 앉아 울고 계십니다."

손오공이 그 말을 듣고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요괴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손오공은 곧장 뒤쪽으로 들어가 외쳤다.

"스승님!"

당삼장이 제자들이 모두 온 것을 보고는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착한 제자들이여, 너희에게 짐을 지게 했구나. 그 여인은 어떠하더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그녀는 원래 커다란 전갈 요괴였습니다. 다행히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아, 형님이 천궁에 올라가 묘일성관을 모셔와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이 못난 돼지가 그녀를 진흙탕에 처박아 버린 뒤에야 감히 안으로 들어와 스승님을 뵈 수 있었습니다."

당삼장은 고마운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일행은 채소 쌀과 국수를 찾아 음식을 차려 한 끼를 든든히 먹었다. 그리고 나서 요괴에게 끌려왔던 여인들을 산 아래로 내려보내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이어 불을 붙여 요괴가 머물던 방들을 남김없이 태워버렸다. 일행은 당삼장을 말에 태우고 큰길을 찾아 다시 서쪽으로 향했다.

시로 이르되,

"속세의 인연 끊어내어 색욕의 형상을 베어버리고, 금빛 바다를 밀어내어 참된 선의 마음을 깨닫도다."

결국 그들이 언제쯤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6회 — 신이 미쳐 초적을 처단하고, 도가 미혹되어 마음의 원숭이를 놓아주 다

神狂誅草寇 道迷放心猿

시로 이르되,

영혼의 거울에 아무것도 없어야 참으로 맑은 것이니, 고요한 가운데 단 한 줄기 잡념도 생겨나지 않아야 하리. 날뛰는 원숭이와 말 같은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놓아주지 말고, 정신을 삼가고 조심하여 거칠게 날뛰지 않도록 하라. 여섯 도둑을 물리치고 삼승의 도를 깨달아, 모든 인연을 끊어내고 스스로를 밝히면, 사악한 욕망은 영원히 사라져 참된 경지를 넘어서리니, 그리하여 서방 극락정토에서 즐거움을 누리리라.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삼장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죽을힘을 다해 굳건한 몸을 지켜냈고, 손오공 일행이 전갈 요괴를 때려죽여 비파동에서 구해준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 후 별다른 사건 없이 길을 가다 보니 어느덧 단양 절기가 찾아왔다.

산들바람은 들랜꽃 향기를 실어 나르고, 비 개인 뒤의 대나무는 서늘한 기운을 머금었구나. 산에는 쭉이 가득한데 켈 사람이 없고, 시냇가에는 창포꽃이 스스로 향기를 겨루네. 석류꽃은 곱고 화사하여 벌들이 좋아하고, 시냇가 버드나무 그들은 짙어 참새들이 날뛰는구나. 먼 길 가는 이가 어찌 떡을 다 챙기겠는가, 용선은 마땅히 먹라강을 기려야 하리.

스승과 제자들은 단양의 경치를 감상하며 한가로운 명절을 보내던 중, 갑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높은 산을 마주했다. 당삼장이 말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오공아, 앞에 산이 있구나. 또 요괴가 나타날지도 모르니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손오공 일행이 대답했다. "스승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부처님께 귀의하여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요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당삼장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채찍을 휘둘러 말을 재촉했다. 순식간에 산기슭에 올라 고개를 들어 살피보니, 과연 이러하였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구름에 닿을 듯 푸르고, 바위 절벽에는 가시덤불과 들덩굴이 엉켜 있구나. 만 길 낭떠러지는 아득히 높고, 천 층 깎아지른 절벽은 깊기만 하네. 푸른 이끼는 그늘진 바위를 덮었고, 오래된 나무와 회나무는 울창한 숲을 이루었구나. 깊은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어찌나 맑고 고운지 절로 시를 읊게 하네. 시냇물은 쏟아지는 옥처럼 흐르고, 길가에 떨어진 꽃들은 금을 쌓아놓은 듯하구나. 산세가 험하여 걷기조차 힘든데, 열 걸음을 가도 평탄한 곳이 한 뼘도 없네. 여우와 사슴은 짝을 지어 마주치고, 흰 사슴과 원숭이는 서로를 맞이하네. 갑자기 들려오는 호랑이 울음소리에 간담이 서늘하고, 학의 울음

소리는 하늘 끝까지 울려 퍼지네. 노란 매화와 붉은 살구는 먹기에 좋으나, 들풀과 이름 모를 꽃들은 그 이름을 알 길이 없구나.

네 사람이 산속으로 들어가 한참을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덧 산봉우리를 넘었다. 서쪽 비탈을 내려가니 비로소 평탄한 땅이 나타났다. 저 팔계는 기운을 내보냈다면 사오정에게 짐을 지우게 하고, 자신은 갈퀴를 양손에 든 채 앞장서서 말을 몰았다. 하지만 말은 저팔계가 무섭지도 않은지, 그가 멍청하게 채찍질을 해대는데도 느릿느릿 걸을 뿐이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보게, 왜 말을 몰아? 그냥 천천히 가게 내버려 두게나." 저팔계가 대답했다. "날이 저물어가요. 산을 넘어 하루 종일 걸었더니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좀 빨리 움직여서 근처 마을에 사람을 찾아 공양이라도 얻어먹읍시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말했다. "정 그렇다면 내가 말을 빨리 가게 해주마." 손오공이 금고봉을 휘두르며 크게 호통을 치자, 말이 고삐를 풀고 화살처럼 빠르게 평탄한 길을 따라 달려 나갔다.

"말이 저팔계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손오공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손오공은 오백 년 전 옥황제의 명을 받아 대라천의 어마감에서 말을 기르는 관직인 필마온을 지낸 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기를, 모든 말은 원숭이를 두려워한다고 한다.

삼장법사는 고삐를 당겨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그저 안장의 가죽 끈을 짊 붙잡은 채, 말이 한참을 제멋대로 내달리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십 리쯤 탁 트인 들판을 지나서야 비로소 말의 걸음이 느려지며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했다.

길을 가던 중 갑자기 징과 북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길 양옆에서 서른 명 남짓한 무리가 튀어나왔다. 그들은 창과 칼, 몽둥이를 들고 길목을 막아선 채 외쳤다. “스님, 어디를 가시오?”

그 기세에 눌린 당삼장은 몸을 벌벌 떨며 말 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떨어지더니, 길가 풀숲에 웅크리고 앉아 애원하기 시작했다. “대왕님, 살려주십시오! 대왕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두머리 격인 두 사내가 말했다. “때리려는 게 아니니, 그저 여비만 내놓으시오.”

그제야 당삼장은 이들이 강도 무리라는 것을 깨닫고 몸을 일으켜 고개를 들어 그들을 살펴보았다.

푸른 얼굴에 송곳니를 드러낸 자는 태세를 위협하는 괴물 같았고, 눈을 부릅뜬 자는 상문살을 뿌리는 악귀 같았다. 귀밑의 붉은 머리카락은 타오르는 불꽃 같고, 턱밑의 노란 수염은 바늘을 꽂아 놓은 듯했다. 두 사람은 호랑이 가죽을 머리에 쓰고 담비 털 옷에 채색 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한 명은 손에 늑대 이빨 몽둥이를 들었고, 다른 한 명은 어깨에 덩굴 채찍을 메고 있었다. 과연 산속의 호랑이보다 무섭고 물에서 튀어나온 용처럼 사나운 모습이었다.

당삼장은 그들의 흉악한 모습에 겁이 났지만, 간신히 일어나 가슴에 합장을 하며 말했다. “대왕님, 빈승은 대당의 당나라 왕께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보내신 사람입니다. 장안을 떠난 지 오래되어 여비도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출가한 이는 오로지 구걸로 연명할 뿐인데, 어찌 재물이 있겠습니까? 부디 대왕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빈승을 그냥 보내주십시오.”

두 도적 두목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호랑이 같은 기개를 세우고 길목을 지키며 오로지 재물만을 노리는 자들인데, 무슨 자비를 찾느냐? 정 재물이 없다면 어서 옷이라도 벗고 백룡마를 남겨두고 가거라.”

당삼장이 말했다. “아미타불! 빈승이 입은 이 옷은 동쪽에서 포를 얻고 서쪽에서 바늘을 얻어 겨우겨우 모은 조각보와 같습니다. 만약 이것마저 벗겨 가신다면 저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호걸 노릇을 하려다 다음 세상에서는 짐승이 되는 법입니다.”

그 말을 들은 도적이 크게 화가 나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당삼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속으로 생각했다. ‘가련하기도 하지! 네 몽둥이가 무서운 줄만 알지, 내 제자의 몽둥이가 어떤 것인지는 꿈에도 모르겠구나.’

도적은 말할 겨를도 없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앞뒤 가리지 않고 내리쳤다. 평생 거짓말을 해본 적 없는 당삼장은 이 급박한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두 대왕님,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제 뒤에 어린 제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은자 몇 냇이 있으니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도적이 말했다. “이 중놈이 보통내기가 아니구나. 일단 묶어라!”

그러자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밧줄로 당삼장을 퐁퐁 묶더니 나무 위에 높이 매달아 버렸다.

한편, 세 명의 사고뭉치가 뒤따라 달려왔다. 저팔계가 허허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은 어찌 그리 빨리 가셨을까?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네." 그러다 갑자기 나무 위에 매달린 삼장을 발견하고는 다시 말했다. "스승님 좀 봐! 그냥 기다리시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 덩굴을 붙잡고 그네라도 타며 놀고 계시잖아."

그 모습을 본 손오공이 말했다. "이 어리석은 놈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스승님은 저기 매달려 계시지 않느냐? 너희 둘은 천천히 오너라. 내가 가서 상황을 좀 보고 오겠다."

손오공은 급히 높은 언덕에 올라 자세히 살펴보더니, 저들이 강도 무리라는 것을 알아채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아싸, 잘됐다! 횡재했구나, 횡재했어!" 그러고는 곧장 발걸음을 돌려 몸을 흔들며 변신하더니, 아주 깨끗한 차림의 어린 승려로 바뀌었다. 나이는 열여섯 살쯤 되어 보였고, 검은 승복을 입은 채 어깨에는 푸른 천으로 된 보따리를 하나 메고 있었다. 손오공은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가며 외쳤다. "스승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저들은 또 누구라고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당삼장이 말했다. "제자야, 어서 나를 좀 구해주지 않고 무엇을 묻느냐?" 손오공이 물었다. "저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당삼장이 대답했다. "이 강도 무리가 길을 막아서더니 길썬 통행료를 내놓으라고 하는구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를 이렇게 매달아 놓았으니, 네가 와서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안 그러면 이 말이라도 저들에게 넘겨줘야 할 판이야."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웃으

며 말했다. "스승님도 참 못난 분이십니다. 세상에 스승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분은 드물 겁니다. 당태종께서 스승님을 서천으로 보내 부처님을 뵈게 하셨거늘, 누가 스승님더러 이 백룡마를 남에게 주라고 하셨습니까?" 당삼장이 애처롭게 말했다. "제자야, 이렇게 매달린 채로 저들이 계속 뺏겠다고 달려드는 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손오공이 물었다. "저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당삼장이 답했다. "저들이 워낙 거칠게 몰아붙이니 어쩔 수가 없어서, 네가 오고 있다고 말해두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정말 대책 없으시군요. 저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당삼장이 말했다. "네가 가진 돈이 좀 있다고 말해서 저들이 나를 때리지 못하게 하려는, 일시적인 방편이었을 뿐이다." 손오공이 대꾸했다. "좋습니다, 좋아요. 스승님이 저를 그렇게 치켜세워 주시니, 저도 그렇게 말해두지요. 만약 저들이 한 달에 칠팔십 번씩이나 계속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 손오공에게는 오히려 더 큰 장사가 되겠군요!"

그 도적 무리는 손오공이 스승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기회를 엿보다가, 기세를 몰아 에워싸며 외쳤다. "이 어린 중아, 네 스승 말로는 네 허리춤에 여비가 있다더구나. 어서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만약 '싫다'는 소리라도 한 마디 하는 날에는 너희 둘 다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줄 알아라!"

손오공이 붓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보시오, 대장님들! 너무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여비가 이 붓짐 안에 좀 들어 있긴 합니다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마제금(말발굽 모양의 금덩이) 스무 개 남짓에 분면은 이삼십 개 정도 있고, 잔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이

붓짐째로 가져가시되, 제 스승님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옛말에 '덕은 근본이요, 재물은 말단이다'라고 했습니다. 재물은 그저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저희 같은 수행자들은 알아서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혹여 자비로운 어른 스님을 만나면 푼돈이나 옷가지 정도는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 제발 스승님을 놓아주시기만 하면, 제가 전부 다 내놓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적들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이 늙은 중은 인색하기 짝이 없는데, 이 어린 중은 제법 통이 크구나!" 그러고는 손오공에게 명령했다. "그 붓짐을 내려놓아라!"

그제야 목숨을 건진 당삼장은 말 위로 올라탔다. 그는 손오공을 돌볼 겨를도 없이 채찍을 휘두르며 왔던 길로 급히 도망쳐 갔다.

손오공이 급히 외쳤다. "길을 잘못 들었잖아!" 그러고는 붓짐을 챙겨 들고 뒤쫓아가려 했다. 그러자 강도 무리가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어딜 가려고? 여비를 내놓아라. 그래야 매를 피할 것 아니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말씀 좀 나누시죠. 여비는 셋이서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그러자 강도 두목이 말했다. "이 어린 스님이 아주 영악하구나. 스승님 몰래 자기 뒤통을 챙기려는 게지? 좋다, 일단 꺼내 봐라. 만약 돈이 좀 많으면 너한테도 몰래 조금 떼어줄 테니, 그걸로 과자나 사 먹어라."

손오공이 대답했다. "형님, 그게 아니고요. 저한테 무슨 여비가 있겠습니까? 형님들께서 다른 사람을 털어 얻은 금은보화가 있을 테니, 그걸 저한테 좀 나눠주셔야지요."

그 말을 들은 강도가 크게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중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나한테 달라고 해? 거기 서라, 매 좀 맞아야겠다!" 강도는 칠팔쿨로 만든 몽둥이를 휘둘러 손오공의 대머리를 일여덟 번이나 사정없이 내리쳤다.

손오공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말했다. "형님, 이런 식으로 때리실 거면 내년 봄이 올 때까지 계속 때리셔도 별로 타격이 없을 겁니다."

강도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이 중놈, 머리가 어찌나 단단한 거야!"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에이, 과찬이십니다. 그저 남부끄럽지 않을 정도지요."

강도가 말로 설득할 겨를도 없이, 두세 명의 강도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여러분, 화 좀 가라앉히시고요. 제가 얼른 꺼내겠습니다."

과연 대단한 제천대성이라, 귀를 더듬어 수놓는 작은 바늘 하나를 쑥 뽑아 들고 말했다. "여러분, 저 같은 수행자는 정말로 여비 한 톨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바늘이라도 드릴 테니 가져가시지요."

그러자 도적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재수 없게! 부유한 스님은 놓아주고, 저 가난뱅이 대머리 중놈을 붙잡다니. 네놈이 재봉사라도 된단 말이나? 내가 바늘 따위가 왜 필요해?"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는 바늘을 손에 쥐고 휘휘 흔들어, 마치 사발만 한 굵기의 몽둥이로 변하게 했다. 도적이 겁에 질려 외쳤다. "이 중놈이 덩치는 작아도 요술을 부릴 줄 아는구나!"

손오공이 몽둥이를 땅에 꽂으며 말했다. "자, 여러분이 들 수 있다면 가져가 보시지요."

두 도적이 달려들어 몽둥이를 뺏으려 했으나, 마치 잠자리가 거대한 돌기둥을 흔드는 격이라 눈곱만큼도 움직이지 못했다. 이 몽둥이는 본래 여의금고봉으로, 천칭으로 달면 무게가 무려 만 삼천오백 근에 달하는데 저 도적들이 어찌 알겠는가?

손오공이 성큼 다가가 가볍게 몽둥이를 집어 들더니, 몸을 한 바퀴 휙 돌리며 멋진 자세를 취하고는 강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희는 참으로 팔자가 사납구나. 나 손오공을 만났으니 말이다!"

그러자 도적들이 다시 앞으로 달려들어 오륙십 대를 더 두들겨 댔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너도 이제 손이 떨어져 제대로 못 싸우는 모양인데, 이 몸이 직접 나서서 한 방 먹여줄 테니 너무 겁먹지는 마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손오공이 금고봉을 휘두르니, 봉의 굽기가 우물 창살만큼이나 굽고 길이는 칠팔 장에 달했다. 손오공이 휘두른 봉이 한 번 휩쓸고 지나가자, 강도 하나가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입가에는 흙이 묻었고 더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강도가 욕설을 내뱉었다. "이 대머리 놈이 아주 무례하구나! 가진 돈도 없으면서 사람만 해치다니!"

손오공이 웃으며 대꾸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내가 하나씩 차례대로 상대해 줄 테니, 한 방에 아주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

손오공이 다시 봉을 휘둘러 두 번째 강도마저 때려죽였다. 그러자 남은 강도들은 창과 몽둥이를 내팽개치고 사방팔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다.

한편, 당삼장이 말을 타고 동쪽으로 달려가는데, 저팔계와 사오정이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스승님,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길을 잘못 드셨습니다." 당삼장이 말의 고삐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제자들아, 어서 네 사형에게 달려가서 말해라. 부디 몽둥이를 휘둘러 때릴 때 힘을 조절해서 저 강도들을 죽이지 않도록 말이다." 저팔계가 대답했다. "스승님, 여기 계십시오. 제가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저팔계가 앞을 향해 달려가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형님! 스승님께서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동생아, 누가 사람을 때렸단 말이냐?" 저팔계가 물었다. "그 강도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다른 놈들은 다 흩어졌고, 우두머리 두 놈만 여기 누워 자고 있구나."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이 재수 없는 놈들아, 밤을 꼬박 새

우느라 고생이 많구나. 왜 다른 데 가서 안 자고 하필 여기 와서 자고 있느냐?" 저팔계가 곁으로 다가가 살펴보더니 말했다. "이놈들, 나랑 똑같네. 입을 떡 벌리고 자느라 침까지 흘리고 있잖아." 손오공이 말했다. "이건 내가 몽둥이로 두드려서 두부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란다." 저팔계가 되물었다. "사람 머리에 무슨 두부가 있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머릿속 내용물이 두부처럼 터져 나왔다는 뜻이지."

저팔계는 머리가 깨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 허겁지겁 달려 오더니, 당삼장에게 말했다. "스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뽀뽀이 흩어져야겠어요." 당삼장이 물었다. "아이고, 세상에! 대체 어느 길로 가버렸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그렇게 호되게 얻어맞았는데, 대체 어디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당삼장이 다시 물었다. "어찌하여 뽀뽀이 흩어지자고 하는 것이냐?" 저팔계가 말했다. "사람을 때려죽였는데, 흩어지는 것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당삼장이 물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이더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머리에 커다란 구멍이 두 개나 뚫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당삼장이 가르치듯 말했다. "붓짐을 풀어 엽전 몇 푼을 꺼내어라. 어서 가서 고약이라도 좀 사다가 그들의 상처에 붙여주어야겠다."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스님도 참, 농담도 지나치십니다. 고약은 살아있는 사람의 상처에나 붙이는 것이지, 죽은 사람의 구멍에 어떻게 붙인단 말입니까?" 당삼장은 "정말로 죽었던 말이냐?"라고 되물으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입을 쉬지 않고 놀리며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손오공은 길고 원숭이는 짧은 식의 억지스러운 타박이었다. 당삼장은 말을 돌려 사오정과 저팔계와 함께 죽은 이들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 산비탈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당삼장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저팔계에게 명령했다. “어서 갈퀴를 가져와서 구덩이를 파서 묻어라. 내가 그들을 위해 ‘도두경’을 읽어 주마.” 그러자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스승님도 참, 사람을 부려 먹는 데는 도가 트셨군요. 손오공이 사람을 때려죽였으면 그놈을 시켜서 태우든 묻든 해야지, 왜 이 못난 돼지한테 노가다를 시키십니까?” 스승에게 꾸지람을 들은 손오공이 저팔계를 향해 호통을 쳤다. “이 게으름뱅이 녀석아! 얼른 가서 묻지 않으면 당장 몽둥이찜질을 해줄 테다!” 겁에 질린 저팔계는 산비탈 아래로 내려가 삼 척 깊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닥이 온통 돌뿌리와 돌덩이라 갈퀴 날이 자꾸 걸려 멈추기 일쑤였다. 결국 저팔계는 갈퀴를 던져버리고는 입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러다 부드러운 흙을 만나자 입을 한 번 푹 찔러 넣으니 이척 오촌 깊이가 되었고, 두 번을 파니 다섯 척 깊이가 되어 두 강도의 시신을 묻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무덤을 만들었다.

당삼장이 말했다. “손오공, 향과 초를 가져오너라. 내가 기도를 올리고 경을 읽어주마.” 손오공이 입을 삐죽거리며 대꾸했다. “참 눈치도 없으시네요. 이 산중턱에 앞에는 마을도 없고 뒤에는 주막도 없는데 향과 초를 어디서 구합니까? 돈이 있다 한들 살 곳도 없단 말입니다.” 당삼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 저리 비켜라! 내가 직접 흙을 쥐어 향을 피우며 기도할 것이니라.”

이렇듯 당삼장은 말에서 내려 거친 들판의 무덤을 마주하고, 성스러운 승려로서 황폐한 무덤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기도는 이러했다.

“호걸들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는 동토 대당에서 온 당나라 사람이며, 태종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마침 이곳에 이르렀다가 그대들을 만났는데, 어느 고을 어느 주 어느 현의 사람인지 알 길 없이 이 산속에서 무리를 지어 살고 있었나이다. 내가 좋은 말로 간곡히 애원하였으나 그대들은 듣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달려들었지요. 그러다 결국 손오공의 몽둥이에 맞아 목숨을 잃었나이다. 시신이 거칠게 버려진 것이 안타까워 내가 흙을 덮어 무덤을 만들어 주었으니, 푸른 대나무를 꺾어 향과 초를 대신하노라. 비록 빛깔은 없으나 정성만은 가득하며, 거친 돌을 가져다 제사 음식을 대신하니 맛은 없어도 참된 마음을 담았나이다. 그대들은 저승의 명부로 가서 이 일을 고하되, 나무 뿌리를 뒤져 원인을 찾으시오. 저 자는 성이 손이고 나는 성이 진이니 서로 성이 달라 아무 상관이 없소이다. 원한에는 머리가 있고 빛에는 주인이 있는 법이니, 부디 경전을 구하러 가는 나를 원망하지는 마시오.”

저팔계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아주 깔끔하게 선을 그으셨군요. 손오공이 때릴 때 우리 둘은 끼지도 않았다고 말이죠.” 당삼장은 정말로 다시 흙을 한 움큼 쥐고 기도를 이어갔다. “호걸들이여, 고발을 하려거든 손오공에게만 하시오. 저팔계와 사오정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소이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스승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스승님을 위해 경전을 구하러 오면서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애를 썼는데, 이제 겨우 이 도둑놈 둘을 때려잡았다고 저보고 고자질이나 하라니요. 비록 제가 손을 써서 때렸지만,

다 스승님을 위해서 한 일 아닙니까? 스승님이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지 않으셨다면, 제가 스승님의 제자가 되어 여기까지 오고 사람을 죽일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제가 이놈을 위해 축원이라도 한마디 해주겠습니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움켜쥐고는 무덤 위를 세 번 툭툭 치며 외쳤다.

"이 재수 없는 강도 놈아, 잘 들어라! 네가 나를 앞뒤로 일여덟 대씩 때려뺐지만, 나한테는 간지럽지도 아프지도 않더구나. 그래서 내 성질이 좀 나빠지는 바람에 실수로 너를 때려죽이고 말았다. 가서 어디 한번 일러바쳐 보아라! 나 손오공은 전혀 두렵지 않다. 옥황제계서도 나를 아시고, 천왕들도 나를 따르며, 이십팔수 신장들은 나를 두려워하고 구요성관들도 나를 무서워한다. 부와 현의 성황신도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동악천제도 나를 경외하며, 염라대왕 열 명도 내 밑에서 종노릇을 했고, 오로의 창신들도 내 뒤를 따르던 녀석들이다. 삼계와 오사(五司), 시방의 모든 주재자들까지 다 나와 막역한 사이니, 어디 가서 마음껏 일러바쳐 보거라!"

당삼장은 손오공이 이토록 험한 말을 내뱉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다.

"제자야, 내가 방금 한 말은 네가 덕을 쌓고 선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었는데, 너는 어찌 그리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 이건 장난할 일이 아닙니다. 어서 서둘러 묵을 곳을 찾아 떠납시다."

당삼장은 어쩔 수 없이 노여운 마음을 품은 채 말에 올라탔다.

손오공은 마음이 뒤틀려 있었고, 저팔계와 사오정 역시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 스승과 제자 사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서로를 원망하는 분위기였다. 일행이 큰길을 따라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문득 길 북쪽 아래로 장원이 하나 보였다. 당삼장이 채찍으로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곳에 가서 하룻밤 묵어가도록 하자.” 저팔계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일행은 곧장 장원으로 향해 말에서 내렸다. 살펴보니 머물기에 참으로 괜찮은 곳이었다. 그 풍경은 이러했다.

들꽃은 길가에 가득하고 잡목은 대문을 가렸네. 멀리 산과 물은 흐르고 평평한 밭에는 보리와 해바라기가 자라나고, 갈대밭엔 이슬 맺혀 갈매기 쉬어가며 버드나무 사이 미풍에 새들도 지쳐 앉았구나. 푸른 측백과 소나무는 빗갈을 겨루고 붉은 쑥부쟁이는 마디풀과 향기를 다투는데, 마을 개는 짖고 저녁 닭은 울며, 소와 양은 배불리 먹고 목동은 돌아오네. 아궁이 연기는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노란 곡식 익어가는 냄새 나니, 정녕 산골 마을의 저무는 저녁 풍경이로다.

당삼장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마을 집 대문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오기에 그를 마주하고 인사를 건넸다. 노인이 물었다. “스님께 서는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당삼장이 대답했다. “빈승은 동토 대당에서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임무를 띠고 길을 떠난 자입니다. 마침 보방을 지나던 중 날이 저물어, 실례를 무릅쓰고 하룻밤 묵어가고

자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귀한 분께서 여기까지 오시다니, 길이 멀고 험할 텐데 어찌 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 홀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당삼장이 말했다. “제자 세 명도 함께 왔습니다.” 노인이 물었다. “그 훌륭한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당삼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큰길가에 서 있는 이들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확 들어 올려 보니, 그들의 생김새가 너무도 흉측하여 깜짝 놀라 얼른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당삼장이 그를 붙잡으며 말했다. “노보살님, 부디 자비를 베풀어 하룻밤만 재워 주십시오!” 노인은 겁에 질려 입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 아니, 아니요! 사람 몰골이 아니구려! 요괴, 요괴들이 분명해!” 당삼장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달랬다. “보살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생김새가 이럴 뿐이지 요괴가 아닙니다.” 노인이 소리쳤다. “아이고, 세상에! 한 명은 야차요, 한 명은 마면(말 머리를 한 귀신)이고, 한 명은 뇌공(천둥의 신)이로구나!”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엄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뇌공은 내 손자요, 야차는 내 증손자이며, 마면은 내 현손(고손자)이다!” 노인은 그 소리를 듣자 혼비백산하여 얼굴색이 하얗게 질린 채 안으로 들어가려고만 했다. 당삼장이 그를 부축해 초가집으로 데려가며 웃으며 말했다. “노보살님, 저 아이를 무서워 마십시오. 워낙 거칠어서 말 주변이 없을 뿐입니다.”

한창 상황을 설명하려는데, 뒤에서 한 할머니가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걸어 나오며 말했다. “할아버지, 왜 이리 겁에 질려 계세요?” 노인이 대답했다. “할멈, 차 좀 가져오구려.” 할머니는 정말로 아이를 놓친 모양인지, 안으로 들어가 찻잔 두 개를 받쳐 들고 나왔다. 차를 다 마신 뒤, 당삼장이 몸을 돌려 할머니에게 예를 갖추며

말했다. “빈승은 동토 대당에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곳에 막 도착하여 실례를 무릅쓰고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려 합니다. 제 제자 세 명의 생김새가 워낙 못생겨서 어르신들께서 보고 깜짝 놀라신 모양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다. “생김새가 못생긴 것만 보고도 이리 놀라는데, 만약 호랑이나 승냥이 같은 짐승을 만나면 어찌하겠소?” 노인이 거들었다. “임자, 얼굴이 못생긴 거야 그럴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의 말솜씨가 사람을 아주 놀라게 한다니까. 내가 저 사람더러 야차나 마면, 혹은 뇌공을 닦았다고 했더니, 저 사람은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뇌공은 자기 손자고, 야차는 증손자며, 마면은 고손자라고 하더라 말일세.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이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겠나.” 당삼장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뇌공을 닦았다는 이는 제 첫째 제자인 손오공이고, 마면을 닦았다는 이는 둘째 제자인 저오능이며, 야차를 닦았다는 이는 셋째 제자인 사오정입니다. 비록 생김새는 못생겼을지언정, 모두 불도를 닦는 수행자로서 선한 결과를 바라고 귀의한 이들이니, 결코 악마나 요괴가 아닙니다.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두 노부부는 그들의 명성과 승려가 되어 바른 길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서야 겨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노인은 문밖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하며 다시 당부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노인이 자네들에게 아주 모질게 굴었으니, 안으로 들어가서 만날 때는 절대로 맞서지 말고 각자 예의를 갖추어 공손히 행동해야 하네.” 그러자 저팔계가 말했다. “저는 인물도 흰칠하고 매너도 좋아서, 형님처럼 막무가내로 굴지 않는다니깐요.” 손오공이 웃으며 대꾸했다. “입만 길고 귀가 크며 얼굴이 못생기지만 앓다면, 그

게 다 번듯한 사내놈이지." 사오정이 거들었다. "말다툼하지 마세요. 여기는 잘난 체하며 뽐낼 만한 곳이 아닙니다. 어서 들어가시죠, 어서요." 그들은 봇짐과 말들을 모두 초가집으로 옮긴 뒤,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매우 현숙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밥을 짓게 하고 정성껏 채식 한 상을 차려내어 스승과 제자들에게 대접하였다.

날이 점점 저물자 다시 등불을 켜고 초당에 앉아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장법사가 물었다. "보살님,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노인이 대답했다. "양 씨라오." 삼장이 다시 나이를 묻자, 노인은 "일흔네 살이오"라고 답했다. 이어 삼장이 "자제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고 묻자, 노인이 말했다. "자식은 하나뿐이라오. 방금 전에는 손주 녀석을 데려왔소." 삼장이 자제분을 뵈고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청하자, 노인이 말했다. "그놈은 인사를 드릴 놈이 못 되오. 이 늙은이가 팔자가 사나워 놈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더니, 지금은 집에 있지도 않소." 삼장이 "무슨 일을 하며 지내는지요?" 하고 묻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련하고도 가련하구려! 제발 어디 가서 성실히 일이라도 한다면 내 소원이겠소만, 그놈은 온통 나쁜 생각만 품고 제 일은 뒷전인 채, 오로지 남의 집을 털고 길을 가로막으며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오. 어울리는 놈들도 죄다 여우와 개 같은 무리뿐이지요. 닷새 전쯤 집을 나간 뒤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소." 삼장은 그 말을 듣고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손오공이 죽인 자가 바로 그놈인가.' 삼장은 마음이 불안해져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아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

요. 이토록 어진 부모를 두고 어찌 저리 불효한 자식이 있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어르신, 이렇게 못되고 불효하며 도둑질에 음탕한 짓까지 일삼아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를 살려두어 무엇하겠습니까? 제가 대신 가서 그놈을 찾아내 때려죽여 버리겠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나도 그놈을 내쫓고 싶네만,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없으니 어찌겠나. 비록 재주 없는 놈이라 해도, 이 늙은이 곁에 남아 흠이라도 덮어줄 사람이 그놈뿐이라네."

사오정과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사형, 쓸데없는 참견 마세요. 우리도 관아의 관리도 아닌데, 저 집안에서 싫다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어르신, 저희에게 벗짚 한 뭉치만 빌려주십시오. 저쪽에서 잠을 자고 날이 밝으면 길을 떠나겠습니다."

노인은 즉시 일어나 사오정을 뒷마당으로 보내 벗짚 두 뭉치를 가져오게 하더니, 마당에 있는 짚으로 엮은 둥근 움막 안에서 일행이 쉴 수 있도록 해주었다. 손오공은 말을 끌고 저팔계는 짐을 짊어진 채, 노인과 함께 그 움막 안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한편, 강도 무리 중에는 정말로 양 노인의 아들이 섞여 있었다. 이른 아침 산 앞에서 손오공에게 두목들을 잃은 나머지 강도들은 모두 살 길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졌었다. 그러다 사경(새벽 1시~3시 사이)쯤 되자, 그들은 다시 한데 모여 양 노인의 집 문을 두드렸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노인이 옷을 걸치며 말했다. "여보, 저놈들이 왔소." 그러

자 노인의 아내가 대답했다. "왔으면 가서 문이나 열어주세요. 집안으로 들여보내고요."

노인이 문을 열자, 강도 무리가 일제히 소리쳤다. "배고프다, 배고파!" 이때 양 노인의 아들은 얼른 안으로 뛰어 들어가 아내를 깨우며 쌀을 찼고 밥을 지으라고 재촉했다. 그런데 부엌에 쌀감이 없자, 아들은 뒷마당으로 나무를 가지러 가며 아내에게 물었다. "뒷마당에 있는 저 백마는 누구의 것이요?" 아내가 대답했다. "동토 대당에서 경전을 구하러 온 스님이에요. 어젯밤 이곳에 머물러 가시는데,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녁 식사를 대접해 드렸거든요. 지금은 풀더미 위에서 잠을 자고 계세요."

그놈은 그 말을 듣자마자 초가집 밖으로 걸어 나와 손뼉을 치며 웃으며 말했다. "형제들, 이거 정말 운이 좋구나, 운이 좋아! 원수가 우리 집으로 제 발로 찾아왔어!"

그러자 다른 도둑들이 물었다. "그 원수가 누구냐?"

그놈이 대답했다. "우리 두목을 때려죽인 바로 그 스님이야. 우리 집에 묵으러 와서 지금은 초가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도둑들이 외쳤다. "잘됐구나, 정말 잘됐어! 저 대머리 놈들을 싹 잡아다가 하나하나 고기 반죽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야 짐이랑 백룡마도 뺏고, 우리 두목의 원수도 갚을 것 아니냐!"

그놈이 말했다. "서두르지 마라. 일단 가서 칼부터 갈아라. 내가 밥을 다 지어서 다 같이 배불리 먹고 나서 한꺼번에 손을 쓰자고."

그 말에 도둑들은 정말로 어떤 놈은 칼을 갈고, 어떤 놈은 창을 갈며 준비를 시작했다.

그 노인이 이 말을 듣고는 살며시 뒷마당으로 가서 당삼장 일행 네 사람을 불러 모았다.

"저놈들이 무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걸 알고 해치려 합니다. 내가 멀리서 오신 분들을 차마 해칠 순 없으니, 어서 짐을 챙기십시오. 내가 뒷문으로 몰래 나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삼장은 그 말을 듣고 벌벌 떨며 노인에게 머리를 조아려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는 곧장 저팔계에게 말을 끌게 하고, 사오정에게는 짐을 지게 했으며, 손오공은 구환석장(아홉 개의 고리가 달린 지팡이)을 챙겨 들었다. 노인이 뒷문을 열어 그들을 보내준 뒤, 자신은 다시 조용히 앞마당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다.

한편, 강도들은 칼과 창을 날카롭게 갈고 식사를 마쳤다. 때는 이미 새벽 5시경이라, 일제히 장원을 살피러 나갔으나 일행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급히 등불을 밝히고 불을 붙여 한참 동안 찾아보았지만 흔적조차 없었고, 다만 뒷문만 활짝 열려 있을 뿐이었다. 강도들은 "뒷문으로 도망쳤다!"라고 외치며 소리를 지르고 뒤쫓기 시작했다.

강도들은 화살처럼 빠르게 뒤를 쫓았고,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당삼장을 발견했다. 뒤를 돌아보니 이삼십 명의 무리가 창과 칼을 뽁뽁하게 들고 몰려오고 있었다. 당삼장은 깜짝 놀라 외쳤다. "제자들아, 도적 떼가 쫓아온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이 손오공이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러자 당삼장이 말 고삐를 당기며 말했다. "오공아, 절대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저 겁을 주어 쫓아버리기만 하거라."

하지만 손오공이 어찌 그 말을 듣겠는가. 그는 급히 금고봉을 움켜쥐고 뒤를 돌아보며 마중 나가듯 외쳤다. "이놈들아, 어디를 가는 것이냐!"

강도들이 욕설을 퍼부었다. "이 머리뺄뺄이 놈이 무례하구나! 우리 대장님의 목숨을 내놓아라!"

강도들은 손오공을 가운데에 두고 원을 그리며 포위한 뒤, 창과 칼을 휘두르며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왔다. 그러자 손오공은 그릇 굵기만한 금고봉을 휘휘 휘돌렸다. 순식간에 강도들은 별이 떨어지고 구름이 흩어지듯 혼비백산하였고, 정면으로 맞닥뜨린 자들은 죽어나가고 휘말린 자들은 목숨을 잃었다. 봉에 맞은 자는 뼈가 부러졌고, 스친 자는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그나마 영리한 몇 명은 도망쳤으나, 어리석은 자들은 모두 염라대왕을 만나러 갔다.

당삼장은 말 위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는 겁에 질려 서쪽을 향해 말을 몰아 달아났다. 저팔계와 사오정도 채찍과 등자를 따라 급히 뒤를 쫓았다. 손오공이 상처를 입고도 죽지 않은 도적놈에게 물었다. "저놈이 양 노인의 아들이냐?" 그러자 도적이 쿵쿵거리며 대답했다. "어르신, 저 노란 옷을 입은 놈입니다." 손오공이 앞으로 달려가 도적의 칼을 빼어 들더니, 노란 옷을 입은 놈의 머리를 단번에 베어버렸

다. 손오공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손에 든 채, 금고봉을 거두고 구름을 밟아 날아 당삼장의 말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머리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스승님, 이놈이 바로 양 노인의 불효한 자식입니다. 이 손오공이 그놈의 목을 가져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당삼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경악하며 말에서 떨어지듯 내려와 꾸짖었다. "이 망할 원숭이 놈이 나를 죽이려 드는구나! 어서 치워라, 어서 치우란 말이다!" 저팔계가 앞으로 나서서 그 머리를 길가로 걷어찬 뒤, 갈퀴로 흙을 덮어 묻어버렸다.

사오정이 짐을 내려놓고 당삼장을 부축하며 말했다. "스승님, 일어나십시오."

당삼장은 땅에 서서 정신을 가다듬더니, 입으로 긴고주(머리테를 조이는 주문)를 외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손오공은 귀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얼굴이 붉어지며, 눈이 빠질 듯하고 머리가 어지러워 땅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다. "제발 그만 외우세요, 그만! 제발!"

당삼장은 열 번 넘게 주문을 계속해서 외웠다. 손오공은 공중제비를 돌고 물구나무를 서며 몸부림쳤으나, 밀려오는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애원했다. "스승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말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제발 주문만은 그만 외워 주세요!"

그제야 당삼장이 입을 멈추고 말했다. "할 말은 없다. 이제 너를 제자로 두지 않을 것이니, 그만 돌아가거라."

손오공은 고통을 참으며 머리를 조아렸다. "스승님, 어찌하여 저를 쫓아내시는 겁니까?"

당삼장이 말했다. "이 사나운 원숭이 녀석아, 너는 너무나 흉악하여 경전을 구하러 가는 사람의 자격이 없다. 어제 산비탈 아래에서 강도 두목들을 때려죽인 것부터가 이미 인자하지 못하여 내 마음이 괴로웠다. 게다가 저녁에 노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공양을 베풀어 주시고 잠자리도 내어주셨으며, 뒷문을 열어 우리 일행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느냐. 비록 그 아들이 불효한 자라 하여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해도, 그 머리를 베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물며 수많은 사람을 죽여 생명을 해치고, 천지의 화합을 깨뜨렸으니 어찌하겠느냐. 몇 번이나 너를 타일렀음에도 조금의 선한 마음도 없으니, 너를 데리고 무엇을 하겠느냐? 어서 가거라, 어서! 다시 주문을 외우기 전에!"

겹에 질린 손오공이 울부짖었다. "제발 그만 외우세요, 그만!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손오공은 말을 마치자마자 구름을 타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아!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흥포함이 가득하니 금단(金丹)이 익지 않고, 정신이 한곳에 자리 잡지 못하니 도를 이루기 어렵구나.

결국 제천대성이 어디로 향했는지는 알 길이 없으니, 다음 회에서 그 뒷이야기를 이어가겠다.

제57회 — 진행자가 낙가산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가짜 손오공이 수렴동에서 문서를 훔치다

眞行者落伽山訴苦 假猴王水簾洞謄文

한편, 손오공은 화가 나고 마음이 답답하여 공중에 둥둥 떠 있었다. 화과산 수렴동으로 돌아가자니, 그곳의 줄개 요괴들이 '제 입으로 뱉은 말도 뒤집는 좃대 없는 놈, 대장부의 그릇이 못 되는구나'라며 비웃을까 두려웠다. 그렇다고 천궁으로 가자니 천궁 안에 오래 머물 수 없을 것 같았고, 바다 건너 섬으로 가자니 삼도(三島)의 신선들을 대면하기가 부끄러웠다. 용궁으로 가보려 해도 용왕에게 머리를 숙여 하소연하기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그야말로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처지였다. 손오공은 괴로운 마음으로 혼자 헤아렸다. "관두자, 관둬, 관두자. 그래도 스승님을 다시 찾아뵙는 것이 정과(正果)에 이르는 바른 길이었다."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내려와 삼장법사 앞에 다가와 곁에 서서 말했다. "스승님, 이번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다시는 살생을 저지르지 않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부디 저를 다시 받아주셔서 함께 서천으로 가시게 해주십시오."

삼장법사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 한마디 없이 말머리를 돌리더니, 곧바로 긴고주(머리테 조이는 주문)를 외우기 시작했다. 주문을 이리 저리 읊조리며 스무 번 넘게 반복하자, 손오공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머리테가 살 속으로 한 치가량 깊숙이 파고들고 나서야 삼장법사는 주문을 멈추고 말했다.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왜 또 나를 괴롭히느냐?"

손오공이 애원하며 말했다. "제발 주문을 외우지 마십시오, 제발요! 저는 갈 곳이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다만 제가 없으면 스승님께서 서천에 가실 수 없을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자 삼장법사가 화를 내며 꾸짖었다. "이 원숭이 녀석아! 네가 살생을 저질러 나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느냐. 이제 나는 정말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 문제지, 너와는 상관 없는 일이다. 어서 가거라, 어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다시 진언을 외울 것이니, 그때는 이번처럼 멈추지 않고 네 뇌수까지 다 쏟아져 나오게 만들 줄 알아라."

손오공은 통증을 견디기 힘들었으나 스승님의 마음이 전혀 돌아서지 않는 것을 보고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결국 다시 근두운을 타고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 그러다 문득 깨달은 듯 혼잣말을 했다. "저

스님은 내 진심을 저버렸구나. 내가 낙가산에 가서 관음보살님께 이 사실을 다 말씀드려야겠다."

훌륭한 대성! 근두운을 돌리니 한 시진도 채 안 되어 어느새 남양대 해에 이르렀다. 상서로운 빛을 거두고 곧장 낙가산 위에 내려 자족림 속으로 들이닥치니, 문득 목차행자가 마주 나오며 예를 갖추어 물었다. "대성,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보살님을 뵙고자 한다." 목차행자는 손오공을 조음동 입구까지 안내했다. 그곳에서 선재동자를 만나자 선재동자 역시 예를 표하며 물었다. "대성, 어찌 오셨습니까?" "보살님께 고할 일이 있다." 손오공의 말 가운데 '고하다(告)'라는 한 글자를 들은 선재동자가 웃으며 말했다. "말재주만 살아있는 고약한 원승이로구나! 예전에 내가 당승을 붙잡았다가 너에게 당했을 때와 꼭 같구나. 우리 보살님은 대자대비하시고 큰 서원과 대승의 마음을 지니시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시는, 끝없고 한량없는 성스럽고 선하신 보살님이신데,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보살님을 고발(告)하겠다는 것이냐?" 가슴 가득 울화가 차 있던 손오공은 이 말을 듣자마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꽤!' 하고 호통을 쳐 선재동자를 뒤로 나자빠지게 하고는 말했다. "이 의리도 모르고 은혜도 저버린 어린 짐승 녀석이 정말 어리석구나! 네가 그 시절 요괴로 날뛰며 정령이 되었을 때, 내가 보살님께 청하여 너를 거두어 바른 길로 귀의시켰기에, 지금 이렇게 극락에서 장생하며 자유로이 노닐고 하늘과 같은 수명을 누리는데가 아니냐. 그런데도 이 손오공에게 절하여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렇게 나를 업신여긴단 말이냐! 나는 보살님께 고하여 청할 일이 있어 온 것인데, 어찌 나더러 말재주 부려 보살님을 고발하려 한다고 말하느냐?" 선재동자가 멧쩍게 웃으며 말했다. "여전히 성미 급한 원승

이로군요. 내가 그저 농담 삼아 한 말인데, 어째서 그렇게 정색을 하십니까?"

법문이 진행되는 곳에 흰 앵무새가 날아다니는 것이 보이니, 이는 보살께서 부르시는 신호였다. 이에 목차와 선재동자가 앞으로 나아가 손오공을 보배로운 연꽃 대좌 아래로 인도했다. 손오공은 보살을 뵈자마자 몸을 굽혀 절하며, 샘물처럼 솟구치는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크게 통곡했다.

보살이 목차와 선재에게 손오공을 부축해 일으키라 일러주며 말했다. "손오공아, 무슨 슬픈 일이 있기에 그러느냐? 숨김없이 말해 보아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너의 고통을 덜어주고 재앙을 없애 주마."

손오공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절을 올리고 말했다. "예전에 제자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보살님의 도움으로 천벌에서 벗어나 수행자가 되었고, 이제는 삼장법사를 모시고 서천으로 가서 불경을 구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마귀의 방해를 막아내며 스승님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호랑이 입에서 뼈다귀를 빼앗고, 교룡의 등에서 비늘을 떼어내는 것과 같은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저 참된 깨달음을 얻어 죄업을 씻고 사악함을 없애기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장로라는 분은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은 채, 선한 인연을 맺으려다 오히려 앞뒤 사정도 모른 채 저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보살이 말했다. "그 사정이 어떠한지 자세히 말해 보아라."

손오공은 도적들을 때려잡았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일을 상세히 늘어놓았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삼장법사는 손오공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원한을 품고, 사정은 따져 묻지도 않은 채 긴고주(머리테 조이는 주문)를 외워 그를 몇 번이나 쫓아냈던 것이다. 하늘에는 길이 없고 땅에는 문이 없어, 손오공은 절박한 심정으로 보살님을 찾아온 것이었다.

보살이 말했다. "삼장법사는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서천으로 가며, 오직 선한 승려가 되어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으려 마음을 다하고 있다. 너는 무량한 신통력을 지녔으면서 어찌하여 그 많은 도적을 죽였느냐? 도적들이 비록 나쁜 무리라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의 몸을 가진 존재이니,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요괴나 괴물, 귀신이나 정령과는 다르단다. 도적을 죽인 것은 네 공적일지 모르나, 사람을 죽인 것은 여전히 네가 어질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다. 그들을 물리치기만 했어도 자연히 네 스승을 구했을 터인데, 내 공정하게 판단하건대 그것은 여전히 네가 선택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손오공이 눈물을 머금은 채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설령 제자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공을 세워 죄를 씻을 기회는 주셔야지 이렇게 내쫓으시면 안 됩니다. 부디 보살님께서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머리테를 푸는 주문을 외워 주십시오. 그러면 이 금고아를 벗겨서 돌려드릴 테니, 저를 다시 수림동으로 돌아가 살게 해 주십시오." 관음보살이 웃으며 말했다. "머리테를 푸는 주문이라니, 그것은 본래 여래께서 내게 전해주신 것이 아니다. 예전에 나에게 동토로 가서 경전을 구할 사람을 찾아오라는 명을 내리시며 세 가지 보물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은 비단

가사(錦欄袈裟)와 구환석장(九環錫杖), 그리고 금(金)·긴(緊)·금(禁) 세 개의 고아(箍兒)였다. 또 주문 세 편을 비법으로 전수해주셨지만, 머리테를 푸는 주문 따위는 없단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이만 보살님께 작별을 고하고 떠나겠습니다." 관음보살이 물었다. "작별을 고하고 어디로 가겠다는 말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서천으로 가서 여래께 인사를 드리고, 머리테를 푸는 주문을 외워달라고 간청하러 가겠습니다." 관음보살이 말했다. "잠시 멈춰 서거라. 네 길흉(吉凶)이 어떠한지 내가 한번 봐주마." 손오공이 말했다. "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불길하니까요." 관음보살이 말했다. "네 운세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당승의 길흉이 어떠한지를 보려는 것이다."

자비로운 관음보살은 연화대에 단정히 앉아 마음을 삼계에 운용하며, 지혜로운 눈으로 우주 구석구석을 멀리 살피셨다. 그러다 순식간에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손오공아, 네 스승은 잠시 몸을 다치는 어려움을 겪더니, 머지않아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그저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내가 당승에게 말하여, 그가 너와 함께 다시 불경을 구하러 떠나 결국 정과(正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마."

손오공은 감히 대들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보련대 아래에 공손히 서서 스승의 처분만을 기다렸다.

한편, 당승은 손오공을 쫓아낸 뒤 저팔계에게는 말을 끌게 하고, 사오정에게는 짐을 지게 했다. 말과 사람을 포함해 네 입이 서쪽으로 달

린 지 채 50리도 되지 않았을 때, 당승이 말 고삐를 당기며 말했다. "제
 자들아, 새벽녘에 마을을 떠난 뒤로 그 필마온(弼馬溫, 손오공) 녀석
 때문에 또 화가 치밀어 올랐구나. 그리고 나니 반나절 동안 배는 고프
 고 목은 타들어 가는데, 누가 가서 공양이나 좀 얻어오겠느냐?" 저팔계
 가 대답했다. "스승님, 우선 말에서 내려 앉으십시오. 제가 근처에 마
 을이나 장원이 있는지 살펴보고 공양을 좀 구해오겠습니다." 당승은
 그 말을 듣고 말에서 내려왔다. 저팔계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위를 살살이 살펴보았으나,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산등성이뿐이라
 사람 사는 집이라고는 없었다. 저팔계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 당승에게
 말했다. "정말 공양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멀리 내다봐도 마을이나 집
 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승이 말했다. "공양을 구할 곳이 없다
 면, 목이라도 축일 물이라도 좀 가져오너라." 저팔계가 말했다. "제가
 남산 계곡에 가서 물을 좀 떠 오겠습니다." 사오정이 즉시 발우를 가져
 와 저팔계에게 건네주었다. 저팔계는 발우를 받쳐 들고 구름을 타고 떠
 나갔다. 당승은 길가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으나 저팔계가 돌아오지 않
 자, 타는 듯한 갈증에 괴로워하며 견디기 힘들어했다. 이에 시로 이르
 되, "신령을 보존하고 기운을 기르는 것을 정(精)이라 하니, 정(情)과
 성(性)은 본래 한 형체에서 받은 것이라. 마음이 어지럽고 정신이 혼미
 해지면 온갖 병이 생기고, 형체가 쇠하며 정기가 다하면 도의 근본도
 기울어지네. 삼화(三花)를 이루지 못하면 헛된 수고일 뿐이요, 사대(四
 大)가 쇠락하면 다투는 것이 모두 헛수고라. 토목(土木)의 공도 없고
 금수(金水)마저 끊겼으니, 게으른 법신(法身)이 언제쯤 성취되겠는
 가!" 사오정이 곁에서 지켜보니 당승은 배고픔과 갈증을 참지 못해 괴
 로워하고, 저팔계는 물을 구하러 간 뒤 소식이 없었다. 사오정은 어쩔
 수 없이 짐을 잘 정리하고 백마를 단단히 묶으며 말했다. "스승님, 여

기 편히 앉아 계십시오. 제가 가서 물을 빨리 가져오도록 재촉하겠습니다." 당승은 눈물을 머금은 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사오정 역시 서둘러 구름을 타고 남산을 향해 달려갔다.

삼장법사는 홀로 고생하며 견디고 있었는데,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한창 낙담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다. 삼장법사가 몸을 돌려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니, 손오공이 길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사발 하나를 받쳐 들고 있었다.

"스승님, 저 없으면 스승님은 물 한 모금도 못 드시잖아요. 여기 시원한 물이 있으니 우선 한 모금 드시고 목 좀 축이세요. 저는 가서 공양을 좀 빌어오겠습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네가 주는 물은 먹지 않겠다. 차라리 여기서 목이 말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운명에 맡기겠다. 너는 필요 없으니 어서 가거라."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제가 없으면 스승님은 서천에 가실 수도 없어요."

삼장법사가 꾸짖었다. "갈 수 있든 없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이 고약한 원숭이 녀석아, 왜 자꾸 와서 나를 괴롭히느냐?"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안색이 싹 변하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삼장법사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 독한 머리통 같은 스님 같은 니라고!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손오공은 철봉을 휘둘러 사발을 내팽개치고는, 삼장법사의 등짝을 철봉으로 한 차례 세게 내리쳤다. 삼장법사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져 말 한마디 못 하게 되었다. 손오공은 두 개의 푸른 짐 보따리를 손에 챙겨 들더니, 근두운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한편, 저팔계는 발우를 받쳐 들고 산 남쪽 언덕 아래로 급히 달려가다가, 산골짜기 사이에 초가집 한 채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까 멀리서 보았을 때는 산이 높게 가로막고 있어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가까이 다가와 보니 그제야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팔계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지금 이 못생긴 얼굴 그대로 갔다가는 분명히 겁을 먹고 쫓아낼 거야. 괜히 애써봤자 공양을 얻어먹기는 틀렸어. 반드시 예쁜 모습으로 변신해야겠다, 그래, 예쁜 모습으로 변해야 해.'

저팔계는 손가락으로 결(訣)을 짚고 주문을 외우며 몸을 일고여덟 번 흔들었다. 그러자 누렇게 뜨고 통통 부은, 폐병 든 비루한 증으로 변했다. 그는 입으로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문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시주님, 부엌에 남은 밥이 있다면 길 위에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빈승은 동토에서 와서 서천으로 경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제 스승님이 길에서 배고프고 목마르시니, 댁에 누룽지나 식은 밥이라도 있으면 부디 조금 나누어 주시어 끼니를 잇게 해 주십시오." 알고 보니 그 집 남자들은 모두 모를 심고 곡식을 심으러 나가 집에 없었고, 두 여인만 집에 있었다. 마침 점심밥을 지어 두 동이에 퍼 담아 논으로 보내려던 참이라, 솥 안에는 아직 퍼내지 않은 밥과 누룽지가 조금 남아 있었다. 여인들은 그의 병색이 완전한 모습을 보고, 또 동토에서 서천으로 간다는 말을 듣자, 병으로 정신이 혼미해져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혹여

문 앞에서 쓰러져 죽기라도 할까 두려워, 얼렁뚱땅 남은 밥과 누룽지를 발우 가득 담아 주었다. 저팔계는 그것을 받아 들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곧장 가던 길로 돌아갔다.

길을 가던 중 누군가 "팔계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저팔계가 고개를 들어 보니, 사오정이 절벽 위에 서서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 하고 외치고 있었다. 저팔계가 절벽 아래로 내려가자 사오정이 다가와 물었다. "이 계곡에 맑은 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떠 마시고 어디를 가고 있었던 거야?" 저팔계가 웃으며 대답했다. "여기 오다가 산골짜기에 민가가 있는 걸 보고,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오는 길이야." 사오정이 말했다. "밥도 좋지만, 지금 스승님이 목이 너무 말라 하시는데 물은 어떻게 할 거야?" 저팔계가 말했다. "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네 옷자락으로 이 밥그릇을 잘 감싸고 있어 봐. 내가 발우를 가져와서 물을 떠 올게."

두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길을 돌아오니, 삼장법사는 땅에 머리를 찡은 채 먼지 속에 쓰러져 있고, 백마는 고삐가 풀린 채 길가에서 길게 울부짖으며 뛰놀고 있었다. 게다가 짐 꾸러미도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 광경을 본 저팔계는 너무 놀라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치며 소리를 질러댔다. "말할 것도 없어, 말할 것도 없다고! 이견 분명 손오공이 쫓겨나며 남긴 잔당들이 여기 와서 스승님을 때려죽이고 짐까지 빼앗아 간 게 틀림없어!" 사오정이 말했다. "우선 말부터 묶어 두게!" 그러고는 탄식하며 외쳤다. "이 일을 어쩌면 종단 말인가? 이 일을 어쩌면 좋아! 그야말로 도중에 그만두고 중도에 멈추게 생겼구나!" 사오정은 "스승님!" 하고 부르며, 눈물을 펄펄 쏟으며 슬프게 통곡했다. 저팔

계가 말했다. "형님, 그만 울게나.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불경을 구하러 가는 일은 이제 말도 꺼내지 말자고. 일단 스승님의 시신을 잘 모시고 있게나. 내가 이 말을 타고 근처 마을이나 장터에 가서 말을 팔아 은 몇 냥이라도 마련해 관이라도 하나 사 올 테니, 스승님을 묻어 드리고 나서 우리 둘은 각자 갈 길을 가자고."

사오정은 차마 스승을 두고 볼 수 없어, 삼장법사의 몸을 돌려 눕힌 뒤 얼굴을 맞대고 온기를 나누며 울먹였다. "가여운 스승님!" 그때 삼장법사의 코와 입에서 뜨거운 숨결이 흘러나오고 가슴팍에 온기가 도는 것을 느낀 사오정이 연신 외쳤다. "팔계야, 이리 와 보게. 스승님은 목숨에 지장이 없으시네!" 그제야 저팔계가 다가와 삼장법사를 부축해 일으켰다. 정신이 조금 든 삼장법사는 신음하며 욕을 내뱉었다. "이 고약한 원숭이 놈, 나를 아주 죽여 놓으려 하는구나." 사오정과 저팔계가 물었다. "도대체 어떤 원숭이 말입니까?" 삼장법사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그러고는 물을 구해 몇 모금 마신 뒤에야 입을 열었다. "제자들아, 너희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손오공이 다시 나를 괴롭히러 왔단다. 내가 단호하게 받아주지 않자, 그놈이 나를 몽둥이로 한 대 때리고는 푸른 모전 붓짐까지 다 빼앗아 가버렸구나." 그 말을 들은 저팔계는 이를 악물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아니, 저 고약한 원숭이 놈이! 감히 어찌 저리 무례하게 굴 수 있단 말인가?" 저팔계가 외쳤다. "사오정, 너는 스승님을 잘 모시고 있거라. 내가 당장 그놈의 집에 가서 붓짐을 되찾아 오겠다!" 사오정이 말했다.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우선 스승님을 저 산골 마을로 모셔가서 따뜻한 차라도 좀 마시게 합시다. 아까 얻어 온 밥도 데워서 스승님 기운을 좀 차리게 해 드린 다음에, 그를 찾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저팔계는 말한 대로 스승을 말 위에 부축해 태우고, 발우를 챙겨 식은 밥을 품에 안은 채 그 집 문앞까지 갔다. 그런데 그 집에는 노파 한 명뿐이었는데, 일행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황급히 몸을 숨겼다.

사오정이 합장하며 말했다. "할머니, 저희는 동토 대당에서 서천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승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잠시 댁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과 식사를 좀 얻어먹고자 합니다."

그러자 노파가 말했다. "방금 전에도 동토에서 왔다고 공양을 구걸하던 병든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미 공양을 받고 떠났소. 그런데 또 동토에서 왔다는 사람이 있단 말ियो? 집에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다른 데로 가보시오."

삼장법사는 그 말을 듣고 저팔계를 부축하며 말에서 내려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할머니, 제게는 세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모두 마음을 합쳐 제가 천축국 대뢰음사에 가서 부처님을 뵙고 경전을 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지요. 다만, 제 첫째 제자(손오공을 가리키며)가 평소 성질이 흉악하고 선한 도리를 따르지 않아 제가 꾸짖어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몰래 뒤를 따라오더니 제 등을 몽둥이로 때리고는, 행장과 불경 그릇까지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 한 명을 시켜 그것을 되찾아오게 하려던 참입니다. 빈 길 위에서는 쉴 곳이 마땅치 않아, 잠시 할머니 댁에서 쉬어가고자 합니다. 짐을 되찾는 대로 바로 떠날 것이니 결코 오래 머물지 않겠습니다."

노파가 말했다. "아까 그 몸이 병들고 누렇게 뜬 스님도 자기가 동토에서 서천으로 가는 길이라며 공양을 얻어먹고 갔는데, 어찌 또 똑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오?"

저팔계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입도 길고 귀도 커서 할머니가 무서워할까 봐, 일부러 그런 모습으로 변신했던 것이지요. 못 믿으시겠다면, 저희 형제 옷 속에 할머니 댁에서 남은 누룽지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노파는 그것이 정말 자신이 내준 밥임을 알아보고는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자리에 앉게 했다. 그러고는 뜨거운 차 한 항아리를 끓여 사오정에게 건네어 밥을 말게 했다. 사오정은 곧 식은 밥을 차에 말아 삼장법사에게 건넸다. 삼장법사는 몇 입 먹고 한참 동안 마음을 가다듬더니 물었다. "누가 가서 집을 찾아오겠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재작년에 스승님께서 그를 쫓아내셨을 때 제가 한 번 찾아간 적이 있어 그가 화과산 수렴동에 있다는 걸 압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너는 안 된다. 그 원숭이는 원래 너와 사이가 좋지 않은 데다, 너는 말도 거칠어서 한두 마디 어긋나기라도 하면 그가 너를 때릴 것이다. 오정이를 보내거라." 사오정이 응낙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삼장법사가 다시 사오정에게 당부했다. "그곳에 가거든 반드시 형편을 잘 살펴야 한다. 그가 기꺼이 집을 내어주거든 짐짓 고맙다고 인사하고 받아 오너라. 만약 내주지 않거든 절대 다투지 말고, 곧장 남해 보살님께로 가서 이 사정을 아뢰어 보살님께서 그에게 직접 받아내 주시도록 청하여라." 사오정은 하나하나 새겨들었다. 그러고는 저팔계에게 말했다. "내가 이제 그를 찾아갈 테

니, 너는 부디 투덜대지 말고 스승님을 잘 모셔야 한다. 이 집에서도 행패를 부리지 마라, 행여 밥을 안 줄까 두렵다. 나는 다녀오마." 저팔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다만 가서 짐을 받든 못 받든 얼른 돌아와야 한다. 괜히 뽀족한 뿔대로 뿔감을 메다 양쪽이 다 빠지듯이 저도 안 되게 하지 말고." 사오정은 곧 결을 짚고 구름빛을 타고 동승신주를 향해 곧장 날아갔다. 참으로 이려하였다. 몸은 떠나 있으나 정신은 날아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화로는 있으나 불이 없으니 어찌 단약을 굶겠는가. 황과(黃婆)는 주인을 떠나 금공(金公)을 찾아가고, 목모(木母)는 스승을 붙들려 하나 병든 얼굴을 어이하리. 이번엔 떠난 길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고, 이번 걸음 언제 돌아올지 가늠하기 어렵도다. 오행의 생극(生剋)이 순탄치 않으니, 오직 심원(心猿)이 다시 관문에 들기만을 기다릴 뿐이로다.

사오정은 공중을 날아 삼 일 밤낮을 가던 중, 마침내 동쪽 바다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파도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니, 정말로 검은 안개가 하늘을 뒤덮어 음산한 기운이 가득했고, 푸른 바다는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머금은 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사오정은 경치를 구경할 마음도 없이, 신선이 사는 산을 지나 영주를 건너 동쪽 끝 화과산 경계까지 곧장 날아갔다. 바닷바람을 타고 물결을 밟으며 한참을 더 가니, 드디어 창을 꽂아놓은 듯 솟아오른 높은 봉우리와 병풍처럼 걸려 있는 험준한 절벽이 눈에 들어왔다. 봉우리 꼭대기에 다다른 사오정은 구름을 딛고 길을 찾아 내려가며 수렴동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니 산속에서 수많은 원숭이 정령들이 떼를 지어 떠들썩하게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오정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

펴보니, 바로 손오공이 돌 제단 위에 높이 앉아 양손으로 종이 한 장을 붙잡고 낭랑한 목소리로 읽고 있었다.

"대당의 황제 이성께서 어제(御弟) 성승 삼장법사 현장에게 명하시니라. 서방 천축국 사바세계 영산 대뢰음사로 가서 여래 부처님을 친히 배알하고 경전을 구하라 하셨도다. 짐이 병이 깊어 혼이 저승을 떠돌았으나, 다행히 수명이 길어 명부의 주인이 다시 삶으로 돌려보내 주었기에, 선한 모임을 넓게 열고 망자를 구제할 도량을 세우려 하노라. 이때 고통받는 이를 구제하는 관음보살께서 금빛 몸을 나타내시어, 서방에 부처와 경전이 있어 죽은 영혼을 구제하고 해탈하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도다. 이에 특별히 법사 현장을 명하여 수많은 산을 지나며 경전과 계송을 구하게 하노니, 만약 서방의 여러 나라를 지나게 된다면 이 문서를 보여주고 그대로 시행하라. 대당 정관 13년 가을 길일, 황제의 명을 담은 문서라. 여러 나라를 떠난온 이래 여러 나라를 거치며, 도중에 첫째 제자 손오공 행자와 둘째 제자 저팔계 오능, 셋째 제자 사오정 스님을 얻었도다."

손오공은 이 글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사오정이 그것이 통관문첩인 것을 듣고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달려나가 엄한 목소리로 외쳤다. "사형! 스승님의 통관문첩을 어찌하여 읽고 계십니까?"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급히 고개를 들었으나, 사오정을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쳤다. "잡아라, 잡아!" 원숭이들이 일제히 몰려들어 사오정을 이리저리 끌어당겨 앞으로 데려오더니 호통을 쳤다. "네놈은 누구냐! 감히 어디라고 우리 신선의 동굴에 함부로 발을 들여?" 사오정은 손오공이 얼굴을 싹 바꾸고 자신을 알아보려 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위를 향해 예를 갖추어 말했다. "사형께 아뢰입니다. 지난번에는 스승님의 성미가 급하여 사형을 잘못 오해하시는 바람에, 사형께 긴고주(緊箍兒咒)를 몇 번이나 외우며 집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첫째로는 저희가 제때 나서서 말리지 못했고, 둘째로는 스승님이 배고프고 목마르시다 하여 물과 음식을 구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뜻밖에 사형께서 좋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셨음에도 스승님이 법도를 고집하시며 붙잡지 않으시니, 화가 난 사형께서 스승님을 때려눕혀 땅에 쓰러져 혼절하게 하시고 짐까지 빼앗아 가셨습니다. 저희가 겨우 스승님을 깨워 모신 뒤, 사형을 뵙고자 특별히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 스승님을 원망하지 않으신다면, 예전에 저희를 해탈하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저와 함께 짐을 가지고 스승님을 뵙고 서천으로 가서 정과(正果)를 이루십시오. 하지만 원망이 너무 깊어 함께 가기 싫으시다면, 부디 짐 보따리만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사형께서는 이 깊은 산속에서 노년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두루 좋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손오공이 그 말을 듣고는 허허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우님, 그 말은 내 생각과 너무 다르구나. 내가 당승을 때리고 짐을 빼앗은 것은, 내가 서방으로 가지 않으려 해서도 아니고 이곳에 머물고 싶어서도 아니다. 내가 방금 통관문첩을 꼼꼼히 읽어 보았는데, 이제 나 혼자 서방으로 가서 부처님께 절하고 경전을 구하여 동토로 가져오겠다. 그러면 나 혼자 공을 이루어 저 남섬부주 사람들이 나를 시조로 받들고 만대에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이다." 사오정이 웃으며 대답했다. "형님, 말씀이 온당치 않습니다. 예부터 손오공이 경전을 구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여래 부처님께서 삼장진경을 만드신 것은 본래 관음보

살게서 동토로 경전 구할 사람을 찾아 나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산을 고생하며 넘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그 경전 구하는 이를 보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전을 구하는 이는 여래의 제자인 금선장로(金蟬長老)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지 않아 영산에서 쫓겨나 동토에 다시 태어났으니, 서방으로 가서 정과를 이루고 다시 큰 도를 닦게 하려는 것입니다. 길에서 이런 마장(魔障)을 만나게 되어 있어 우리 세 사람을 해탈시켜 그의 호법(護法)으로 삼으신 것이지요. 형님께서 만약 당승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어느 부처님께서 형님에게 경전을 전해주시겠습니까? 괜히 헛수고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아우님, 너는 본디 어리석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네가 당승을 데리고 나와 함께 보호한다고 해서, 나에게는 당승이 없단 말이나? 내가 여기서 도를 깨우친 참된 승려를 따로 골라 경전을 구하게 하고, 이 손오공이 홀로 힘으로 보필하면 무엇이 안 되겠느냐? 이미 내일 아침 일찍 떠나기로 정했다. 믿기지 않거든 내가 모셔올 테니 와서 보아라!" 손오공은 곧바로 소리쳤다. "애들아, 어서 스승님을 모셔 오너라!" 과연 즐거들이 안으로 달려 들어가 백마 한 마리를 끌고 나오고, 당승 한 명을 모셔나왔다. 뒤이어 짐을 짊어진 저팔계 하나와, 석장(錫杖)을 든 사오정 하나가 따라 나왔다.

이 광경을 본 사오정은 크게 화가 나서 외쳤다. "나 사오정은 다녔도 이름을 바꾸지 않고 앞아도 성을 같지 않거늘, 어디서 또 다른 사화상(沙和尚)이 나타났단 말이나! 무례하게 굴지 마라, 내 지팡이 맛이나 봐라!" 사오정이 양손으로 향요장(降妖杖, 요괴를 항복시키는 지팡이)을 높이 들어 가짜 사오정의 머리를 정면으로 내리쳐 단숨에 때려죽이

니, 알고 보니 그것은 요괴 원숭이였다. 이에 손오공이 화가 나 여의금 고봉을 휘두르며 원숭이 무리를 거느리고 사오정을 에워쌌다. 사오정은 이리저리 부딪히며 싸우다 겨우 길을 터서 빠져나왔고, 구름과 안개를 타고 도망치며 말했다. "이 망할 원숭이 녀석이 이토록 막돼먹었다니, 보살님께 가서 이 사실을 고하리라!" 손오공은 사오정이 요괴 원숭이를 때려죽이고 사화상을 몰아내 도망치게 한 것을 보고도 굳이 뒤쫓지는 않았다. 그는 동굴로 돌아가 부하들에게 죽은 요괴의 시체를 한쪽으로 끌어다 놓게 한 뒤,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볶아 코코넛 술과 포도주를 곁들여 원숭이 무리와 함께 모두 먹어 치웠다. 그러고는 변신술을 부릴 줄 아는 다른 요괴 원숭이를 골라 다시 사화상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고 새로 가르쳐, 서방으로 떠나려 하였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줄인다.

사오정은 구름을 타고 동해를 떠나 낮밤으로 쉬지 않고 달려 남해에 이르렀다. 길을 가던 중 멀리 낙가산이 보이자, 급히 다가가 구름 아래로 내려다보며 살피니 과연 명소였다! 시로 이르되,

"우주의 오묘한 이치를 품고 온 세상을 아우르는 곳이라. 백 개의 강물이 모여 해와 별을 씻어내고, 수많은 물줄기가 돌아와 바람과 달빛을 일으키네. 조수가 일면 거대한 물고기가 솟구치고, 파도가 넘실대면 큰 거북이 노니는구나. 물길은 서북쪽 바다로 통하고, 물결은 정동쪽 대양과 맞닿아 있네. 사해는 지맥을 따라 하나로 이어져 있고, 신선이 사는 섬과 대륙마다 선궁이 가득하구나. 세상에 가득한 봉래산을 말할 것도 없이, 여기 보타락가산의 구름 낀 동굴을 보라. 참으로 아름다운 경치로다! 산꼭대기는 노을빛이 찬란하여 신령한 기운이 넘치고, 바위

아래는 상서로운 바람이 불어 달빛처럼 맑게 일렁이네. 자죽림 속에는 공작이 날아다니고, 푸른 버드나무 위에서는 영리한 앵무새가 지저귀네. 기이한 꽃과 보석 같은 풀은 해마다 빼어나고, 보배로운 나무와 금빛 연꽃은 매년 피어나는구나. 백학은 몇 번이고 산 정상에 머물다 가고, 흰 난새는 여러 차례 산 정자에 찾아오네. 노니는 물고기조차 참된 성품을 닮는 법을 알아, 파도를 헤치며 경전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사오정은 낙가산에 천천히 내려와 신선 세계의 풍경을 감상했다. 그때 목차행자가 마중 나와 말했다. "사오정, 당승을 보필하여 불경을 구해야 할 네가 여기는 어찌하여 왔느냐?" 사오정이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리고 말했다. "보살님을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 왔으니, 부디 보살님께 인도해 주십시오." 목차행자는 그가 손오공을 찾아온 것임을 눈치챘으나 굳이 입 밖에 내지 않고, 먼저 안으로 들어가 보살님께 고했다. "밖에서 당승의 제자 사오정이 보살님께 문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한편, 대 아래에 있던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이것 봐라, 분명 당승에게 큰 어려움이 생겨서 사오정이 보살님께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로구나." 보살이 목차에게 문밖으로 불러들이라 명했다. 사오정이 안으로 들어와 몸을 굽혀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들어 방금 있었던 일을 말하려는데, 갑자기 옆에 서 있던 손오공이 보였다. 사오정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항마봉을 휘둘러 손오공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다. 손오공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몸을 휙 피해냈다. 사오정이 입을 놀려 욕을 퍼부었다. "이 열 가지 죄를 다 지은 반역자 같은 원숭이 놈!

네가 또 보살님을 속이려 드는구나!" 그러자 보살이 꾸짖었다. "오정아, 손을 대지 마라. 무슨 일이 있는지 먼저 내게 말해 보아라."

사오정이 보패인 보장(寶杖)을 거두어 들고 다시 대 아래에서 절을 올리더니, 몹시 화가 난 기색으로 보살에게 말했다.

"이 원숭이가 저지른 흉악한 짓은 차마 셀 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산비탈 아래에서 길을 막는 강도 두 명을 때려죽였는데, 스승님께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날 저녁에 도적 떼의 소굴에 들어가 주인집에 머물더니, 도적 무리를 모조리 다 때려죽이고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 머리 하나를 들고 와서 스승님께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까? 스승님께서서는 너무 놀라 말에서 떨어지셨고, 그를 꾸짖으며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뒤에 스승님께서 너무 배고프고 목이 마르시다고 하여, 저팔계에게 물을 찾아오라고 시키셨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기에 제가 대신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손오공이 저희 둘이 없는 사이에 다시 돌아와 스승님을 몽둥이로 때려눕히고는, 짐 꾸러미 두 개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저희가 돌아와서 스승님을 겨우 깨워 모시고, 짐을 돌려받으러 수렴동에 있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는 안색을 싹 바꾸더니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스승님을 가두어 둔 채 경전만 계속 읽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엇 때문에 읽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제 당승을 모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서천으로 가서 경전을 가져와 동토로 보냄으로써, 자신의 공덕을 세우고 자신을 조상으로 삼아 만세에 이름을 떨치

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다시 '당승이 없는데 어떻게 경전을 전해주겠느냐'라고 말하자, 그는 이미 도를 깨우친 참된 승려를 한 명 골라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셔오라고 했더니, 보니 정말로 백룡마 한 마리와 당승 한 명, 그리고 그 뒤를 저팔계와 사오정이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가 바로 사오정인데, 저기 또 다른 사오정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보장으로 그를 때렸더니, 알고 보니 요망한 원숭이놈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부하들을 시켜 저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께 이 사실을 고하러 온 것입니다. 손오공이 근두운을 부려 미리 이곳에 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교묘한 말로 보살님을 속이려 들지도 알 수 없습니다."

보살이 말했다.

"오정아, 남을 탓하지 마라. 손오공은 이곳에 온 지 벌써 나흘이 되었고, 내가 그를 돌려보낸 적도 없는데, 그가 어찌 당승을 새로 모셔 경전을 구하러 가겠다는 생각을 했겠느냐?"

사오정이 말했다.

"지금 수렴동에 손오공이 버젓이 있는데, 어찌 감히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보살이 말했다.

"그렇다면 너무 서두르지 마라. 손오공을 너와 함께 화果산에 보내서 직접 확인하게 하거라. 그것이 진짜 요괴인지, 아니면 가짜를 없애기 쉬운 것인지 가서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곧 사오정과 함께 보살님께 작별 인사를 올렸다. 이번에 가면 저곳에 이르러:
화과산 앞에서 흑백을 가려내고, 수렴동 입구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

결국 일이 어떻게 풀릴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8회 — 두 마음이 대건곤을 어지럽히고, 한 몸으로는 진정한 적멸을 닦기 어렵다

二心攪亂大乾坤 一體難修真寂滅

손오공과 사오정은 관음보살에게 작별 인사를 올린 뒤, 두 줄기 상서로운 빛을 일으키며 남해를 떠났다. 원래 손오공은 근두운을 타는 솜씨가 매우 빨랐고, 사오정은 신선이 타는 구름을 다루는 것이 조금 느렸기에 손오공이 앞서가려 했다. 그러자 사오정이 손오공을 붙잡으며 말했다.

"형님, 그렇게 앞서가며 숨지 마시고 먼저 가서 자리를 잡으십시오. 저도 형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손오공은 본래 마음씨가 착했으나, 사오정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구름을 타고 떠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과연 화과산이 보였다. 두 사람이 구름을 낮추어 동굴 밖을 자세히 살펴보니, 과

연 손오공과 똑같이 생긴 이가 하나 있었다. 그는 돌로 된 평상 위에 높이 앉아 원숭이 무리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 모습은 손오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황금빛 머리카락에 금고아를 쓰고, 눈은 금빛 광채가 도는 화안금정이었으며, 몸에는 면직물로 만든 도포를 입고 허리에는 호랑이 가죽 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손에는 똑같이 생긴 금빛 철봉을 들고 있었고, 발에는 사슴 가죽 장화를 신고 있었다. 게다가 털이 숭숭 난 얼굴에 천둥을 닮은 입, 턱수염이 덩수룩한 모습, 넓은 귀와 이마, 그리고 밖으로 툭 튀어나온 송곳니까지 그 모습이 손오공과 판박이었다.

손오공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사오정을 내팽개치고 철봉을 휘두르며 앞으로 달려 나가 꾸짖었다. "네 이놈, 대체 어떤 요괴길래 감히 내 모습으로 변신하여 내 자손들을 가로채고, 내 신선 동굴을 차지한 채 위세를 부리는 것이냐!" 그러자 상대 요괴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똑같이 철봉을 휘두르며 맞서 싸웠다. 두 행자가 한데 뒤섞여 싸우니, 정말이지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싸움이였다.

시로 이르되,

두 개의 철봉과 두 마리의 원숭이, 이 싸움의 기세는 결코 가뻐지지 않구나. 둘 다 당나라 황제의 제자를 지키려 하며, 각자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려 하네. 진짜 원숭이는 사슴의 가르침을 받았건만, 가짜 괴물은 부처의 제자인 양 행세하는구나. 신통력이 워낙 뛰어나 변화무쌍하니, 진짜와 가짜가 막상막하로 맞서네. 한쪽은 혼원일기의 제천대성이요,

다른 쪽은 천령을 닮은 축지령이라. 이쪽은 여의금고봉이요, 저쪽은 수심철간병이라. 봉과 봉이 맞부딪쳐도 승부를 알 수 없고, 서로 버티며 싸워도 누가 이기고 지는지 모르겠구나. 처음에는 동굴 밖에서 맞붙더니, 어느덧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싸우는구나.

두 행자는 구름을 밟고 날아올라, 구만리 높은 하늘 위 구름 속으로 뛰어들었다.

사오정은 곁에서 지켜보며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두 사람이 한바탕 싸우는 것을 보니 정말이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칼을 뽑아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칫 진짜를 다치게 할까 봐 두려웠다. 한참을 참던 사오정은 결국 몸을 날려 산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요괴를 물리치는 보물 지팡이를 휘둘러 수렴동 근처의 물줄기를 내리쳤다. 요괴들이 놀라 흩어지는 사이, 돌의자가 뒤집히고 술과 고기를 담았던 그릇들이 모조리 박살이 났다. 사오정은 손오공의 짐 꾸러미를 찾아보았으나 사방을 둘러봐도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원래 수렴동은 폭포수가 동굴 입구를 가리고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하얀 휘장 같고 가까이서 보면 거센 물줄기가 쏟아지는 곳이라 하여 수렴동이라 불리는 것이었다. 사오정은 동굴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기에 짐을 찾기가 무척 어려웠다. 사오정이 구름을 타고 아홉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 지팡이를 휘둘러 보았으나, 역시나 함부로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사오정, 네가 도와줄 수가 없다면 스승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전해라. 이 늙은 원숭이가 이 요괴

와 싸우며 남해 낙가산의 관음보살님 앞에 가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테니까!"

행자 역시 똑같이 말했다. 사오정은 두 사람의 생김새와 목소리가 조금의 차이도 없이 똑같아 도저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었다. 결국 사오정은 그 말대로 구름을 돌려 당승에게 돌아가 상황을 보고했다.

저 두 행자를 보아라. 싸우면서도 길을 가더니, 어느덧 남해에 이르러 낙가산까지 들이닥쳤다. 서로 치고받고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우니 그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소동에 놀란 호법신들이 즉시 조음동 안으로 달려가 보고했다.

"보살님, 정말로 손오공 두 마리가 싸우며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관음보살이 목차행자, 선재동자, 용녀와 함께 연꽃 보좌를 타고 내려와 문밖으로 나서며 호통을 쳤다.

"이 요망한 짐승들아, 어디를 가느냐!"

두 손오공은 서로를 붙잡고 늘어지며 말했다.

"보살님, 이놈은 정말 제 모습과 똑같습니다. 수렴동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어 한참을 싸웠으나 좀처럼 승부가 나질 않습니다. 사오정은 눈이 어두워 분간을 못 하기에, 힘을 보태기 어려워 일단 스승님께 보고하라고 서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이놈과 보물 같은 보살님의 산까지 싸우며 올라왔으니, 부디 보살님의 지혜로운 눈으로 제 진위를 가려주시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밝혀 주십시오."

옆에 있던 다른 손오공도 똑같이 말했다.

천신들과 관음보살이 한참 동안 유심히 살펴보았으나, 도무지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보살이 말했다.

"일단 손을 놓고 양옆으로 물러나 서 있거라. 내가 다시 살펴보겠다."

두 손오공은 보살의 말대로 손을 놓고 양옆에 나란히 섰다. 그러자 한쪽이 말했다.

"제가 진짜입니다."

그러자 다른 쪽이 말했다.

"저놈이 가짜입니다."

관음보살은 목차행자와 선재동자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뒤, 나직이 일렀다. "너희 둘이 각각 한 명씩 붙잡아라. 내가 몰래 긴고주(머리테 조이는 주문)를 외울 것이니, 머리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쪽이 진짜이고, 아프지 않은 쪽이 가짜다." 두 동자는 보살의 말대로 각각 한 명씩 붙잡았다. 보살이 몰래 주문을 외우자, 두 명 모두 동시에 머리가 아프다며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땅바닥을 뒹굴며 "제발 외우지 마세요, 제발 외우지 마세요!"라고 울부짖었다. 보살이 주문을 멈추면, 두 사람은 다시 동시에 달려들어 싸우기 시작했다. 보살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제천신들과 목차행자에게 앞으로 나와 도와 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신선들은 혹시라도 진짜 손오공이 다칠까 봐 감

히 손을 쓰지 못했다. 보살이 "손오공!" 하고 부르자,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보살이 말했다. "너는 예전에 필마온이라는 관직을 지냈고, 천계를 뒤흔들며 난동을 부렸을 때 모든 신장들이 너를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 네가 직접 천계로 올라가 진위를 가려보고 보고하거라." 그러자 손오공은 은혜에 감사하며 물러났고, 가짜 손오공 역시 은혜에 감사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서로 끌어당기고 밀치며 입으로는 쉴 새 없이 싸워대더니, 어느덧 남천문 밖까지 이르렀다. 이에 당황한 광목천왕이 마·조·온·관 네 천장과 문을 지키는 크고 작은 신들을 거느리고 달려와, 각자의 병기로 길을 막아서며 말했다. “어디를 가느냐? 여기가 싸움터인 줄 아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저는 당승을 보호하며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에, 길 위에서 도적들을 때려죽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삼장법사가 저를 쫓아버리기에, 저는 곧장 보타애로 가서 관음보살님을 뵙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요괴가 어느새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하여 당승을 쓰러뜨리고 짐 보따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사오정이 화과산으로 가서 찾으려 했으나, 이 요괴가 이미 제 소굴을 차지하고 있더군요. 그 뒤 사오정이 보타애로 가서 보살님께 고하려다가, 보살님을 곁에서 모시고 서 있는 저를 보고는, 제가 근두운을 타고 먼저 보살님 계신 곳에 와서 시치미를 떼며 일을 둘러대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보살님께서는 공정하고 밝으셔서 사오정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화과산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 요괴가 정말로 이 늙은 손오공과 똑같이 생겨서, 수렴동에서부터 낙가산 보살님 계신 곳까지 싸우며 올라왔는데 보살님조차도 구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싸우며 왔으니, 부디 천계의 여러 신들께서 안목을 발휘하여 누가 진짜 이고 누가 가짜인지 가려 주십시오.” 손오공이 이처럼 사정을 한 차례 늘어놓자, 저쪽 행자도 똑같이 한 차례 늘어놓았다. 그러나 여러 천신이 한참을 지켜보아도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두 손오공은 소리를 지르며 외쳤다. “당신들이 가려낼 수 없다면 길을 비켜라! 우리가 직접 옥황상제를 뵈겠다!”

신선들이 밀려드는 기세를 막아내지 못해 결국 천문을 열어주었고, 싸움은 영소보전까지 이어졌다. 마 원수와 장, 갈, 허, 구 네 명의 천사가 달려가 고했다. "하계에서 똑같이 생긴 손오공 두 마리가 천문까지 쳐들어와 옥황상제를 뵈겠다고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손오공은 소란을 피우며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 소란에 옥황상제가 보전에서 내려와 물었다. "너희 둘은 무슨 연유로 천계를 이토록 어지럽히며, 감히 내 앞에까지 와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냐?"

손오공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만세, 만세! 신은 이제 귀의하여 불도를 따르는 수행자가 되었으니, 다시는 마음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요괴가 저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손오공은 앞뒤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간청했다. "부디 신과 저놈 중 누가 진짜인지 가려 주시옵소서."

옆에 있던 다른 손오공 역시 똑같이 사정을 늘어놓았다. 옥황상제는 즉시 이천왕에게 명을 내려 말했다. "조요경(요괴를 비추는 거울)을 가

저와 이놈들 중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비추어 보아라. 가짜는 멀
하고 진짜만 남게 하라."

이천왕이 즉시 거울을 가져와 비추자, 옥황상제와 여러 신선이 함께
살펴보았다. 하지만 거울 속에는 두 손오공의 그림자가 똑같이 나타났
을 뿐, 머리에 쓴 금고나 옷차림,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조금의 차이도
없었다. 옥황상제조차 진위를 가려내지 못하고 결국 두 손오공을 전각
밖으로 쫓아버렸다.

손오공은 허허거리며 냉소를 지었고, 가짜 손오공 역시 하하 웃으며
기뻐했다. 두 원숭이는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목을 휘감으며 한바탕 난
투를 벌이다가, 다시 남천문을 뚫고 나와 서천으로 가는 길 위로 떨어
졌다. 그러고는 서로 외쳤다.

"스승님을 만나러 가자! 스승님을 만나러 가자!"

한편, 사오정은 화과산에서 두 원숭이와 작별하고 다시 사흘 밤낮을
걸어 원래 머물던 곳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그간 있었던 일을 당승에
게 하나하나 상세히 고했다.

그 말을 들은 당승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한탄했다. "그때는 그저 손
오공이 나를 몽둥이로 치고 짐 보따리를 빼앗아 간 줄로만 알았는데,
세상에, 그게 요괴가 손오공으로 변신한 것이었다니!"

사오정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 요괴는 법사님을 모시는 장로와 백
룡마까지 가짜로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저팔계가 우리 짐을 메고 가
는 것처럼 꾸미고, 저를 가짜 사오정으로 변신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몽둥이로 한 대 쳤더니 요괴가 죽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원숭이 요괴였습니다. 그래서 혼비백산하여 관음보살님께 달려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보살님께서서는 사형과 함께 다시 가서 진짜를 확인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 요괴가 사형과 모습이 똑같아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승님께 먼저 상황을 보고하러 온 것입니다."

당승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크게 놀랐다. 그러자 저팔계가 허허 웃으며 호탕하게 말했다. "하하하, 정말 대단하군요! 예전에 어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에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바로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집안의 노인과 아이들이 모두 달려와 사오정에게 물었다. "요 며칠 동안 어디에 가서 여비를 구하러 다녔느냐?" 사오정이 웃으며 대답했다. "큰사형을 만나 집을 챙기러 화과산에 갔다가, 관음보살님을 뵙기 위해 남해 낙가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화과산에 들렀다가 이제 막 이곳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노인이 다시 물었다. "왕복 거리가 얼마나 되더냐?" 사오정이 말했다. "대략 20여 만 리는 될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깜짝 놀라 외쳤다. "아이고, 세상에! 고작 며칠 사이에 그 먼 길을 다 다녀왔단 말이나?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지 않고서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자 저팔계가 거들었다. "구름을 타지 않고 어떻게 바다를 건너겠습니까?" 사오정이 말했다. "우리는 걷는 것으로 치지만, 우리 큰사형이라면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집안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신선이라고

믿었다. 저팔계가 너스레를 떨며 말했다. “우리가 비록 신선은 아닐지 몰라도, 신선들은 우리보다 한참 아랫사람이라니까요!”

이야기는 이러하다. 갑자기 공중에서 요란한 소란이 들려왔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와 살펴보니, 두 명의 행자가 서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이를 본 저팔계는 몸이 근질근질하여 참지 못하고 말했다.

“내가 가서 확인 좀 해봐야겠어.”

성격 급한 저팔계는 훌쩍 몸을 날려 공중으로 뛰어오르더니, 하늘을 향해 크게 외쳤다.

“사형, 그만 싸워요! 이 저팔계가 갑니다!”

그러자 두 행자가 동시에 대답했다.

“형제여, 요괴를 잡으러 왔소, 요괴를 잡으러 왔소!”

그 소리에 집주인이 놀라면서도 반가워하며 말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나한님들이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시다니요! 공양을 올리려던 스님들도 이렇게 훌륭한 분들은 모시지 못할 겁니다.”

집주인은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정성껏 대접하기에 바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하며 덧붙였다.

“그런데 저 두 행자가 싸우다가 천지가 뒤집히고 큰 사고라도 치면 어쩌나 모르겠습니다!”

삼장법사는 노인이 앞에서는 기뻐하면서도 뒤에서는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노보살님, 안심하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빈승이 제자를 잘 다스려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길로 돌아오게 할 테니, 그때 다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이 연신 대답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별말씀을요.”

사오정이 거들었다.

“보살님, 걱정 마세요. 스승님은 여기 앉아 계십시오. 저와 둘째 형님이 가서 두 사람을 한 명씩 붙잡아 스승님 앞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그때 스승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주문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사오정이 공중에 떠 있는 채로 외쳤다. “두 분, 일단 멈추세요! 제가 스승님께 모시고 가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보겠습니다.” 그 말에 손오공도, 가짜 손오공도 붙들고 있던 손을 놓았다. 사오정이 한 명을 부축하며 소리쳤다. “둘째 형님, 형님도 한 명을 붙잡으세요!” 사오정의 말대로 두 손오공은 각각 한 명씩 붙잡고 구름을 타고 내려가 초가집 문 앞에 이르렀다. 삼장법사는 그들을 보자마자 곧장 긴고주(머리테 조이

는 주문)를 외우기 시작했다. 두 손오공은 동시에 괴로워하며 소리쳤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어찌 우리에게 주문을 거십니까? 제발 외우지 마세요, 제발!” 자비로운 성품을 가진 삼장법사는 그 말을 듣고 주문 외우기를 멈추었으나, 여전히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지 못했다. 두 손오공은 붙잡혔던 손을 뿌리치고는 다시 싸우기 시작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형제들은 스승님을 잘 보살펴라. 나는 저놈과 염라대왕 앞까지 가서 진위를 가려내겠다!” 가짜 손오공도 똑같이 외쳤다. 두 사람은 서로 뒤엉켜 싸우더니 순식간에 다시 자취를 감추었다.

저팔계가 말했다. "사오정, 네가 수렴동에 갔을 때 가짜 저팔계가 짐을 지고 있는 걸 봤으면서 왜 뺏어오지 않았느냐?"

사오정이 대답했다. "그 요괴가 제가 보물 지팡이를 휘둘러 가짜 사오정을 때리는 걸 보고는, 정신없이 달려들어 저를 잡으려 하기에 목숨을 아끼느라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후 보살님께 보고드리고 손오공과 함께 다시 동굴 입구로 돌아갔는데, 두 사람이 공중에서 싸우고 있더군요. 제가 그놈의 돌의자를 건어차고 부하 요괴들을 흠어놓으려 했지만, 폭포수가 세차게 쏟아져 내려와 동굴 입구가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짐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와 스승님께 보고드린 것입니다."

저팔계가 말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재작년에 그놈을 찾아갔을 때는 먼저 동굴 밖에서 마주쳤단 말이다. 내가 그놈의 정체를 들춰내자마자 그놈이 아래로 뛰어내려 동굴 안에서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데, 그때 그놈이 물속으로 몸을 쑥 집어넣는 걸 내가 똑똑히

봤다. 저 폭포수가 바로 동굴 입구야. 분명 그 괴물이 우리 보따리를 저 안에 숨겨두었을 게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네가 그 입구를 안다면, 마침 놈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얼른 동굴에 들어가 짐을 찾아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바로 서천으로 떠날 수 있겠구나. 나중에 놈이 돌아온다 해도 나는 이제 필요 없으니 말이다."

저팔계가 말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사오정이 말했다. "둘째 형님, 저 동굴 앞에는 수천 마리의 작은 원숭이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형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오히려 일을 그르칠까 걱정됩니다."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걱정 마!"

그러고는 급히 문을 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올라, 곧장 화과산으로 달려가 짐을 찾으러 떠났다.

한편, 두 행자는 다시 싸우며 음산 너머까지 들이닥쳤다.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산에 가득하던 귀신들은 벌벌 떨며 여기저기 숨기 바빴다. 먼저 도망친 귀신 하나가 저승의 문을 뚫고 들어가 삼라보전에 보고했다.

"대왕님, 음산 위에 제천대성 두 명이 나타나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첫 번째 전각의 진광왕이 다급히 보고를 올리자, 이어서 두 번째 전각의 초강왕, 세 번째 전각의 송제왕, 네 번째 전각의 변성왕, 다섯 번째 전각의 염라왕, 여섯 번째 전각의 평등왕, 일곱 번째 전각의 태산왕, 여덟 번째 전각의 도시왕, 아홉 번째 전각의 오관왕, 그리고 열 번째 전각의 전륜왕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졌다. 한 전각에서 다음 전각으로 보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니, 순식간에 열 명의 왕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또한 지장보살에게 이 사실을 급히 알렸다. 모든 왕이 삼라보전에 모여 음병들을 불러 모은 뒤, 진짜와 가짜를 붙잡기 위해 대기했다.

그때,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창백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더니, 두 행자가 공중을 날고 땅을 구르며 삼라보전 아래까지 들이닥쳤다.

음균(저승의 왕)이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대성께서는 무슨 일로 이 저승을 소란스럽게 하시는 것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내가 당승을 모시고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던 중 서량국을 지나 어느 산에 이르렀을 때, 강도들이 나타나 스승님을 가로막고 약탈했소. 이 몸이 그놈들을 몇 놈 때려죽였더니 스승님께서 나를 탓하며 쫓아내셨소. 그래서 곧장 남해 보살님께 가서 하소연했는데, 그 요괴가 어느 틈엔가 그 기회를 틈타 내 모습으로 변신해서는 도중에 스승님을 쓰러뜨리고 짐을 빼앗아 갔소. 사제 사오정이 내 본산으로 짐을 찾으러 가니, 이 요괴가 스승의 이름을 거짓으로 내세워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겠다고 하더라오. 사오정이 빠져나와 남해로 보살님을 뵈러 왔을 때 마침 나도 그 곁에 있었소. 사오정이 자초지종을 말하자 보살님께서 나와 사오정을 함께 화과산으로 보내 살펴보게 하셨는데, 과연 그놈이 내 소굴을

차지하고 있었소. 그놈과 진위를 다투며 보살님 계신 곳까지, 또 천궁까지, 또 스승님 앞까지 싸우며 다녔으나 모두 가려내지 못했소. 스승님을 뵈었을 때 스승님이 긴고주를 외워 시험하셨더니 그놈도 나와 똑같이 아파했소. 그래서 이렇게 저승까지 소란을 일으키며 온 것이니, 음군께서는 부디 나를 위해 생사부를 살피 저 가짜 행자가 어떤 출신인지 보아 주시오. 어서 그놈의 혼백을 잡아들여 두 마음이 어지러이 날뛰는 일을 없애 주시오.” 요괴 또한 똑같이 한 번 더 말했다. 음군이 이 말을 듣고 즉시 명부를 관장하는 판관을 불러 처음부터 하나하나 조사하게 했으나, 가짜 행자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시 모충문부(털달린 짐승들의 명부)를 살피보니 원숭이에 관한 항목이 130조(條)나 되었는데, 이는 이미 손대성이 어린 시절 도를 깨우쳤을 때 저승을 크게 소란스럽게 하여 죽음의 명부에서 그 이름들을 지우고 단번에 줄을 그어 말소해 버린 것이었다. 그 뒤로 원숭이에 속하는 것들은 모두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았다. 조사를 마친 뒤 판관이 전각으로 돌아와 보고했다. 음군들이 저마다 홀을 쥐고 행자에게 말했다. “대성, 저승에는 조사할 만한 이름이 없으니, 다시 양세(인간 세상)로 돌아가 판가름을 내셔야겠습니다.”

지장보살이 말했다. “잠깐, 잠깐 기다려라. 내 체청(諦聽)을 불러 너희에게 진위를 가려 들려주마.” 본래 체청이란 지장보살의 경안(經案, 불경을 놓는 책상) 아래 엎드려 있는 짐승의 이름이다. 이 짐승이 땅에 엎드리면 순식간에 사대부주의 산천과 사직, 동천복지 사이의 나충(蠃蟲)·인충(鱗蟲)·모충(毛蟲)·우충(羽蟲)·곤충(昆蟲)과 천선·지선·신선·인선·귀선에 이르기까지 선악을 비추어 보고 어질고 어리석음을 살피 들을 수 있다. 그 짐승이 지장보살의 명을 받들어 삼라전 마당에 엎드

렸다. 잠시 후 고개를 든 체청이 지장보살에게 말했다. “괴물의 이름이 있기는 하나, 면전에서 정체를 밝혀서는 안 됩니다. 또한 힘을 보태어 그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지장보살이 물었다. “면전에서 밝히면 어찌 되느냐?” 체청이 대답했다. “면전에서 정체를 드러내면, 요괴가 악을 부려 보전을 휘저어 놓아 저승이 불안해질까 두렵습니다.” 지장보살이 다시 물었다. “어찌하여 힘을 보태어 잡을 수 없다는 것이냐?” 체청이 말했다. “요괴의 신통력이 손대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승의 신들이 가진 법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잡을 수 없습니다.” 지장보살이 물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물리쳐야 하느냐?” 체청이 말했다. “부처님의 법은 끝이 없습니다.” 지장보살은 이미 깨닫고 행자에게 말했다. “너희 둘은 생김새가 똑같고 신통력 또한 차이가 없구나. 진위를 밝히려면 반드시 서천 뇌음사의 석가여래께 가야만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행자가 일제히 외쳤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서천의 부처님 앞에 가서 가려보겠습니다!” 열 명의 음군이 그들을 배웅하고 지장보살에게 인사를 올린 뒤 취운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귀신 사자들에게 명하여 저승의 관문을 닫게 했다. (이 일은 더 이야기하지 않는다.)

두 행자가 구름을 가르고 안개를 헤치며 서천으로 날아 올라가 싸우니, 이에 시로 증명하노라.

시로 이르되, "사람의 마음에 두 마음 생기면 재앙이 일고, 하늘 끝 바다 끝까지 의심과 시기만 가득하네. 보배로운 말과 높은 관직을 탐내면서도, 금빛 화려한 궁궐의 자리를 잊지 못하네. 동쪽으로 막고 서쪽으로 치며 쉬지 않고 싸우니, 끝내 진실을 가리지 못해 갈피를 못 잡는

구나. 선문(禪門)의 도를 닦으려면 무심(無心)의 비결을 배우고, 정성으로 마음을 길러 성스러운 참된 본성을 맺어야 하리."

두 사람은 공중에서 서로 옷자락을 잡아끌고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싸우고 또 싸우며 날아갔다. 그렇게 소란을 피우며 도착한 곳은 서천 영취산 뇌음사의 사찰 밖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사대보살과 팔대금강, 오백 나한, 삼천 제기, 비구니와 비구, 우바새와 우바이 등 수많은 성스러운 무리가 칠보 연화대 아래 모여 앉아, 여래의 법문을 경건히 듣고 있었다. 여래가 마침 법문을 설하고 계셨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다.

"있음 속에 없음이 있고, 없음 속에 또한 없음이 있다. 색(色, 형체가 있는 것) 가운데 색이 있고, 공(空, 형체가 없는 것) 가운데 공이 있다. 유위(有爲, 인연에 따라 만들어진 것)를 있음이라 하지 말고, 무위(無爲, 인연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은 것)를 없음이라 하지 말라. 색을 색이라 하지 말고, 공을 공이라 하지 말라. 공이 곧 공이며 색이 곧 색이다. 색은 정해진 색이 아니니 색이 곧 공이요, 공은 정해진 공이 아니니 공이 곧 색이다. 공을 알되 공이라 생각하지 않고, 색을 알되 색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 이를 일러 밝게 비추어 깨닫는다고 하며, 비로소 오묘한 진리의 소리에 도달하게 된다."

모든 무리가 머리를 조아려 귀의하고 법문을 함께 암송하고 있을 때, 여래께서 하늘에서 꽃을 내리시니 그 꽃잎이 어지러이 흩날렸다. 여래께서는 보좌에서 일어나 대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모였으나, 저기 두 마음이 서로 싸우며 달려오는 것을 보아라."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보니, 과연 똑같이 생긴 두 명의 행자가 하늘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통에 그 기세가 뇌음사의 성스러운 경지까지 이르렀다. 이에 당황한 팔대금강이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너희는 대체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그러자 손오공이 외쳤다. “요괴가 내 모습으로 변신했소! 저 보련대 아래로 가서 여래 부처님께 누가 진짜인지 가려달라고 할 것이오!”

금강신들이 막아섰으나 두 손오공의 기세를 당해낼 수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불단 아래까지 몰아붙여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간청했다. “제자들은 당승을 보필하여 보배로운 산으로 향하며 진경을 구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마물과 요괴를 물리치느라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길에서 강도를 만나는 바람에 제자들이 몇 명을 다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서는 이를 꾸짖으며 급히 돌아가라 하셨고, 부처님의 금신 앞에 함께 엎드려 절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남해로 달려가 관음보살님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요괴가 제자의 목소리와 모습까지 똑같이 흉내 내어 스승님을 쓰러뜨리고 짐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사제인 사오정이 저를 찾아왔으나, 이 가짜 요괴가 교묘한 말로 진짜 승려가 경전을 구하러 가는 중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사오정마저 속아 넘어갔습니다. 사오정이 겨우 빠져나와 남해에서 자세한 사정을 알린 뒤, 관음보살님의 명을 받아 저와 함께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해 남해에서 싸우고, 천계까지 올라가 싸웠으며, 당승을 만났을 때도, 명부에 갔을 때도 모두 진위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부디 자비로

운 마음을 베풀어 저희 중 누가 옳고 그른지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당승을 잘 보필하여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고, 경전을 가져가 동토로 돌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원히 널리 펼칠 수 있겠나이다.”

두 사람이 입을 열 때마다 목소리가 똑같았고, 하는 말조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같으니 지켜보던 이들도 도저히 분간할 수 없었다. 오직 여래 부처님만이 그 속사정을 꿰뚫어 보고 정체를 밝히려던 찰나, 갑자기 남쪽 채운 사이에서 관음보살이 다가와 부처님께 참배하는 모습이 보였다.

부처님이 합장하며 말씀하셨다. “관음보살님, 저 두 행자 중에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보이십니까?”

보살이 대답했다. “며칠 전 제자의 거처에 왔을 때는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천계와 명부까지 다녀왔지만 역시 알아볼 길이 없었기에, 부디 여래님께 여쭙어 그들의 진위를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청하러 왔습니다.”

여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법력이 아무리 광대하다 한들, 온 세상의 일을 두루 살필 수는 있어도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알 수는 없으며, 세상의 온갖 종류를 하나하나 다 파악할 수는 없는 법이라네.”

보살이 다시 세상의 만물 종류에 대해 가르침을 청하자, 여래께서 그제야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는 다섯 부류의 선(仙)이 있으니 하늘, 땅, 신, 사람, 귀신이요, 다섯 부류의 벌레가 있으니 껍데기 있는 것, 비늘 있는 것, 털 있는 것, 깃털 있는 것, 곤충이 그것이라네. 저놈은 하

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며, 신도 사람도 귀신도 아니로다. 또한 꺾데기 있는 것도, 비늘 있는 것도, 털 있는 것도, 깃털 있는 것도, 곤충도 아니니라. 또한 세상의 십 가지 분류에 들지 않는 네 종류의 원숭이가 있으니, 이들은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들이라네.”

보살이 여쭙었다. “감히 여쭙건대, 그 네 종류의 원숭이는 무엇입니까?”

여래께서 말씀하셨다. “첫째는 영명석후(靈明石猴)로, 변화에 능하고 천시와 지리를 통달하며 별자리를 옮길 정도로 신통력이 있다. 둘째는 적기마후(赤尻馬猴)로, 음양을 깨닫고 세상 이치를 알며, 드나들이 자유롭고 죽음을 피해 생명을 연장하는 데 능하다. 셋째는 통비원후(通臂猿猴)로, 해와 달을 움켜쥐고 천 개의 산을 줄일 수 있으며, 길흉화복을 분별하고 천지를 마음대로 주무른다. 넷째는 육이미후(六耳獼猴)로, 소리를 듣는 데 능하여 이치를 살피고 앞뒤를 분별하며 만물의 이치를 훤히 꿰뚫고 있다. 이 네 종류의 원숭이는 세상의 열 가지 분류에 속하지 않으며, 양계(하늘과 땅)의 이름으로도 정의할 수 없다네. 내가 보기에 가짜 손오공은 바로 이 육이미후로다. 이 원숭이는 한곳에 서서도 천 리 밖의 일을 알 수 있고, 사람이 하는 말도 모두 알아듣는다. 그러니 소리를 잘 듣고 이치를 살피며 앞뒤를 분별하여 만물을 명확히 안다고 하는 것이다. 진짜 손오공과 모습도 같고 목소리도 같은 것은 바로 이 육이미후라네.”

그 원숭이가 여래께서 자신의 본모습을 밝히시는 것을 듣고는 간담이 서늘해져, 급히 몸을 날려 도망치려 했다. 여래께서는 그가 달아나는 것을 보시고는 곧장 대중들에게 명하여 그를 잡게 하셨다. 이미 네

보살과 여덟 금강, 오백 나한, 삼천 계체(揭諦), 비구와 비구니, 우바새와 우바이, 그리고 관음과 목차를 비롯한 무리가 일제히 그를 에워쌌다. 손대성도 앞으로 나서려 하자 여래께서 말씀하셨다. “오공아,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그를 잡으마.” 그 원숭이는 털끝이 주뻗 설만큼 겁에 질려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겠다고 판단하고, 얼른 몸을 흔들어 꿀벌로 변신해 위로 날아올랐다. 여래께서 금발우(金鉢盂)를 획 던지시니 마침 그 꿀벌을 덮으며 떨어졌다. 대중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요괴가 달아난 줄로만 알았다. 여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다. “모두들 말하지 마라. 요괴는 달아나지 않았다. 지금 이 발우 아래에 있느니라.” 대중이 일제히 다가가 발우를 들춰보니, 과연 본모습인 육이미후가 들어 있었다. 손대성은 참지 못하고 철봉을 휘둘러 단번에 머리를 내리쳐 죽여버렸으니, 이로써 지금까지 이 종류가 끊어지게 되었다. 여래께서 차마 안타까워 “선재로다! 선재로다!” 하고 탄식하셨다.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여래께서 저놈을 가엾게 여기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놈은 제 스승님을 다치게 하고 제 짐을 빼앗았으니, 법에 따라 따지자면 재물을 탐해 사람을 해치고 대낮에 강탈한 죄라 마땅히 참형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여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당승을 보호하여 이곳으로 경전을 구하러 오게 하여라.” 손오공이 머리를 조아려 감사 인사를 올린 뒤 말했다. “여래께 아뢰입니다. 제 스승님은 분명 저를 받아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돌아가더라도 거두어주지 않으시면 또 한 번 헛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송고주(鬆箍兒咒, 머리테를 푸는 주문)를 외워 이 금고를 벗겨 주십시오. 금고를 여래께 돌려드릴 테니, 저를 속세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래께서 말씀하셨다. “쓸데없는 생각 마라. 억지를 부려서도 안 된다. 내가 관음에게 명하여 너를 보내줄 터이니 스승이 너를 받아주지 않을

까 걱정하지 마라. 가서 스승을 잘 보호하여라. 그때 공덕을 이루면 극락에 돌아갈 것이요, 너 또한 연화대에 앉게 될 것이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관음은 즉시 합장하며 성스러운 은혜에 감사 인사를 올린 뒤, 손오공을 데리고 구름을 타고 떠났다. 곧이어 목차행자와 흰 앵무새도 뒤따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길목에 있는 초가집 근처에 다다랐다. 이를 본 사오정은 급히 스승을 모시고 문 앞으로 나가 맞이했다.

관음이 말했다. "당승이여, 요전번에 그대를 때린 자는 가짜 손오공인 육이미후입니다. 다행히 여래께서 그 정체를 꿰뚫어 보신 덕분에 이미 손오공이 그를 때려죽였습니다. 이제 그대는 손오공을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는 길에 아직 마가 다 가지지 않았으니, 반드시 손오공의 보호를 받아야만 영산에 도착하여 부처님을 뵈고 경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손오공을 미워하거나 나무라지 마십시오."

삼장법사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보살님의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정중히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정동쪽에서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더니 저팔계가 보따리 두 개를 등에 짊어진 채 바람을 타고 나타났다. 저팔계는 보살을 보자마자 몸을 굽혀 절하며 말했다.

"제자가 엇그제 스승님과 헤어진 뒤, 화과산 수렴동으로 가서 보따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가보니 가짜 삼장법사와 가짜 저팔계가 있었는데, 제자가 모두 때려죽여 보니 알고 보니 둘 다 원숭이 모습이었습니

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찾아보니 물건 하나 빠진 것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람을 타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수행자는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살은 여래께서 요괴의 정체를 밝혀주신 일을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저팔계는 매우 기뻐하며 감사의 말을 연신 쏟아냈다. 스승과 제자들이 보살에게 절하며 감사를 표하자, 보살은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이제 일행은 예전처럼 마음을 합쳐 화를 풀고 오해를 씻어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고, 짐과 말들을 정돈하여 큰길을 따라 서쪽으로 길을 떠났다.

시로 이르되,

길 위에서 흩어졌던 오행이 어지러웠으나, 요괴를 물리치고 다시 모이니 본래의 밝은 마음을 찾았네. 마음이 신령한 곳으로 돌아가니 선정이 정해지고, 여섯 가지 식(識)이 가라앉으니 단약이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될지, 삼장법사가 언제쯤 부처님을 뵈고 불경을 구할 수 있을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9회 — 당삼장이 화염산에서 길을 가 로막히고, 손오공이 파초선을 한 차례 휘 두르다

唐三藏路阻火焰山 孫行者一調芭蕉扇

시로 이르되,

본래 성품은 모두 같아 바다처럼 끝없이 넓도다. 수만 가지 생각은
결국 망상일 뿐 세상 만물은 모두 하나로 어우러지네. 공덕을 다 쌓고
수행이 차오르는 날 원만하고 밝은 법성은 높이 솟으리라. 차별하는 마
음이 동서로 흩어지지 않게 단단히 가두어 갈무리하라. 그것을 거두어
단로 안에 넣고 달구면 태양처럼 붉고 찬란하게 빛나리니, 눈부시게 아
름답고 화사하여 용을 타고 어디든 자유로이 드나들리라.

이야기는 이러하다. 삼장은 관음보살의 가르침을 받들어 손오공을
제자로 거두고, 저팔계와 사오정 또한 사사로운 욕심을 버렸다. 이들
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흩어진 정신을 가다듬고, 힘을 합쳐 서천을 향
해 나아갔다. 흐르는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고 해와 달은 북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무더운 여름날을 지나 어느덧 서리가 내리는 가을철에 접어들었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시로 이르되,

얇은 구름 걷히고 서풍은 매서운데 학은 먼 산봉우리에서 울고 서리든 숲은 비단처럼 곱구나
풍경은 참으로 쓸쓸하고 황량한데 산은 길고 물은 더욱 길구나
기러기는 북쪽 변방에서 날아오고 제비는 남쪽 마을로 돌아가는데
나그네 길은 외롭고 쓸쓸하여 두렵고 승려의 옷은 금세 차갑게 느껴지는구나.

스승과 제자 네 사람은 길을 재촉하며 나아갔으나, 점차 열기가 사람을 찌를 듯이 뜨거워졌다. 삼장이 말을 멈춰 세우며 말했다. “지금엔 분명 가을인데, 어찌 이리 열기가 가득하단 말이냐?” 그러자 저팔계가 대답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서쪽 길에는 스하리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해가 지는 곳이라 흔히 세상의 끝이라고 부른답니다. 만약 신시나 유시(오후 3~7시 사이)쯤 되면, 그 나라 국왕이 사람을 시켜 성 위에서 북을 치고 나팔을 불게 한다더군요. 바닷물이 끓어 오르는 소리와 뒤섞여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데, 태양이라는 진짜 불이 서해 바다로 떨어지면 마치 불을 물에 담가 식히듯 소리가 이어지며 부글부글 끓어오른다고 합니다. 만약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귀를 울려주지 않으면, 그 소리에 놀라 성안의 어린아이들이 죽을 정도라지요. 지금 이렇게 열기가 사람을 찌르는 걸 보니, 분명 해가 지는 곳에 가까워진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함부로 떠들지 마라. 스하리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직 한참 멀었다. 스승님처럼 아침저녁 변덕을 부리며 이렇게 늑장

부려 지체하다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늙었다가 다시 어려지기를 세 생애를 거듭한다 해도 아직 그곳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저팔계가 다시 물었다. “형님! 형님 말씀대로라면 여기가 해가 지는 곳이 아닌데, 대체 왜 이리 무더운 겁니까?” 사오정이 거들었다. “아마 계절의 흐름이 어긋나서, 가을인데도 여름 날씨가 되는 모양입니다.” 세 사람이 한창 서로 자기 말이 맞다며 다투고 있을 때, 길가에 붉은 기와를 얹고 붉은 벽돌로 담을 쌓은 집 한 채가 보였다. 붉은 칠을 한 문과 붉은 칠을 한 평상까지 온통 붉은 빛이 가득했다. 삼장이 말에서 내리며 말했다. “오공아, 네가 저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아라. 이 더위가 도대체 왜 이런 것인지 말이다.”

손오공은 여의금고봉을 거두어 넣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다듬더니, 마치 점잖은 선비라도 된 양 짐짓 무게를 잡으며 큰길을 따라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때 문 안에서 갑자기 한 노인이 걸어 나왔는데, 그 모습은 이리하였다.

노인은 누런빛도 붉은빛도 아닌 애매한 색의 삼베 옷을 입고, 푸른 빛도 검은빛도 아닌 애매한 색의 대나무 모자를 쓰고 있었다. 손에는 굵은 것도 아니고 곧은 것도 아닌 마디가 툭툭 볼거진 대나무 지팡이를 짚었으며, 발에는 새것인지 헌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짚신을 신고 있었다. 얼굴은 붉은 구리 같고 수염은 흰 비단 같았는데, 두 가닥의 길게 늘어진 눈썹이 푸른 눈을 덮고 있었고, 옷을 때마다 입술 사이로 금니가 보였다.

노인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손오공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대나무 지팡이를 짚은 채 소리쳤다. “어디서 온 괴한이냐? 내 집 문앞에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손오공이 예의를 갖추며 말했다. “시주 어른신, 저를 겁내지 마십시오. 저는 괴한이 아닙니다. 저는 동토 대당에서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빈승입니다. 저희 스승과 제자 네 사람이 마침 이곳에 이르렀는데, 날씨가 너무 무더워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이곳의 지명도 몰라 여쭙어보러 왔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안심하며 웃으며 말했다. “스님, 노여워 마십시오. 제가 잠시 눈이 침침하여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손오공이 답하자 노인이 다시 물었다. “스승님께서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저 남쪽 큰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 말했다. “그럼 이쪽으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손오공은 기뻐하며 손짓을 하여 삼장과 저팔계, 사오정을 불러들였다. 그들은 백마를 끌고 짐을 멘 채 노인 앞으로 다가가 모두 정중히 예를 갖추었다.

노인은 삼장의 고결한 풍채와 저팔계, 사오정의 기이한 생김새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노인은 일행을 안으로 모셔 앉히고, 아이들에게 차를 내오게 하며 한쪽에서는 밥을 차리도록 시켰다.

삼장이 일어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물었다. “어르신, 여쭙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곳은 가을인데 어찌 이리 무더운 것입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이곳은 화염산이라 불리는 곳이라네. 봄도 없고 가을도 없이 사계절 내내 뜨겁다네."

삼장이 다시 물었다. "화염산이 저쪽에 있습니까? 서천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나요?"

노인이 말했다. "서쪽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네. 저 산은 여기서 육십 리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서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라네. 하지만 그곳은 팔백 리나 되는 불길이 치솟고 있어 사방에 풀 한 포기 자라지 못한다네. 만약 그 산을 넘으려 한다면, 머리가 구리로 되고 몸이 철로 되어 있다 한들 온몸이 녹아내리고 말 것이야."

삼장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크게 놀라 더는 묻지 못했다.

문밖을 보니 한 소년이 붉은 수레를 밀며 문 옆에 머물고 있었는데, "떡 사시오!" 하고 외치고 있었다. 손오공이 털 한 움큼을 뽑아 동전으로 변하게 한 뒤, 그 소년에게 떡을 사겠다고 물었다. 소년은 돈을 받더니 떡이 맛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수레의 덮개를 들춰냈다. 그러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떡 한 조각이 나타났다. 손오공이 그것을 손에 받자마자 마치 불 속에서 막 꺼낸 뜨거운 숯덩이나 화로 안의 붉게 달궈진 못 같았다. 손오공은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다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떡을 옮겨 쥐며 "뜨거워, 뜨거워! 맛도 없겠네!"라고 투덜거렸다.

그러자 소년이 웃으며 말했다. "더운 게 싫으면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긴 원래 이렇게 더운 곳이니깐요."

손오공이 대꾸했다. "이 사람아, 참으로 말이 안 통하는군. 예부터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춥지도 않아야 곡식이 잘 여문다'고 했는데, 이렇게 더운 곳에서 이 떡가루는 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소년이 대답했다. "떡가루가 되는 쌀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싶으시면, 철선선인을 찾아가 보세요."

손오공이 물었다. "철선선인이 대체 어떤 분이기에?"

소년이 말했다. "철선선인께서는 파초선이라는 부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채를 휘둘러 한 번 부치면 불이 꺼지고, 두 번 부치면 바람이 일며, 세 번 부치면 비가 내립니다. 덕분에 저희가 씨를 뿌리고 제때 수확하여 곡식을 얻고 먹고살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그 부채가 없다면 정말 풀 한 포기 자라지 못할 겁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안으로 들어가 떡을 가지고 나와 삼장에게 건네며 말했다. "스승님, 걱정 마세요. 너무 애태우지 마시고 우선 이 떡부터 드세요. 드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장이 떡을 받아 들고는 집주인인 노인에게 정중히 말했다. "어르신, 이 떡 좀 드십시오."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나는 아직 차도 밥도 내드리지 못했는데, 어찌 감히 당신들의 떡을 먹겠소?"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차나 밥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철선선인은 어디에 사십니까?" 노인이 되물었다. "그분은 무엇 때문에 찾으시오?" 손오공이 대답했다. "방금 저 떡 파는 소년이 말하기를, 그 선인께서는 파초선이라는 부채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부채를 한 번 부치면 불이 꺼지고, 두 번 부치면 바람이 일며, 세 번 부치면 비가 내려서,

덕분에 이 땅의 농사도 잘되고 오곡이 풍성하여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채를 빌려 화염산의 불길을 꺼버리고, 이곳 사람들도 제때 농사를 지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노인이 말했다. “그 말은 맞소만, 당신들이 예물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 성현께서 기꺼이 나서 주지 않을 것이요.” 삼장이 물었다. “그분은 어떤 예물을 원하십니까?” 노인이 설명했다. “이 근처 사람들은 십 년에 한 번씩 간절히 빌어 청하곤 하지요. 돼지 네 마리와 양 네 마리, 화려한 비단 예물과 향기로운 과일, 닭과 거위, 그리고 맛 좋은 술을 준비해야 하오. 몸을 깨끗이 씻고 정성을 다해 그 신선이 사는 산까지 가서 절을 올려야 비로소 동굴 밖으로 나오시어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오.” 손오공이 물었다. “그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은 무엇이고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가서 부채를 달라고 해야겠습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그 산은 남서쪽에 있으며 이름은 취운산이라 하오. 산속에는 파초동이라는 신선의 동굴이 있지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 신선께 절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려면 한 달은 족히 걸리는데, 거리가 대략 천사백오륙십 리는 될 것이요.”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급히 말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차라도 좀 마시고 마른 음식이라도 좀 챙겨가야지, 반드시 두 사람이 짝을 지어 가야 하오. 가는 길에는 민가도 없고 늑대와 호랑이도 많아서 하루아침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 장난처럼 생각하지 마시오.”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손오공의 모습이 홀연히 사라졌다. 노인이 당황하며 외쳤다. “아이고, 세상에! 구름을 타고 안개를 가르며 다니는 신선이었구먼!”

한편, 그 집안 사람들이 당승 일행을 곱절로 극진히 대접한 일은 차치하고, 손오공이 순식간에 취운산에 도착했다. 손오공은 상서로운 빛(구름)을 멈추고 내려서서 동굴 입구를 찾고 있었는데, 문득 땡땡하며 나무 베는 소리가 들려왔다. 산속에서 한 나무꾼이 나무를 베고 있는 것이었다. 손오공이 성큼 다가가니 나무꾼이 이렇게 읊조리는 소리가 들렸다.

“구름 사이로 아스라이 옛 숲을 알아보겠는데, 깎아지른 절벽과 거친 풀숲에 길 찾기 어렵구나. 서쪽 산 너머로 아침 비 내리는 게 보이는데, 남쪽 계곡 돌아올 때 건너야 할 물은 깊기만 하네.”

손오공이 다가가 예를 갖추며 말했다. “나무꾼 양반, 안녕하십니까?” 나무꾼은 도끼를 내려놓고 답례하며 물었다. “스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손오공이 물었다. “실례지만, 이곳이 취운산이 맞소?” 나무꾼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철선선인의 파초동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소?” 나무꾼이 웃으며 말했다. “파초동은 분명히 있지만, 철선선인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철선공주만 있을 뿐이지요. 나찰녀라고도 불립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사람들 말로는 그곳에 화염산의 불길을 끌 수 있는 파초선이 있다던데, 그분이 가진 것이 맞소?” 나무꾼이 맞장구를 쳤다. “그렇고말고요, 맞습니다. 그 성현께서 불을 잘 끄는 보물을 가지고 계셔서 이 근방 사람들을 지켜주시기에 철선선인이라 불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보물이 필요 없으니, 그저 나찰녀라고 부를 뿐입니다. 막강한 우마왕(大力牛魔王)의 아내이지요.”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안색이 변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또 원수와 얽히게 되었구나. 예전에 홍해아를 굴복시켰을 때, 그 아이가 바로 이자(우마왕)의 자식이라고 했었지. 지난번 해양산 파아동에서 그 숙부(여의진선)를 만났을 때도, 그자가 물을 주려 하지 않고 복수할 뜻을 품었거늘, 이제 그 부모까지 만났으니 저 부채를 어찌 빌릴 수 있겠는가?’ 나무꾼은 손오공이 깊은 생각에 빠져 한숨을 거둬 내쉬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스님, 출가하신 분이 무엇을 그리 걱정하십니까? 이 작은 길을 따라 동쪽으로 오륙 리만 가면 바로 파초동이 나오니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나무꾼 형씨에게 숨김없이 말씀드리자면, 나는 동토 대당에서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삼장법사의 첫째 제자요. 재작년 화운동에서 나찰의 아들인 홍해아와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는데, 나찰이 원한을 품고 부채를 빌려주지 않을까 걱정되어 그렇소.” 나무꾼이 대답했다. “대장부라면 상대의 안색과 형편을 잘 살펴서, 그저 부채를 빌리러 왔다는 명분만 내세우십시오. 예전의 시시콜콜한 일들을 들먹이지 않는다면 분명 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깊이 허리를 숙여 절하며 말했다. “나무꾼 형씨의 가르침에 감사하오. 그럼 이만 가보겠소.”

나무꾼과 작별한 뒤 곧장 파초동 입구로 향했다. 동굴의 문 두 짝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동굴 밖 풍경은 참으로 수려하고 아름다웠다. 그야말로 절경이었다.

시로 이르되,

돌을 뼈로 삼아 산을 이루고, 돌은 흙의 정수가 되었네. 안개와 노을은 이슬을 머금어 촉촉하고, 이끼는 푸른 빛을 더해주네. 우뚝 솟은 기

세는 봉래섬을 압도할 듯하고, 그윽하고 고요한 꽃향기는 바다처럼 깊구나. 키 큰 소나무에는 들학이 깃들어 있고, 시든 버들 사이로는 산피꼬리가 지저귀네. 참으로 천 년을 이어온 옛 자취이며, 만 년을 머문 신선의 발자취로다. 푸른 오동나무에선 채색 봉황이 울고, 맑은 물속엔 푸른 용이 숨어 있네. 굽이진 길에는 덩굴이 드리워져 있고, 돌계단은 넝쿨로 뒤덮였구나. 푸른 바위 위 원숭이 울음은 달 뜰 때 즐겁고, 높은 나무 위 새 울음은 맑은 하늘에 기쁘도다. 대나무 숲 그늘은 비처럼 서늘하고, 꽃이 만발한 길은 비단 양탄자 같구나. 멀리 산봉우리에서 흰 구름이 몰려오는데, 정해진 형체 없이 바람 따라 흘러가네.

손오공이 앞으로 나아가 외쳤다. “우 형님, 문 좀 열어주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찌익’ 소리와 함께 동굴 문이 열리더니, 꽃바구니를 손에 들고 어깨에 뽕이를 멘 어린 소녀 하나가 걸어 나왔다. 푸른 옷차림에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넘치고 도를 닦는 이의 기품이 서려 있었다.

손오공은 다가가 합장하며 말했다. “얘야, 공주님께 전해주렴. 나는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에 화염산을 지나느라 고생하고 있는 스님인데, 파초선을 좀 빌려 쓰고 싶어 찾아왔다고 말이다.”

그러자 소녀가 물었다. “당신이 어느 절에 계신 스님인가요?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래야 공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나는 동토에서 온 손오공이라는 중이라고 하네.”

매녀가 몸을 돌려 동굴 안으로 들어가 나찰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다. “마님, 동굴 밖에 동토에서 온 손오공이라는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마님을 뵙고 파초선을 빌려 화염산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나찰은 ‘손오공’이라는 세 글자를 듣자마자 마치 불 속에 소금을 뿌리고 불 위에 기름을 부은 듯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입으로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쳤다. “그 망할 원숭이 놈이 결국 왔구나! 애야, 옷과 무기를 가져오너라!”

나찰은 즉시 옷을 갖춰 입고 청봉보검 두 자루를 챙겨 들고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손오공은 동굴 밖에서 몸을 숨긴 채 그녀가 어떻게 차려입었는지 살폈다.

꽃무늬 손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비단 구름무늬 도포를 입었으며, 허리에 호랑이 힘줄 끈을 둘로 묶고 수놓은 비단 치마가 살짝 드러났다. 세 치짜리 봉황 입 모양의 활처럼 굽은 신을 신고, 용수염 무늬 슬갑 바지에는 금 장식을 둘렀으며, 보검을 손에 들고 호통치는 기세가 드높으니, 그 흉악한 모습이 월파(月婆)보다 더하더라.

나찰이 문을 박차고 나오며 크게 외쳤다. “손오공은 어디 있느냐?” 손오공이 앞으로 나서며 허리를 굽혀 정중히 예를 갖추고 말했다. “형수님, 이 손오공이 문안 인사 올립니다.” 나찰이 딱 소리가 나게 쏘아붙였다. “누가 네 형수라는 말이나? 누가 네 인사를 받으라고 했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댁의 우마왕께서 예전에 저와 의형제를 맺으셨으니, 저희는 일곱 형제의 친분입니다. 이제 공주께서 우 형님의 정실 부

인이시라는 말을 들었으니, 어찌 형수님이라 부르지 않겠습니까?” 나찰이 말했다. “이 고약한 원숭이 놈! 형제 사이라면서 어찌 내 아들을 함정에 빠뜨려 해쳤단 말이냐?” 손오공이 모르는 척 물었다. “공주의 아드님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찰이 외쳤다. “내 아들은 호산(號山) 고송간 화운동의 성영대왕 홍해아다! 네놈 때문에 아들이 곤욕을 치렀으니, 우리가 복수할 곳을 찾고 있었거늘, 네가 제 발로 목숨을 바치러 오다니 내가 너를 용서할 것 같으냐?” 손오공이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형수님께서 사정을 잘 모르셔서 저를 오해하셨군요. 공주의 아드님은 스승님을 붙잡아 삶거나 찌 먹으려 했으나, 다행히 관음보살께서 그 아이를 거두어 가신 덕분에 제 스승님을 구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보살님 곁에서 선재동자가 되어, 참으로 보살님의 정과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상태로 천지와 더불어 수명을 함께하고 해와 달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게 되었지요. 형수님께서 저 덕분에 아드님이 목숨을 구한 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저를 원망하시니, 그게 대체 무슨 도리입니까?” 나찰이 말했다. “이 말재주만 좋은 원숭이 놈! 내 아들이 비록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어찌 다시 내 곁으로 와서 얼굴을 볼 수 있겠으며, 언제나 한 번 만나볼 수 있겠느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께서 아드님을 보고 싶으시다면 그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우선 그 부채를 제게 좀 빌려주십시오. 불길을 좀 끄고 스승님을 무사히 모셔다드린 뒤에, 제가 남해의 보살님께 가서 아드님을 모셔다 형수님을 뵈게 하고, 그러고 나서 부채를 돌려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아드님이 조금이라도 상한 데가 있다면 형수님 말씀이 옳다 하겠지만, 예전 모습보다 더 흰해졌다면 오히려 저에게 고마워하셔야 할 겁니다.” 나찰이 말했다. “고약한 원숭이 놈! 쓸데없

는 말은 그만하고, 머리를 내밀어 보아라, 내 칼로 몇 번 베어주마! 만약 고통을 잘 참아낸다면 부채를 빌려주겠지만, 참지 못하였다면 당장 염라대왕에게 보내주마.” 손오공이 두 손을 모아 쥐고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말씀이 너무 많으십니다. 이 손오공이 맨머리를 내밀 테니, 마음껏 베어 보십시오. 다만 기운이 다해 더 못 베게 되거든 그만두시고, 반드시 부채를 빌려주셔야 합니다.” 나찰은 더 대꾸할 것도 없다는 듯 양손에 칼을 휘둘러 손오공의 머리를 향해 쉼 없이 내리쳤다. 열댓 번을 연달아 베었으나 손오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겁이 난 나찰이 뒤를 돌아 도망치려 하자 손오공이 말했다. “형수님, 어디를 가십니까? 어서 부채 좀 빌려주십시오!” 나찰이 외쳤다. “내 보물은 본래 함부로 빌려주는 물건이 아니다!”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빌려주기 싫다면, 이 아저씨한테 매 좀 맞아야겠구나!”

손오공은 한 손으로 그녀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귀 속에서 여의봉을 쑥 뽑아 들었다. 여의봉을 휘두르니 그 굵기가 그릇만 했다. 철선공주가 손을 뿌리치며 칼을 들어 맞섰고, 손오공은 곧바로 봉을 휘두르며 공격했다. 두 사람은 취운산 앞에서 혈육의 정은 뒤로한 채 오로지 원한만을 품고 격렬하게 싸웠다. 싸움은 참으로 치열했다.

시로 이르되, 본래 수련을 쌓던 공주였으나 자식을 위해 원한을 품은 요괴가 되었네. 그 못된 원숭이에게 원한을 품었으니 손오공 또한 분노가 치밀었으나 스승님의 길을 막는 이라 참으며 인내했네. 먼저 부채를 빌리려 하며 영웅의 기세를 누르고 부드럽게 대했건만 공주는 사정을 모르고 칼을 휘둘렀고 손오공은 좋게 말하며 풀어보려 했네. 여인이 어찌 사내와 맞서겠는가 결국 강한 사내가 여인을 압도하리라. 금고

를 낀 저 철봉은 얼마나 맹렬한가 서슬 퍼런 저 칼날은 또 얼마나 날카로운가 얼굴을 향해 내리치고 머리를 겨냥해 던지니 서로 물러서지 않고 끝없이 맞붙네. 좌우로 막고 피하며 무예를 펼치고 앞뒤로 맞서며 기묘한 계책을 부리네.

한참 동안 격렬하게 싸우다 보니 어느덧 서쪽 하늘로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다. 철선공주는 손오공과 대치하다가 그의 봉이 무겁고 싸움 수법도 치밀한 것을 보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리라 판단했다. 그녀는 즉시 파초선을 꺼내 들고는 크게 한 번 휘둘렀다. 그러자 서늘한 바람이 휘몰아치며 손오공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렸으니, 도저히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결국 철선공주는 승리를 거두고 동굴로 돌아갔다.

손오공은 몸이 봉 떠 있는 듯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렀다. 왼쪽으로 기울면 땅에 닿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몸을 가누지 못했다. 마치 회오리바람이 낙엽을 뒤흔들고 흐르는 물이 꽃잎을 휩쓸어 가는 듯한 형국이었다. 그렇게 밤새도록 굴러다니다가 날이 밝아서야 겨우 어느 산에 내려앉을 수 있었는데, 두 손으로 바위 봉우리를 꼭 붙잡고서야 겨우 버텼다. 한참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제야 이곳이 소수미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손오공이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정말 무시무시한 여자로그나! 어찌 나를 여기까지 날려버린단 말인가? 예전에 이곳에서 영길보살님께 빌어 황풍괴를 降(降)하게 하고 우리 스승님을 구했던 기억이 나는데. 황풍령에서 이곳까지는 남쪽으로 삼천여 리나 되지만, 지금 서쪽 길로 돌아왔으니 동남쪽 끝자락일 텐데

대체 몇 만 리나 떨어진 건지 모르겠구나. 일단 내려가서 영길보살님께 소식을 여쭙어본 뒤에 예전 길을 찾아 돌아가야겠다."

손오공이 잠시 망설이고 있을 때, 다시 맑고 드높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급히 산비탈을 내려가 선원 안으로 들어갔다. 문 앞을 지키던 도사가 손오공의 모습을 알아보고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다.

"재작년에 보살님을 모셔와 황풍괴를 굴복시켰던 그 얼굴이 털투성이인 대성께서 또 오셨습니다!"

영길보살은 손오공임을 알아보고 서둘러 보좌에서 내려와 마중하며 예를 갖추어 말했다.

"축하하네,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인가?"

손오공이 대답했다.

"아직 도착하려면 멀었습니다. 한참 남았지요."

영길보살이 물었다.

"아직 뇌음사에 도착하지도 못했는데, 어찌하여 이 황량한 산속까지 돌아왔는가?"

손오공이 말했다.

"작년에 보살님의 큰 은덕으로 황풍괴를 물리친 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화염산에 도착했는데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철선

선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파초선으로 불을 끌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찾아가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선인은 우마왕의 아내이자 홍해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자기 아들을 관음보살의 동자로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며, 저를 원수처럼 여기고 부채를 빌려주는 커녕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제 여의봉이 무거워 버티기 힘든 것을 보고는 부채를 휘둘러 저를 날려버렸는데, 그 바람에 정신없이 떠돌다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선원에 들러 돌아갈 길을 묻고자 합니다. 여기서 화염산까지는 몇 리나 됩니까?"

영길보살이 웃으며 말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찰녀라고도 하고, 철선공주라고도 부르네. 그 파초선은 본래 곤륜산 뒤편에서 혼돈이 개벽할 때부터 천지 사이에 생겨난 영험한 보물이라네. 태음의 정기가 서린 잎이라 불길을 끌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사람이 그 부채에 맞으면 팔만 사천 리를 날아가야 비로소 음풍이 멈출 정도라네. 우리 산에서 화염산까지는 오만 리가 넘는 데, 대성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능력이 있으셨기에 겨우 이 자리에 멈출 수 있었던 것이네. 만약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멈추지 못하고 계속 날아갔을 것이야."

손오공이 말했다.

"대단하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스승님은 대체 어떻게 그곳을 지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영길보살이 말했다.

"대성, 안심하게나. 이번 일 또한 당승의 인연이니, 대성이 공을 세워야 할 운명이라네."

손오공이 물었다.

"어떻게 공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영길보살이 답했다.

"내가 예전에 여래의 가르침을 받아 정풍단 한 알과 비룡장 한 자루를 하사받았네. 비룡장으로는 이미 풍마를 물리쳤지만, 이 정풍단은 아직 써본 적이 없군. 이것을 대성에게 줄 테니, 그 여인이 부채를 휘둘러도 대성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네. 그때 대성이 부채를 빼앗아 불을 끈다면 바로 큰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나?"

손오공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예를 표했다. 영길보살은 소매 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정풍단 한 알을 손오공의 옷깃 사이에 넣어주고 바늘과 실로 꼼꼼하게 꿰매 주었다. 그리고는 손오공을 문밖까지 배웅하며 말했다.

"더 머물게 하지 못해 미안하네.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나찰녀의 거처가 나온다네."

손오공은 영길보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근두운을 타고 곧장 취운산으로 날아갔다. 순식간에 도착한 그는 여의봉으로 동굴 문을 광광 두드리며 외쳤다.

"문 열어라, 문 열어! 이 몸이 부채 좀 빌리러 왔다!"

그러자 안에서 깜짝 놀란 시종 매녀가 급히 달려 나와 보고했다.

"마님, 부채 빌리러 온 놈이 또 왔어요!"

그 말을 들은 철선공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생각했다.

'이 고약한 원숭이가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내 보물 부채는 한 번 휘둘러야 팔만 사천 리를 날아가야 겨우 멈추는데, 저놈은 한 번 불러가더니 어찌 이리 금방 돌아온단 말인가? 이번에는 내 부채를 두세 번 연달아 휘둘러서 다시는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 주리라.'

공주는 서둘러 몸단장을 마치고 양손에 검을 든 채 문밖으로 나서며 말했다.

"손오공, 네놈은 내가 무섭지도 않느냐? 또 죽으러 온 것이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시고 부채를 좀 빌려주십시오. 삼장 법사가 무사히 이 산을 넘게만 해주면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정성이 지극하고 의리가 있는 군자이지, 물건만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소인배가 아닙니다."

철선공주가 다시 욕설을 퍼부었다.

"이 망할 원숭이 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자식을 죽인 원한도 아직 갚지 못했는데, 어찌 부채를 빌려달라는 네 뜻대로 해주겠느냐? 가지 마라, 내 칼맛을 좀 봐라!"

손오공은 조금도 겁내지 않고 여의봉을 휘두르며 맞섰다. 두 사람은 몇 합을 주고받으며 치열하게 싸웠다. 다섯 합, 일곱 합을 넘어가자 철선공주는 팔이 저려 검을 휘두르기 힘들어졌지만, 손오공은 몸이 튼튼하고 싸움에 능했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느낀 공주는 부채를 집어 들어 손오공을 향해 세게 휘둘렀다. 그러나 손오공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거두며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저번과는 다르구나. 아무리 휘둘러 보아라. 만약 이 몸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내가 사내대장부라고 할 수 없지!"

철선공주가 다시 부채를 두 번 더 휘둘렀지만, 역시나 손오공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당황한 공주는 급히 부채를 챙겨 동굴 안으로 뛰어 들어가 문을 짹 닫아버렸다.

손오공은 그녀가 문을 닫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神通력을 부려 옷깃을 풀어헤치고 정풍단을 입에 물었다. 그리고는 몸을 흔들며 작은 하루살이 벌레로 변신하더니, 문틈 사이로 쏙 파고들어 갔다.

철선공주가 외쳤다. “목마르구나, 목이 말라! 어서 차를 가져오너라.” 가까이서 시중을 들던 시녀가 열린 향긋한 차 한 주전자와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찻잔에 가득 따르니, 찻물 거품이 보글보글 일었다. 이를 본 손오공은 기뻐하며 날갯짓을 하여 찻물 거품 아래로 날아 들어갔다. 목이 몹시 말랐던 철선공주는 차를 건네받아 두세 모금에 들이켰다.

손오공은 이미 그녀의 뱃속까지 들어간 상태였다. 그는 그곳에서 본래 모습으로 나타나 매섭게 소리쳤다. “형수님, 부채 좀 빌립시다!”

철선공주는 깜짝 놀라 안색이 변하며 소리쳤다. “애들아, 앞문은 잠갔느냐?” “네, 잠갔습니다!” 아이들이 대답했다. 공주가 다시 물었다. “문을 잠갔는데, 손오공이 어떻게 집 안에서 소리를 지른단 말이냐?” 그러자 시녀가 말했다. “마님 몸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철선공주가 다급히 물었다. “손오공, 네가 대체 어디서 무슨 술수를 부리는 것이냐?”

손오공이 말했다. “이 몸은 평생 술수 따위는 부릴 줄 모릅니다. 이 건 다 진짜 신통력이자 실력이지요. 이미 형수님의 뱃속에서 한바탕 노는 중이라 형수님의 폐와 간까지 다 보일 정도라요. 형수님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테니, 우선 목부터 축이시라고 찻잔 하나를 선물로 드리리다.”

그러고는 발로 아래를 툭 굴렀다. 철선공주는 아랫배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다. 손오공이 말했다. “형수님, 사양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배를 채울 간식도 하나 드리지요.” 그러고는 머리로 위를 툭 들이받았다.

철선공주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바닥을 뒹굴며 괴로워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입술은 하얗게 질린 채 그녀는 오직 이렇게 외칠 뿐이었다. “손 아저씨,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손오공은 손발을 거두며 말했다. "너는 아직도 이 아저씨를 몰라보느냐? 내가 우 형님과 의 정을 생각해서 네 목숨만은 살려주마. 어서 그 부채를 내게 가져와 보거라."

그러자 나찰녀가 대답했다. "아저씨,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서 나오셔서 가져가세요."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부채를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나찰녀는 즉시 어린 계집아이를 시켜 파초선을 가져오게 하여 곁에 들게 했다. 손오공은 목구멍 안쪽까지 손을 뻗어 살피더니 말했다. "형수님, 내가 목숨을 살려주었으면 허리춤에 구멍을 뚫어 내는 대신 입으로 나오게 해줘야지, 입을 세 번이나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 어떡하나. 자, 입을 크게 벌려 보게."

나찰녀가 정말로 입을 크게 벌리자, 손오공은 작은 벌레로 변신하여 먼저 속 빠져나온 뒤 파초선 위에 내려앉았다. 나찰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입을 세 번이나 벌리며 외쳤다. "아저씨, 어서 나오세요!"

그제야 손오공은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부채를 낚아채며 소리쳤다.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부채 좀 빌려 가마, 고맙다, 고맙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앞을 향해 나아갔다. 동굴 안의 하인들은 서둘러 문을 열어 그를 밖으로 내보내 주었다.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동쪽 길로 돌아가더니, 순식간에 구름 아래로 내려와 붉은 벽돌집 앞에 내려앉았다. 이를 본 저팔계가 기뻐하며 말했다. "스승님, 형님이 오셨어요, 오셨다니가요!"

삼장은 집주인 노인, 사오정과 함께 문밖으로 나가 손오공을 맞이하여 집 안으로 들였다. 손오공은 파초선을 옆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어르신, 이 부채가 맞습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맞아요."

삼장이 기뻐하며 말했다. "제자야, 네 공이 참으로 크구나. 이 보물을 구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고생까지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 철선공주라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알고 보니 우마왕의 아내이자 홍해아의 어머니인데, 이름은 나찰녀라고도 하고 철선공주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동굴 밖에서 부채를 빌리려 했더니, 그자가 옛날에 맺힌 원한을 늘어놓으며 저를 칼로 몇 번이나 베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의봉을 휘둘러 겁을 주었더니, 그자가 부채를 한 번 휘둘러 저를 날려버렸습니다. 덕분에 정신없이 떠돌다 소수미산까지 날아갔지요. 다행히 영길보살님을 만나 '정풍단(바람을 멎게 하는 단약)'을 받아 길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취운산으로 돌아와 나찰녀를 만났더니, 그자가 다시 부채를 휘둘러 저를 꼼짝 못 하게 하기에 저는 다시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주 작은 벌레로 변신해서 동굴 안으로 날아 들어갔지요. 그자가 마침 차를 달라고 찾기에, 제가 찻물 아래로 파고들어 그자의 배 속으로 들어간 뒤 안에서 요동을 쳤습니다. 그자가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는 저를 삼촌이라 부르며 살려달라고, 제발 부채를 빌려

달라고 애걸복걸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용서해 주는 척하며 부채를 받아냈습니다. 화염산만 지나면 다시 돌려줄 생각입니다."

삼장은 그 말을 듣고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했다.

스승과 제자들은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서쪽으로 길을 재촉했다. 40리쯤 왔을까, 점점 더위가 숨이 막힐 정도로 심해졌다. 사오정이 "발바닥이 뜨거워 죽겠습니다"라며 엄살을 부리자, 저팔계도 "발톱이 타는 듯이 아파요"라고 거들었다. 백룡마는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달렸는데, 이는 말이 더위를 견디지 못해 안절부절못하며 앞만 보고 내달렸기 때문이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일단 말에서 내려 쉬어 가시지요. 형제들도 잠시 멈추시다. 제가 이 불길을 좀 식혀놓겠습니다. 비바람이 불어 땅이 좀 식고 나면 그때 다시 산을 넘어가시지요."

손오공은 곧장 부채를 들고 불길이 치솟는 곳으로 달려가 힘껏 부채질을 했다. 그러자 산 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솟구쳤다. 다시 한 번 부채질을 하자 불길은 백 배나 더 거세졌고, 또 한 번 부채질을 하자 불길이 천 길 높이까지 치솟으며 손오공의 몸을 태울 듯이 다가왔다. 깜짝 놀란 손오공이 급히 몸을 돌려 피했지만, 이미 양쪽 다리의 털이 깨끗이 타버린 뒤였다. 손오공은 황급히 삼장 앞으로 달려가 외쳤다.

"어서 돌아가세요, 어서 돌아가세요! 불이 옵니다, 불이 오고 있어요!"

삼장이 말에 올라타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다시 동쪽으로 이십여 리를 더 가고 나서야 겨우 멈춰 섰다. 삼장이 물었다. “손오공, 어떻게 되었느냐?”

손오공이 부채를 툭 던지며 말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 여자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이 말을 들은 삼장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마음이 답답해져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이 일을 어쩌면 종단 말이냐?”

저팔계가 물었다. “형님, 아까 왜 그렇게 급하게 돌아오라고 소리치신 거예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내가 부채를 한 번 부쳤더니 불길이가 활활 타오르더라. 두 번째 부쳤을 때는 불기운이 더 세지더니, 세 번째 부쳤을 때는 불길이가 천 장 높이까지 치솟더라니까! 조금만 늦게 도망쳤어도 내 털이 다 타버릴 뻔했다.”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평소에는 천둥이 쳐도 안 다치고 불이 붙어도 멀쩡하다고 큰소리치시더니, 이제 와서 왜 불을 무서워하세요?”

손오공이 쏘아붙였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네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비하고 있었으니 안 다친 거지, 오늘은 그저 불길을 끄려고 부채질만 하느라 불을 피하는 주문도 못 외우고 몸을 보호하는 법술도 부리지 못해서 엉덩이 털이 다 타버린 것 아니냐.”

사오정이 거들었다. “불길이 저토록 거센데 서쪽으로 가는 길도 막혔으니,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저팔계가 말했다. “그냥 불이 없는 곳으로 골라서 가면 되지요,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삼장이 물었다.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불이 없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동쪽, 남쪽, 북쪽은 다 불이 없습니다.”

삼장이 다시 물었다. “그럼 어디에 경전이 있느냐?”

저팔계가 말했다. “서쪽에 경전이 있습니다.”

삼장이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오직 경전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을 뿐인데 말이다.”

사오정이 말했다. “경전이 있는 곳에는 불이 있고, 불이 없는 곳에는 경전이 없으니, 참으로 진퇴양난이로군요.”

스승과 제자들이 한창 실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어디선가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성께서는 번거롭게 마음 쓰지 마시고, 우선 채식으로 만든 공양을 좀 드시며 다시 의논하시지요.” 네 사람이 고개를 돌려보니, 한 노인이 바람을 막아주는 옷을 걸치고 머리에 반달 모양의 관을 썼으며, 손에는 용 머리가 달린 지팡이를 쥐고 발에는 쇠로 만든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 뒤에는 입술이 툭 튀어나오고 아가미가 있는 귀신 하나가 따르고 있었는데, 그 귀신은 머리에 구리 대야를 이고 있었고, 대야 안에는 찌떡과 가루로 만든 떡, 그리고 노

란 곡식으로 지은 밥이 담겨 있었다. 귀신은 서쪽 길 아래에서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저는 본래 화염산의 토지신입니다. 대성께서 성스러운 스승님을 보호하며 나아가려 하시나, 길이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특별히 공양을 올리러 왔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공양을 먹는 건 어렵지 않네만, 이 불길은 언제쯤 꺼져야 우리 스승님이 지나가실 수 있겠나?” 토지신이 대답했다. “불길을 끄려면 반드시 나찰녀에게 파초선을 빌려야 합니다.” 손오공은 길가에 떨어져 있는 부채 하나를 집어 들며 물었다. “여기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왜 부채질을 할수록 불길이 더 거세게 타오르는 것이냐?” 토지신이 그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그 부채는 진짜가 아닙니다. 속으신 것이지요.” 손오공이 물었다. “그럼 진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자 토지신은 다시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하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약 진짜 파초선을 빌리려 하신다면, 반드시 대력왕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결국 대력왕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그 사연은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0회 — 우마왕이 싸움을 멈추고 잔치 에 참석하고, 손행자가 두 번에 걸쳐 파 초선을 부른다

牛魔王罷戰赴華筵 孫行者二調芭蕉扇

손행자, 세 번째로 파초선을 손에 넣다

토지가 말했다. "대력왕이 바로 우마왕입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이 산이 원래 우마왕이 지른 불 때문에 생긴 것이
라, 이름만 화염산인 것이냐?"

토지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손대성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감히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숨기지 말고
말해 보아라."

토지가 말했다. "이 불은 원래 손대성께서 일으킨 것입니다."

손오공이 화를 내며 외쳤다. "내가 언제 그랬단 말이냐? 어찌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냐! 내가 불을 지른 놈이라니?"

토지가 말했다. "이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는군요. 본래 이곳에는 이런 산이 없었습니다. 오백 년 전 손대성께서 천궁을 뒤흔들었을 때, 현성자에게 붙잡혀 태상노군에게 끌려가셨지요. 그때 대성께서 팔괘로 안에 갇히게 되었는데, 단로를 달구던 중 대성께서 단로를 걷어차는 바람에 벽돌 몇 개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이곳까지 흘러 들어와 화염산이 된 것입니다. 저는 본래 도술천궁에서 화로를 지키던 도인이었습니다만, 태상노군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꾸지람을 듣고 이곳으로 쫓겨나 화염산의 토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팔계가 투덜거리며 말했다. "어쩐지 차림새가 수상하다 했더니, 도사가 변신한 토지였구먼!"

손행자가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그대 말대로라면, 왜 굳이 대력왕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यो?"

토지가 대답했다. "대력왕은 나찰녀의 남편입니다. 지금은 나찰녀를 버려두고 적뢰산 마운동에 머물고 있지요. 그곳에는 만년호왕이라는 여우 왕이 있었는데, 그 여우 왕이 죽으면서 딸을 하나 남겼으니 그 이름이 옥면공주입니다. 그 공주는 막대한 재산을 가졌으나 이를 관리할 사람이 없었지요. 그러다 2년 전, 우마왕의 신통력이 광대하다는 소문을 듣고는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주더라도 그를 데려오겠다며 데릴사위로 맞이했습니다. 우마왕은 나찰녀를 버린 뒤로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만약 손대성께서 우마왕을 찾아가 이곳으로 와달라고 간곡히

청하신다면, 진짜 부채를 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그 부채를 부쳐 불길을 잠재우면 스승님의 앞길을 지킬 수 있고, 둘째로 화재의 근원을 영원히 없애 이 땅의 생명들을 구제할 수 있으며, 셋째로는 저를 놓아주어 하늘로 돌아가 태상노군의 명을 완수하게 해줄 것입니다.”

손행자가 물었다. “적뢰산은 어디에 있소? 거기까지는 얼마나 가야 하는가?”

토지가 말했다. “정남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까지는 삼천여 리가 됩니다.”

손행자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사승과 저팔계에게 스승님을 잘 보살피라고 당부한 뒤, 토지신에게는 곁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달라고 일렀다. 그러고는 곧바로 소리도 없이 홀연히 사라졌다. 반 시진쯤 지났을까, 저 멀리 높이 솟은 산 하나가 눈앞에 나타났다. 손행자가 구름 위에서 내려와 산봉우리 정상에 서서 내려다보니, 참으로 장관인 산이었다.

시로 이르되, 높기는 얼마나 높은지 머리가 푸른 하늘에 닿아 있고, 크기는 얼마나 큰지 뿌리가 황천까지 뻗었구나. 산 앞은 햇살이 따스하여 한겨울에도 풀과 나무가 철을 모르고, 고개 너머는 바람이 차가워 한여름에도 서리가 녹지 않네. 용담의 못은 계곡물과 이어져 끊임없이 흐르고, 호혈의 굴은 절벽에 의지해 꽃들이 일찍 피어나네. 천 갈래로 흐르는 물줄기는 날아다니는 옥처럼 빛나고, 흐드러지게 핀 꽃들은 비단 자수처럼 아름답구나. 굽이치는 물길은 산등성이와 나무를 감싸 안고, 바위 틈새로는 소나무가 우뚝 솟아 있네. 참으로 높은 산과 험한 고

개, 가파른 절벽과 깊은 계곡, 향기로운 꽃과 맛있는 열매, 붉은 덩굴과 보랏빛 대나무, 푸른 소나무와 초록빛 버드나무까지, 사계절 내내 그 빛깔 변함없으니,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그 모습 그대로로다.

손대성은 한참 동안 산을 구경한 뒤, 뽕족한 봉우리를 내려와 깊은 산속으로 길을 찾아 나섰다. 한참을 헤매던 중, 문득 소나무 그늘 아래서 향기로운 난초 가지 하나를 꺾은 여인이 몸을 살랑거리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손대성은 기이한 바위 옆으로 몸을 숨기고 눈을 부릅떠 그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 여인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시로 이르되,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아리따운 미모에, 연꽃이 움직이듯 천천히 걸음걸이가 우아하구나. 얼굴은 왕소군(王嬙)과 같고 자태는 초나라 미녀와 같으니, 꽃처럼 말솜씨가 좋고 옥처럼 향기가 배어나오네. 높게 튼 머리에는 푸른 깃털 장식이 화려하고, 초록빛 눈동자는 가을 호수처럼 맑고 깊구나. 치마는 살짝 드러나고 신발은 작고 아담하며, 비취색 소매 사이로 하얀 손목이 길게 뻗어 있네. 저녁 비와 아침 구름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으니, 참으로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를 가졌구나. 비단강 물결처럼 매끄러운 피부와 수려한 눈썹은, 탁문군(卓文君)과 설도(薛濤)보다도 빼어나도다.

여인이 천천히 바위 쪽으로 다가오자, 손대성은 몸을 굽혀 예를 갖추며 부드럽게 물었다. "보살님,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여인은 손대성을 보지도 못한 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러다 손대성의 못생긴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자, 겁에 질린 채 겨우 대답했다.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기에 감히 이곳에서 누구에게 묻는 것이요?"

손대성은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내가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에 부채를 빌리러 왔다고 말하면, 이 여자가 우마왕과 가까운 사이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일단 친한 척을 하며 우마왕을 찾아왔다고 둘러대어 대담을 유도하는 것이 좋겠구나.'

여인은 손대성이 아무 말이 없자 안색을 바꾸며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당신이 대체 누구길래 감히 나에게 묻는 것이냐?"

손대성은 몸을 굽히며 웃는 낯으로 달래듯 말했다. "저는 취운산에서 왔는데, 이곳에 처음 와서 길을 잘 모릅니다. 보살님, 이곳이 적뢰산입니까?" 여인이 대답했다. "그렇소." 손대성이 다시 물었다. "그럼 마운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인이 쏘아붙였다. "그 동굴은 왜 찾으려는 것이오?" 손대성이 말했다. "저는 취운산 파초동의 철선공주님이 우마왕님을 모셔 오라 하여 청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 여자는 철선공주가 우마왕을 모셔 오라고 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리고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이 천한 것 같으니라고, 정말 무지하기 짝이 없구나! 우마왕께서 우리 집에 오신 지 채 2년도 안 되었는데, 그동안 보석이며 금은보화, 비단이며 옷감을 얼마나 많이 바쳤는지 모른다. 매년 땀감을 대고 매달 쌀을 바치며 아주 편안하게 지내게 해주었거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감히 또 그를 불러오다니!"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상대가 옥면공주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일부러 여의봉을 꺼내 들고는 크게 호통을 쳤다. "이 망할 계집 같으니라고!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털어 우마왕을 붙잡아 두었으니, 그야말로 돈

주고 시집은 것이 아니냐? 네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감히 누구를 욕하는 것이냐!"

그 소리에 여자는 혼비백산하여 정신이 나갈 지경이 되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발을 헛디디며 허둥지둥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손오공은 고함을 지르며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소나무 숲을 지나니 바로 마운동 입구가 나타났다. 여자는 동굴 안으로 뛰어 들어가 문을 쿵 닫아걸었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거두고 걸음을 멈춘 채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경치가 참으로 일품이었다.

숲은 울창하고 뻗뻗하며,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험준하게 솟아 있다. 념쿨은 그늘을 드리워 서늘하고, 난초와 혜초의 향기는 은은하게 퍼진다. 맑은 샘물은 대나무 숲을 지나며 옥 구르는 소리를 내고, 기묘한 바위 사이로 꽃잎이 떨어진다. 안개와 노을은 먼 산봉우리를 감싸 안고, 해와 달은 구름 낀 병풍을 비춘다. 용의 울음과 호랑이의 포효가 들리는 듯하고, 학의 울음과 꿩꼬리의 지저귀음이 가득하다. 이토록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은 참으로 사랑스러우며, 신비로운 꽃과 풀들이 있어 늘 밝게 빛난다. 천태산의 신선 동굴에 비할 바 아니요, 바다 위 무릉도원보다도 낫구나.

손오공이 경치를 구경하는 동안, 여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겁에 질린 채 서둘러 서재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마침 우마왕이 그곳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즐기고 있었다. 여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우마왕의 품에 안겨 발을 동동 구르며 목놓아 울었다. 우마왕은 웃는 낯으로 달래며 말했다. "아름다운 당신, 왜 그리 괴로워합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보세요."

여자는 몸을 들썩이며 소리쳤다. "저 망할 요괴가 나를 죽이려 해요!"

우마왕이 웃으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나에게 화풀이입니까?"

여자가 대답했다. "부모도 없이 의지할 곳 없는 저를 당신이 거두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대단한 장한이라더니 알고 보니 제 아 내를 무서워하는 겁쟁이었군요!"

우마왕은 그 말을 듣고 여자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여자가 말을 이었다. "방금 동굴 밖 꽃그늘 아래를 거닐며 난초를 꺾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털투성이인 데다 입이 툭 튀어나온 중놈 하나가 들이닥쳐 인사를 하더니 나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철선공주가 우마왕을 모셔 오라고 시켰다지 뭐예요? 그래서 내가 한두 마디 꾸짖었더니, 오히려 나에게 욕을 퍼붓고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쫓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저놈에게 맞아 죽을 뻔했다고요! 이게 다 당신을 불러온 화근이 아니겠어요? 나를 죽이려 들다니요!"

우마왕은 그 말을 듣고 여자를 정성껏 달래고 한참 동안 다독여준 뒤에야 여자는 겨우 화를 가라앉혔다. 그러자 우마왕이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에게 숨김없이 말하겠습니다. 파초동은 비록 외진 곳이지만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내 아내는 어려서부터 수행을 해온 도를 깨우친 여선인데, 집안 규율이 매우 엄격하여 동굴 안에 남

자 발자국 하나 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저런 입 툭 튀어나온 중놈이 나타나 나를 찾겠단 말입니까? 분명 어디선가 나타난 요괴가 내 이름을 사칭하여 찾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나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마왕은 서재에서 나와 대청으로 가서 갑옷과 무장을 챙겨 입었다. 그리고 혼철봉을 하나 집어 들고 문밖으로 나가며 크게 외쳤다. "어떤 놈이 감히 내 집에서 행패를 부리느냐!"

손행자가 곁에서 보니, 우마왕의 모습은 오백 년 전과 비교해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머리에는 매끄럽게 닦은 은빛 숙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단 무늬가 수놓아진 황금 갑옷을 입었으며, 발에는 끝이 말려 올라간 분홍색 밀창의 사슴 가죽 장화를 신었다. 허리에는 세 가닥의 비단 실로 짠 사자 모양의 허리띠를 댔다. 눈빛은 밝은 거울처럼 빛나고, 두 눈썹은 붉은 무지개처럼 아름다웠다. 입은 혈분(血盆)처럼 크고 치아는 구리판처럼 가지런히 박혀 있었다. 그 호통 소리는 산신령도 겁에 질리게 할 만큼 산천을 울렸고, 움직임은 악귀도 당황하게 할 만큼 위풍당당했다. 사해에 혼세마왕이라 이름이 높고, 서방에서는 대력왕이라 불리는 마왕이었다.

손행자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앞으로 나아가 깊숙이 읊하며 인사했다. "형님, 이 아우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우마왕이 답례하며 물었다. "네가 제천대성 손오공이냐?"

손행자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말고요. 오랫동안 뵈지 못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방금 어떤 여인에게 길을 물어 형님을 뵈게 되었습니다. 풍채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셨으니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우마왕이 호통을 쳤다. “그 입 좀 그만 놀려라! 내가 천궁을 어지럽히다가 부처님께 놀려 오행산 아래 갇혀 있었다는 소문은 들었다. 이제 겨우 재앙에서 벗어나 당승을 보호하며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간다더니, 어째서 호산 고송간 화운동에 있는 내 아들 흥해아를 해친 것이냐? 그 일로 여기서 너를 원망하던 차인데, 어찌하여 또 나를 찾아온 것이냐?”

손행자가 예를 갖추며 말했다. “형님, 부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시 형님의 아드님이 저희 스승님을 붙잡아 그 살을 먹으려 했기에, 제가 곁에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관음보살께서 스승님을 구하고 자 권유하여 아드님이 잘못을 뉘우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선재동자로 거듭나 형님보다 지위가 더 높아졌고, 극락의 문에서 영원한 장수를 누리며 유유자적하고 있으니, 어찌 저를 탓하시겠습니까?”

우마왕이 욕을 하며 말했다. “이 말재주만 좋은 원숭이 놈 같으니! 자식을 해친 일은 네 말로 넘어간다 치자. 그런데 내 첩을 겁박하고 내 문전까지 쳐들어온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이냐?”

손행자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을 뵈러 왔는데 계시지 않기에 그 여인에게 길을 물었을 뿐인데, 그분이 형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그분이 저에게 욕을 몇 마디 하길래 제가 잠시 거칠게 행동하여 형수님을 놀라게 한 것뿐입니다. 형님께서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우마왕이 말했다. “정 그렇다면 옛 정을 생각해서 이번 한 번은 너를 놓아주마.”

손오공이 말했다.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일이 있으니, 부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마왕이 욕설을 내뱉으며 꾸짖었다. "이 원숭이 녀석이 앞뒤를 분간 못 하는구나! 너를 살려주었더니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괴롭히려 오다니. 도와달라니, 대체 무엇을 도와달라는 말이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형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승을 모시고 서쪽으로 가던 중 화염산에 가로막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토지신께 여쭙어보니 형수님인 나찰녀에게 파초선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좀 빌리고자 합니다. 어제 옛 거처에 가서 형수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으나, 형수님께서 완강히 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형님께 청하오니, 부디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저와 함께 형수님께 가서 파초선을 빌려주십시오. 그 부채로 불길을 꺼뜨려 당승이 무사히 산을 넘게만 된다면, 즉시 부채를 온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우마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를 갈며 소리쳤다. "네가 무례하지 않다고? 알고 보니 부채를 빌리러 온 것이었구나! 네놈은 분명 내 아내를 먼저 속였고, 아내가 빌려주지 않으니 나를 찾아온 데다 이제는 내 애첩까지 쫓아내려 하는구나. 예부터 말하기를 '친구의 아내는 건드리지 말고, 친구의 첩은 해치지 말라'고 했다. 내

아내를 속이고 내 첩을 쫓아내려 하니 이 얼마나 무례한 짓이냐! 당장 내 몽둥이를 맞보아라!"

손오공이 말했다. "형님이 치시겠다면 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채를 빌리려는 제 마음은 진심이니, 제발 한 번만 빌려주십시오."

우마왕이 말했다. "네가 세 합 안에 나를 이긴다면 내 아내에게 빌려주마.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너를 때려죽여 내 원한을 풀 것이다!"

손오공이 말했다.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그동안 소홀하여 형님을 뵈지 못했으니, 지난 몇 년간 형님의 무예가 예전과 어떠한지 형제들과 함께 한판 겨루어 봅시다."

우마왕이 말할 겨를도 없이 혼철봉을 휘둘러 머리 위로 내리쳤고, 손오공은 여의금고봉을 휘둘러 맞대응했다. 두 사람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시로 이르되,

금고봉과 혼철봉이 맞부딪치니 친구라던 정은 간데없고 싸움만 남았네. 한쪽은 "원숭이 놈아, 네가 정을 저버렸구나" 하고, 다른 쪽은 "네 놈이 무식하여 감히 내 문에 들었느냐" 하며 맞서네. 한쪽은 부채를 빌려 당승을 구하겠다 하고, 다른 쪽은 파초선을 안 빌려주니 인색하기 짝이 없구나. 말을 주고받으며 옛 정은 사라지고 의리 없는 싸움에 분노만 치솟네. 우마왕의 몽둥이는 용이 꿈틀대듯 휘둘러지고 손오공의 봉은 귀신도 피할 듯 날아드네. 처음에는 산 앞에서 싸우더니 나중에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네. 허공에서 신통력을 부리며 오색

찬란한 빛 속에서 묘한 기술을 펼치네. 두 몽둥이 부딪치는 소리는 하늘을 뒤흔드는데 승부를 가늠할 길이 없구나.

손오공과 우마왕은 백여 합이 넘도록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한창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산봉우리 위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 어르신! 저희 대왕께서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부디 어서 오셔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소리를 들은 우마왕은 혼철봉으로 손오공의 금고봉을 받쳐 든 채 외쳤다. "이 원숭이 놈아, 잠시 멈춰 있거라! 친구 잔치에 가봐야겠다!" 말을 마친 우마왕은 구름을 타고 내려가 동굴로 향했다. 그리고 옥면공주에게 말했다. "아름다운 임이여, 방금 그 천둥 같은 목소리의 사내는 손오공이라는 원숭이였소. 내가 몽둥이로 한바탕 두들겨 패서 쫓아버렸으니 다시는 못 올 것이오. 걱정 말고 놀고 계시오. 나는 친구 집에 술 좀 마시러 다녀오겠소."

우마왕은 갑옷을 벗고 짙은 청색 비단옷으로 갈아입은 뒤, 문을 나서서 벽수금정수에 올라탔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문을 지키게 한 뒤, 구름과 안개가 자욱한 사이로 서북쪽을 향해 달려갔다.

손오공은 높은 봉우리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 늙은 소가 또 어떤 친구를 사귀었길래 저렇게 잔치에 가나 보군. 나도 저 녀석을 따라 한번 가봐야겠다.'

말을 마친 손오공은 몸을 흔들흔들 움직여 한 줄기 시원한 바람으로 변신하더니, 우마왕을 뒤쫓아 나란히 날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산에 도착했으나, 우마왕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보이지 않았다. 손오공은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산속을 뒤지며 찾아 나섰다.

그러다 산속에서 맑은 물이 깊게 고인 연못 하나를 발견했는데, 연못가에는 돌비석 하나가 서 있었다. 그 비석에는 '난석산 벽파담'이라는 여섯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었다. 손오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 늙은 소가 분명 물속으로 들어갔구나. 물밑에 사는 요괴라면 교통이거나, 아니면 용이나 물고기, 혹은 거북이나 자라 같은 짐승의 정령일 것이다. 나도 저 밑으로 내려가 한번 살펴보아야겠다.'

그 훌륭한 대성은 손가락으로 결(訣)을 맺고 주문을 외운 뒤 몸을 한번 흔들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서른여섯 근쯤 나가는 적당한 크기의 게로 변했다. 손오공은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어 곧장 연못 바닥까지 내려갔다. 그러다 문득 영롱하고 투명하게 빛나는 누각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누각 아래에는 벽수금정수가 묶여 있었다. 그런데 누각 안으로 들어서니 신기하게도 물이 한 방울도 없었다. 손오공이 기어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니, 저 멀리서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시로 이르되,

붉은 궁궐과 옥빛 문은 세상의 궁궐과 다를 바 없구나. 지붕과 기와는 황금으로 만들고, 문지방과 경첩은 백옥으로 삼았네. 거북등껍질 병풍이 펼쳐져 있고, 산호 구슬로 울타리를 둘렀네. 상서로운 구름과 빛나는 연꽃 좌석은 하늘과 땅을 잇고, 천궁이라 해도 이곳만 못하니,

과연 신선이 사는 낙원이로다. 높은 대청에는 손님을 맞이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크고 작은 관리들은 관을 쓰고 보석을 두른 채 앉아 있네. 옥녀들에게는 향기로운 음식을 가져오라 재촉하고, 선녀들에게는 악기를 조율하라 명하네. 고래는 울고 게들은 춤추며, 자라가 생황을 불고 악어가 북을 치니, 말의 턱에 달린 보석은 술잔과 음식 접시를 비추네. 비단 병풍에는 새 모양 문양이 수놓아져 있고, 복도에는 새우 수염 같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네. 여덟 가지 악기 소리가 섞여 신선의 노래를 연주하니, 음악 소리가 구름 위 하늘까지 울려 퍼지네. 농어 모양의 기녀는 옥슬(瑤瑟)을 타고, 말 모양의 악사는 옥소(玉簫)를 부네. 물고기 여인들은 향긋한 사슴 고기를 올리고, 용녀들은 금빛 봉황 비녀를 머리에 꽂았구나. 먹는 음식은 하늘의 주방에서 올린 여덟 가지 보물 요리요, 마시는 술은 신선의 집에서 빚은 향기로운 명주로다.

그 상석에는 우마왕이 앉아 있었고, 좌우로는 서너 마리의 교룡 정령들이 자리했다. 앞쪽에는 늙은 용 정령이 앉아 있었으며, 양옆으로는 용의 자손들과 손주들, 그리고 용의 아낙들과 딸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한창 술잔을 나누며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손오공이 슬금슬금 다가가는 것을 본 노룡이 명령했다. "저 게 놈을 당장 잡아라!" 그러자 용의 자식들과 손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손오공을 붙잡았다. 이때 손오공이 갑자기 사람의 말을 하며 외쳤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노룡이 말했다. "네놈은 어디서 온 게 놈이기에 감히 이 귀한 손님들이 계신 대청에 들어와 멋대로 날뛰는 것이냐? 어서 사

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손오공은 피를 내어 거짓말로 대중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호수에서 태어나 살아온 몸이라, 절벽 틈에 굴을 파고 지내왔나이다. 오랫동안 몸을 펴고 지내다 보니, 제멋대로 행동하는 법만 익혔사옵니다. 풀밭을 밟고 진흙을 끌며 다니느라, 예의범절이라곤 배운 적이 없나이다. 법도를 몰라 왕의 위엄을 침범하였으니,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있던 요괴들이 이 말을 듣고는 모두 노룡에게 예를 갖추며 말했다. "이 게놈이 이제 막 요궁에 들어와 왕실의 예법을 잘 모르는 모양이니, 부디 너그러이 놓아주십시오." 노룡은 고맙다며 인사를 받았다. 요괴들이 명령했다. "저놈을 풀어주되, 매질은 잊지 말고 해라. 그리고 밖에서 대기시켜라." 손오공은 대답을 하고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도망쳐 곧장 패루 아래까지 달려갔다. 그러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우마왕이 여기서 술에 취해 있는데, 잔치가 끝나기를 기다려 무엇 하겠는가? 설령 잔치가 끝난다 해도 내게 부채를 빌려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저놈의 탈것인 벽수금정수를 훔쳐 타고 우마왕으로 변신한 뒤, 나찰녀를 속여서 부채를 얻어내는 편이 낫겠다. 그래야 우리 스승님을 모시고 무사히 산을 넘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손오공이 곧바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금정수(金睛獸)의 고삐를 풀더니, 덩석 안장에 올라타 물속에서 곧장 솟구쳐 나왔다. 연못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는 몸을 우마왕의 모습으로 변신시켰다. 금정수를 몰고 구름을 타고 달리니, 머지않아 취운산 파초동 입구에 도착했다. 손오공이 "문 열어라!" 하고 크게 외쳤다.

동굴 문에는 두 명의 시녀 아이가 있었는데,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보니 우마왕의 얼굴을 한 이를 보고는 얼른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다. "마님, 나리께서 집에 오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찰녀는 서둘러 머리 모양을 매만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중을 나갔다. 손오공은 안장에서 내려 금정수를 끌고 들어가며, 대답하듯 꾀를 써서 여인을 속였다. 나찰녀는 육안으로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는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며, 몸종들에게 자리를 마련하고 차를 내오라고 시켰다. 온 집안 식구들이 주인님이 돌아온 것을 보고 모두 정중히 모셨다.

잠시 동안 안부를 주고받으며 정을 나누던 중, 우마왕이 말했다. “부인, 오랜만이구려.” 나찰이 대답했다. “대왕님, 만복을 누리소서. 그런데 대왕께서는 새 신부에게 빠져 저를 이토록 내팽개치시더니, 대체 어떤 바람이 불어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옥면공주를 맞이한 뒤로 집안일도 번거롭고 챙겨야 할 친구들도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지내다 보니 어느덧 재산도 꽤 모르게 되었소.” 이어 우마왕이 덧붙였다. “요즘 듣자하니 손오공 그놈이 당승을 호위하며 화염산 근처까지 왔다고 하더군. 아마 그놈이 부인에게 가서 부채를 빌리려 할 것이요. 나는 그놈이 내 아들을 해친 원한을 아직 갚지 못해 아주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오. 혹시 그놈이 오거든 사람을 보내 나에게 미리 알려주시오. 내가 직접 가서 그놈을 잡아 몸을 만 갈래로 찢어버림으로써 우리 부부의 한을 풀어야겠소.” 나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대왕님, 예부터 ‘사내에게 아내가 없으면 재산이 주인을 잃고, 여자에게 남편이 없으면 몸이 주인을 잃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목숨도 저 원승이 놈 때문에 하마터면 끊어질 뻔했습니다.” 우마왕은 그 말을 듣고 일부러 화를 내

며 소리쳤다. “그 고약한 원숭이 놈이 언제 지나갔단 말ियो?” 나찰이 대답했다.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에게 부채를 빌리러 왔기에, 제 아이를 해친 놈이라 화가 나서 보검을 휘두르며 문밖으로 나가 그놈을 베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아픔을 참으면서도 대왕님과 의형제를 맺은 사이라며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달래더군요.” 우마왕이 말했다. “오백 년 전에 일곱 형제로 의를 맺긴 했었지.” 나찰이 말을 이었다. “제가 욕을 해도 대꾸도 못 하고, 칼로 베려 해도 감히 움직이지도 못하더군요. 그러다 제가 부채로 한바탕 부채질을 했더니, 어디서 바람을 다스리는 법이라도 배웠는지 오늘 아침에 또 문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부채질을 해서 꼼짝 못 하게 만들었더니, 급히 칼을 휘두르려 하자 그놈이 저를 막아서더군요. 몽둥이질이 워낙 매서워 겁이 난 나머지 동굴 안으로 들어가 문을 꼭 잠갔는데, 그놈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제 배 속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놈에게 숙부라고 몇 번 불러주고 나서야 겨우 부채를 넘겨주었습니다.”

손오공은 또 짐짓 가슴을 치며 탄식하듯 말했다. “아이고, 아깝다! 아까워라! 부인에게서 어찌다가 이 보물을 그 원숭이 녀석에게 주었던 말입니까? 정말 속이 터지는군요.”

나찰이 웃으며 말했다. “대왕님, 노여움을 푸세요. 그놈에게 준 것은 가짜 부채예요. 그냥 그놈을 속여서 쫓아버린 것이지요.”

손오공이 물었다. “그럼 진짜 부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찰이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보관하고 있으니깐요.”

그러고는 시녀에게 일러 술을 준비하게 하여 잔치를 벌였다. 나찰은 잔을 받들어 올리며 말했다. “대왕님, 이제 막 새로이 혼례를 올리셨으니 부디 정을 잊지 마시고, 우선 이 고향의 술을 한 잔 드셔 보세요.”

손오공은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부인께서 먼저 드시지요. 제가 밖의 일을 처리하느라 부인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낮이나 밤이나 집안을 잘 돌봐주신 은혜에 조만간 제대로 보답하겠습니다.”

나찰은 다시 잔을 받아 술을 채운 뒤 우마왕에게 건네며 말했다. “옛말에 ‘아내란 남편과 평등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몸을 돌보는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무엇을 그리 보답한다 하십니까?”

두 사람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에 앉아 술을 돌리기 시작했다. 손오공은 감히 음식을 함부로 먹지 못하고 그저 과일 몇 개를 집어 먹으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술이 몇 잔 오가자 나찰은 기분 좋게 취기가 올랐다. 정육이 슬쩍 고개를 들더니 손오공에게 몸을 바짝 밀착하고 손을 만지작거리며 애교를 부렸다. 손을 맞잡고 다정한 말을 속삭이기도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낮은 목소리로 귓가에 대고 웅얼거리기도 했다.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면 서로 입을 맞추어 먹여주기도 했다. 손오공은 겉으로는 시큰둥한 척하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몸을 기대며 장단을 맞춰주었다. 과연 시로 이르기를,

낚시 갈고리처럼 근심을 낚아채고, 빗자루처럼 슬픔을 쓸어버리니, 세상만사 근심 잊게 하는 것이 바로 술이라네. 사내는 절개를 지키며 마음을 펼치고, 여인은 정을 잊고 웃음꽃을 피우네. 얼굴은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붉고, 몸은 어린 버들가지처럼 흔들리네. 조잘조잘 끊임없는 말솜씨에, 손끝마다 교태가 넘쳐흐르네. 구름 같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매와 날렵한 손길이 눈에 밝히고, 몇 번이고 다리를 꼬며 소매를 매만지네. 하얀 목은 자연스레 숙여지고, 가느다란 허리는 점점 요염하게 흔들리네. 달콤한 말은 멈출 줄 모르고, 풍만한 가슴은 금단 추가 풀린 채 반쯤 드러나 있네. 취기가 오르니 정말로 옥산이 무너지듯 흐트러져, 풀린 눈동자로 어리광을 부리며 추한 모습까지 보이네.

손오공은 그녀가 이토록 취한 것을 보고 속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슬쩍 떠보듯 물었다. "부인, 그 파초선은 어디에 두었소? 늘 조심해야 겠소. 손행자가 변화무쌍한 재주로 다시 찾아와 흠쳐 갈까 겁이 나는구려."

나찰은 싱긋 웃으며 입을 벌리더니, 살구 잎만큼 작은 물건을 툇 내뱉으며 손오공에게 건넸다. "이것이 보물이 아니겠소?" 손오공은 그것을 받아 들었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조그만 것이 어떻게 화염산을 끌 수 있단 말인가? 또 가짜를 속이는 것이겠지.'

나찰은 손오공이 보물을 든 채 깊은 생각에 잠긴 것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다가갔다. 그녀는 분칠한 얼굴을 손오공의 얼굴에 문지르며 말했다. "여보, 얼른 보물을 챙겨서 술이나 마세요. 왜 그렇게 멍하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손오공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다리를 꼬며 슬쩍 물었다. "이렇게 작은 물건으로 어떻게 팔백 리나 되는 불길을 끌 수 있단 말ियो?"

술기운에 본성이 드러난 나찰은 거리낌 없이 그 방법을 말해주었다. "대왕님, 당신과 헤어진 지 벌써 이 년이나 되었는데, 밤낮으로 즐거움만 쫓느라 저 옥면공수에게 정신을 다 빼앗기신 모양이군요. 어찌 집안 보물 다루는 법까지 잊으셨어요? 그저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자루에 달린 일곱 번째 붉은 실을 비비면서, '후우, 슈우, 아, 히, 휘, 후' 하고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순식간에 한 길 두 자 길이로 길어지거든요. 이 보물은 변화가 무궁무진해서, 설령 팔만 리 불길이라 해도 단 한 번의 부채질로 모두 꺼뜨릴 수 있답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그러고는 입에 물고 있던 부채를 뱉어내고 얼굴을 속속 문질러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손오공이 엄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나찰녀, 나를 네 진짜 남편으로 보고 이러는 거냐? 나를 데리고 이런 추잡한 짓을 잔뜩 벌이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정말 부끄럽지도 않아!"

나찰녀는 상대가 손오공인 것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상을 밀쳐 넘어뜨리고는 먼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수치심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비명처럼 외쳤다.

"아이고, 분해라! 정말 분해 죽겠구나!"

손행자는 그들의 생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손에 든 것을 획
뉘아채고는 성큼성큼 파초동을 빠져나왔다.

시로 이르되, "아름다운 색에 마음 뺏기지 않고, 뜻을 이루니 웃음꽃
이 피어나네. 몸을 훌쩍 날려 상서로운 구름을 밟고, 높은 산에 올라 부
채를 꺼내어 그 사용법을 펼쳐 보이네."

손행자가 몸을 솟구쳐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높은 산 위로 뛰어오르
더니, 가져온 부채를 꺼내어 사용법을 시험해 보았다. 왼손 엄지손가
락으로 부채에 달린 일곱 번째 붉은 실을 비비며 "후우, 슈우, 아, 흠,
히, 츠, 후" 하고 주문을 외우자, 과연 부채가 한 길 두 자(약 3.6미터)
길이만큼 길게 늘어났다. 그는 부채를 손에 들고 요리조리 자세히 살펴
보았다. 지난번에 썼던 가짜 부채와는 확실히 달랐다. 부채에서는 상
서로운 빛이 번쩍이고 신령한 기운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는데, 부채 위
에는 서른여섯 가닥의 붉은 실이 경락을 따라 얹히고설켜 안팎으로 긴
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알고 보니 손행자는 부채를 길게 만드는 방법만 알아냈을 뿐, 짧게
만드는 비결은 알지 못했기에 부채의 길이는 늘 이 정도 수준에 머물렀
다. 어쩔 도리가 없어진 손행자는 부채를 어깨에 짊어지고 예전 길을
찾아 돌아갔다.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된다.

한편, 우마왕은 벽파담 밑에서 요괴들과 잔치를 마치고 문밖으로 나
왔으나, 벽수금정수가 보이지 않았다. 노룡왕이 요괴들을 모아놓고 물
었다. "누가 감히 우리 우 대인님의 금정수를 훔쳐 갔느냐?" 요괴들이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감히 훔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모두

잔치석상에서 술을 올리고 악기를 연주하느라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그 앞을 지나간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룡왕이 말했다. "우리 요괴들이 그럴 리가 없지. 혹시 낯선 사람이 들어온 적은 없느냐?" 용의 아들과 손자들이 말했다. "방금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게 요괴 하나가 이곳에 왔는데, 아마 그자가 낯선 사람일 것입니다."

우마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모든 상황을 깨닫고 외쳤다. "더 말할 것도 없다! 오늘 아침 벼이 나를 초대했을 때, 당승을 데리고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손오공이라는 놈이 나타났었다. 그놈이 화염산을 지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내게 파초선을 빌려달라고 청하더구나. 내가 빌려주지 않으니 나와 한바탕 싸웠는데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놈을 내버려 두고 잔치에 온 것인데, 그 원숭이 놈은 잔피가 천가지 만 가지나 되는 영악한 놈이다. 분명 그놈이 게로 변신해 이곳에 와서 소식을 살피더니, 내 짐승을 훔쳐서 내 아내에게 가서 파초선을 속여 빼앗아 간 것이 틀림없다!"

요괴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같이 겁에 질려 물었다. "그놈이 설마 천궁을 어지럽혔던 그 손오공입니까?" 우마왕이 말했다. "그렇다. 만약 그대들이 서천 길을 가다가 그놈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노룡왕이 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대인의 훌륭한 탈것은 이제 어찌합니까?" 우마왕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괜찮아. 다들 흠어져 물러가라. 내가 가서 그놈을 잡아 오겠다."

한편 우마왕은 물길을 갈라 연못 바닥에서 튀어 올라오더니, 황금빛 구름을 타고 곧장 취운산 파초동으로 날아갔다. 도착해 보니 나찰녀가

발을 구르고 가슴을 치며 소란스럽게 울부짖고 있었다. 우마왕이 문을 밀고 들어가 보니, 벽수금정수가 아래쪽에 묶여 있는 것이 보였다.

우마왕이 큰 소리로 물었다. "부인, 손오공 그놈은 어디로 갔소?"

시녀들이 우마왕을 보고 일제히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주인님, 오셨습니까?"

나찰녀는 우마왕을 붙잡고 머리를 땅에 찹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늙어빠진 망할 양반 같으니라고! 어찌 이리 조심성이 없단 말입니까? 그 원숭이 놈이 금정수를 훔쳐 가더니, 당신 모습으로 변신해서 여기까지 와 나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우마왕이 이를 갈며 물었다. "그 원숭이 놈이 어디로 갔단 말ियो?"

나찰녀는 가슴을 탕탕 치며 소리쳤다. "그 못된 원숭이가 내 보물을 가로채고는 본모습으로 변해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아, 분해서 못 살겠네!"

우마왕이 말했다. "부인, 진정하십시오. 너무 애태우지 마시오. 내가 저놈을 반드시 뒤쫓아 보물을 되찾아 오겠소. 그놈의 가족을 벗기고 뼈를 가루로 만들어 심장과 간을 꺼내 보여줌으로써 부인의 화를 풀어주리라." 그러고는 소리쳤다. "병기를 가져오너라!"

시녀가 대답했다. "주인님의 병기는 여기 없습니다."

우마왕이 말했다. "그럼 너희 마님의 병기라도 가져오너라!"

시녀가 푸른 빛이 도는 보검 두 자루를 받들어 올렸다. 우마왕은 잔치에 갈 때 입었던 검푸른 비단 옷을 벗어 던지고 속옷을 단단히 여민 뒤, 양손에 검을 쥐고 파초동을 나서 화염산을 향해 곧장 달려갔다.

시로 이르되,

은혜를 저버린 자는 일편단심인 여인을 속이고, 성질 급한 마왕은 목차(木叉)의 사람에게 다가가네.

결국 이번 일이 길할지 흉할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